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9월 25일 수요일 (주간) 제388호

삼촌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홈페이지 : www.sanchon.com

법석 조대 **일우 스님**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부처님 법은 몸과 마음에 배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찾으려 하지 않고 실천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가을, 독서의 계절에

우리들이 안고 있는 가장 일상적인 감정인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특유의 넉넉한 시선과 따뜻한 필체로 그려낸 탁낫한 스님의 〈화〉가 불교책방 여시아문에서 3개월째 1위를 달리고 있다. 시내 대형 서점에서도 〈화〉는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그 열풍이 대단하다.

이 책들의 선전은, 일반의 불교에 대한 관심과 그동안의 목마름



에 대한 일종의 신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불서 읽기 편식을 조장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들 책은 전체적인 불서 판매량의 증가추세를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불교출판 시장을 잠식하는 꼴이 되고 있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불서의 출간을 위해 불교전문 출판사들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일부 과대 포장되거나 언론 등 홍보 매체를 통한 책 팔기 경쟁도 한몫했다.

올해 불교전문출판사들이 내놓은 불서는 한달 평균 20여권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문학술서의 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문화관광부가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하고, '책 읽는 우리사회(b-korea)'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독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상전자책 체험관'을 운영하는가 하면, 새마을문고중앙회는 '추석귀성객 도서 나누어 주기' 행사도 펼쳤다. 이밖에 '전국 지역간 책 선물 릴레이' '가정 독서운동 캠페인' '국민독서 붐 조성 마라톤대회'를 비롯해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1500여건의 독서 행사가 연말까지 열린다.

독서의 달 9월에 불교계에서 준비된 행사는 불교책방 여시아문의 개점 8돌 기념 불서 특별 할인 판매전 뿐이다. 불교출판의 미래는 곧 불교의 미래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불자들의 독서붐을 이끌어 낼 만한 변변한 행사가 없다. 왜 우리는 항상 대형 불사만을 생각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항상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걸까? 불자들의 내면을 살찌우고, 일반인도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불서 만들고 읽기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은자(취재 2부 차장)

■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군승파견

1. 조계종은 진각종립 위덕대를 군승파송학교로 인정할 수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공감한다면 그 이유는?(공감할 경우만 응답하세요)
①기존의 군승단 운영이 혼란 ②종지종통의 차이로 인한 혼돈
③포교 방법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④기타
2. 공감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공감하지 않을 경우만 응답하세요)
①군 포교여건 개선이 급하므로
②타종교에 비해 현격히 적은 군법사 문제 해소
③종립학교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④기타

설문 참여: 9월 26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9호 8면에 실습니다.

소쩍새마을 등 31곳 지원 시급

재정열악해 시설구비 못한채 15일 지자체 신고

"3년내 정부기준 못 맞추면 강제 폐쇄"

무허가 조립식 가건물 6동. 후원금과 후원물품 의존율 100%. 9살 꼬마아이부터 85살 노인까지 215명의 장애 가족. 시설이 낙후해 수용자들은 생활공간조차 넉넉치 못하다. 때쿤에 지난 5일, 소쩍새마을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양성화 신고를 했다. 하지만 기간 내 시설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당국에 의해 강제 폐쇄된다.

최근 본지가 불교계 미신고시설 36곳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 원주 소쩍새마을, 경기도 화성 자제정사, 부산 더불어 사는 집 등 31곳(86.1%)이 15일까지 해당지역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시설 대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제대로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양성화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불교계 미신고 시설 대부분이 신고시설로 전환하게 된 것은 3년 이내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재정지원을 해주는 복지부의 '조건부 신고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초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보수비용으로 시설당 3천만원과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전 시 개·보수비 또는 임차료로 시설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 소규모 양성화 신고시설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시설 대부분이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다가 정부가 제시한 시설기준 조건을 맞출 자체예산 충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쩍새마을 원장 현각 스님은 "수용인원만 215명이 넘다보니 이들의 안전 등의 문제를 제도권에서 풀 수밖에 없었다"며 "유예 기간 동안, 구비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부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양성화라는 고육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경기도 용인 봉로원, 충남 아산 봉곡사 등 5곳(13.9%)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크다. 수용인원 10인 이하 규모의 이들 시설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 조건 충족은 애초에 무리라고 판단, 신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신고전환 시설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종교계 사회복지 연대 모색 △운영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인적자원 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n-gan@buddhapa.com



'팔월 한가위만 같아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 남아 있지만 민족 최대명절 한가위 추석은 역시 고향의 따뜻함과 풍성함을 느끼게 한다. 18일 서울 미아2동 삼양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절하기, 투호, 송편 빚기 등을 하며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영배기자

"종단 비하발언 좌시않겠다"

진각종, "정대원장 발언 종도모독" 강경항의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진각종 비하 발언과 관련해 진각종은 17일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진각종은 성명에서 "정대스님의 발언은 진각종도들을 모욕한 언어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진각종이 왜 불교가 아닌지 △원불교와 기독교만도 못한 종단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백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무외정사는 "만족할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진각종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구독료 내달부터 월 5천원

기존독자 종전대로 월 4천원 적용
10월부터 4개면 증면 28면 발행

삼가 아룁니다.

오는 10월부터 구독료가 신규 독자에 한해 현행 月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오릅니다.

구독료 조정은 창간이래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불교계 다른 신문은 약 33%가량 구독료를 인상해 왔습니다.

본지는 그동안 더 많은 면수에도 불구하고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신문 1부당 순수 제작원가가 창간일인 1994년 10월15일에 비해 2002년 9월 현재로 제작비·발송비·인건비 등을 포함해 67%나 상승했습니다.

현대불교는 구독료 인상을 계기로 독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현 24면 발행체제를 오는 10월2일자부터 A판 12면 B판 16면 등 총 28면 발행체제로 변경합니다.

더욱 풍부해진 정보, 생활 속의 불법 수행을 위한 충실한 가이드 역할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9월말 현재 구독자인 경우는 종전 구독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10월부터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만 새 구독료를 적용합니다. 한편, 1년 단위 구독신청에 적용해오던 할인제도는 폐지합니다.

영구 구독신청의 경우는 현행 50만원에서 62만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신문제작에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창간이후 구독료 변동상황

일 시	발행면수		구독료(원)
1994.10.15	16	→	4,000
1997.1.1	20	→	4,000
1997.10.1	24	→	4,000
2002.10.1	28	→	5,000

새 구독자 **구독료 자동이체하시면 관음보살도를 드립니다**



◇관음보살도

구독료를 내실 때 은행 지로방식을 이용하시는 경우 매월 1회 지로용지를 보낼 때마다 용지값 우편요금 등 건당 210원이 듭니다. 게다가 연체로 인해 3~4회씩 지로용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되면 가뜩이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독계정의 비용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반면에 은행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면 건당 비용(은행 수수료)은 지로방식의 31%절감된 145원이 됩니다.

이에 새로 독자가 되시면서 구독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사은의 뜻으로 미려한 색감의 16도 정밀 인쇄된 관음보살도(27cm×37cm, 시중판매가 2만원상당)를 드립니다. 이 보살도는 그대로 벽에 거시거나 액자에 넣고 보시면 수준 높은 예술품이 됩니다.

이번 사은 행사는 연말까지 계속되오니 적극 동참하셔서 뜻깊은 인연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객부 (02)737-0090

현대불교신문사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안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 1질(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 설

40세 넘더라도 희망을

대한불교 조계종 종회에서 40세 이상은 출가를 금지한다는 결의가 세상에 알려지자 뜻밖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에서는 네티즌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9월 17일 오전 현재 40세 이상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출가를 허용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이 62%에 달하고 있다. 붓다뉴스에서도 자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76명 중에서 68명이 40세 이상이라도 출가 기회를 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조계종단에서 출가자의 연령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회에서 이미 결의된 사항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 재세 당시에도 구이나갈국에 있던 120세의 수발타라라는 외도가 출가하고 있다.

마구잡이식 출가의 허용은 승단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인도불교 역사상 전개되었던 파탈리푸트라 결집은 무분별한 출가 허용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령이 초과되었더라도 엄격한 심사에 의해 기초적인 수학 능력이 있거나 재가시 수행이력이 축적된 사람, 그리고 종단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은 다원종교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종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출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별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종단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불교 본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지자체 직접발주 재고해야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의 투명한 회계 처리 등의 이유를 들어 2003년부터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사업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불교문화재는 그 곁에서 항상 아끼고 보존 관리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찰의 소임자들 만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다. 더욱이 천년을 이어온 불교의 숨결이 한국의 불교 문화재를 만들어 왔고 오늘에도 그 독특한 숨결로 해서 문화재의 가치가 살아나며 계속 보존되게 마련이다. 당국은 마땅히 그 소임자들의 전문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후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불교문화재 보수를 지자체행정부와 전문보수업자에게 맡기겠다는 발상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묻고 싶다.

그동안 사찰직영방식의 문화재 보수사업은 그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게 평가돼 왔다. 이를 얼마간의 부작용을 이유로 전문성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자체의 감독과 일반기능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문제를 오히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며 불교계에 또 하나의 규제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지금까지 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불교문화재가 왜곡 훼손되며 사라진 예가 적지 않다. 문화정책 당국은 불교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루속히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침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

불교계에서도 문화재 보수에 대한 자체 감독 장치를 강화해 다시는 이같은 어리석은 정책 입안의 근거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등서 현실무시 문화재 일방적 보수

성보 보존·관리 큰 문제 따를것"

본말사스님들 "무책임 시공" 정면거부

조계종문화부 워크숍 통해 의견조율

그림 같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북의 전통사찰 M사. 이 절에 가면 경내 한가운데 사격에 맞지 않는 화장실 하나가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다. 몇 년 전 해당 지자체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간이화장실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 과연 해당사찰 스님이 화장실 공사를 주도했다면 마당 한가운데 전통 사격과 어울리지도 않는 화장실을 만들었을까.

문화재청이 2003년부터 문화재 보수국고보조사업 추진주체를 자자체등 관리관청에 의한 발주로 전환하겠다고 문화재 소유사찰에 통보해,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성보문화재 보수사업의 경우 50%(70여건) 가량만 사찰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태다.

조계종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12일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문화재보수 국가보조사업 추진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정부당국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강행할 시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스님들은 또 "불교문화재에 대한 생생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을 운운하며 비전문가들로 대부분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만으로 문화재를 지키고 보수하겠다는 발상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문화재청과 문제가 된 일부사찰 현장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이후 워크숍 개최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잡고 있다.

문화재청의 지자체발주 추진 결정은 문화재 보수금과 관련 국고에 의존한 문화재 주변정비에 대한 비판여론, 사찰에 대한 불신, 범어사 등 일부 사찰의 문화재 보수 정비자금 유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스님들을 배제하겠다는 것. 하지만 문화재청의 이 안은 문화재생산주체이며 보존관리를 도맡아온 스님들의 그동안 공로를 인정치 않는 것이어서 교계의 수용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문화재 보수는 50%정도가 사찰의 발주 방식과 직영으로 행해졌다. 사찰직영방식은 사업의 효율성이 높고 만족도가 높은 것이 사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발주공사를 한다면 사찰의 의지와 관계없는 보수사업 실시, 시행업체 관리통제 불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자칫 지자체와 불교계의 혼란과 반목이 예상된다.

조계종 성보관리위원회 이기선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청의 방침이 추진되면 앞으로 불교계에서 성보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따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종단차원의 국가 보수금 우선순위 지정, 사찰공사 감독관 파견, 깨끗한 회계처리를 위한 교계의 시스템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청담스님 탄신100돌…내달 각종행사

도선사(주지 혜자)는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고 청담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재평가 하기 위해 10월부터 두 차례의 학술세미나를 비롯한 추모법회 및 산사음악회, 논총 및 문집 간행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청담스님(1902~1971)은 두 차례씩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을 역임하고, 66년에는 통합종단 제2대 종정을 지냈으며, 47년 봉암사 결사와 54년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하는 등 근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논총 · 문집 발간, 세미나 · 음악회 개최

10월10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1차 학술세미나는 '청담대종사이 불교사상과 불교교단 정화운동'을 주제로 성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목정배 교수(전 동국대 교수) 등 6명이 주제발제에 나선다. 10월12일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에서 열리는 2차 학술세미나에서는 '청담대종사의 선사상 및 수행과 교화행'을 주제로 법산스님(동국대) 이진오 교수(부산대) 등이 주제발제를 한다.

이에 앞서 도선사는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될 15편의 논문을 수록한 '청담 대종사와 현대 한국불교의 전개' 제목의 논총을 5일 발간한다. 또 모두 11권으로 구성되는 청담스님 문집 가운데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신심명강의 및 선입문〉 〈자문록〉 등 6권도 10월초에 완간한다.

10월15일 오전 11시에는 도선사에서 청담대종사 탄신 추모기념법회를 봉행하며, 이날 추모법회에서는 논총 및 문집 봉정식 및 청담스님 유물을 전시해놓은 상설전시관 개관식도 함께 거행된다.

이와 함께 도선사는 10월20일 오후 6시부터 도선사 경내에서 불자음악인과 연예인을 초청해 국악과 가요,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축제형식의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2)993-3161

한명우 기자

대정부정책개발위 구성

조계종, 대통령 후보 공약 등 분석

조계종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가 지향해야 할 불교정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정책개발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정부정책개발연구위는 △구고지원 요청서 작성 △불교관련 법개정 △정부의 주요정책과 대안 △대정부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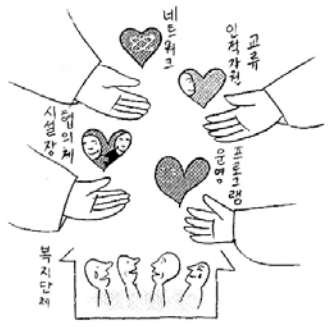
또 산하에 대정부 정책개발 실무팀을 두고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 분석, 정보수집, 정책개발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개발위 위원장 종훈(조계종 기획실장)스님은 "각당 후보자의 공약반영, 향후 대정부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범불교적 종합대책 필요합니다

23기 행자교육 16일 회향

사미(니) 189명 배출

지난 8월25일부터 시작된 조계종 제23기 행자교육원이 16일 회향 189명의 사미(니)를 배출했다.

15일 5급 승가고시를 치른 뒤 16일 거행된 행자교육원 회향식 및 수계식에서는 남행자 104명 여행자 85명이 사미(니)계를 수계했다. 이번 행자교육원에는 남행자 111명 여행자 88명이 입교해, 이 가운데 남행자 7명, 여행자 3명이 탈락했으며, 22기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여행자 2명이 23기 행자교육원 이수생들과 함께 사미니계를 받았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종교단체 납골당 운영사업을 사업자와 함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할 수 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1. 장묘 문화의 새바람으로 납골당 건립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에 대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8백억원을 들여 경기도에 40만평을 조성하고 있고, LG는 서울에 15만평을 조성 계획중입니다.

2. 종교단체 반야암 납골당은 육.공로의 교통이 편리한 김해 "가야랜드 유원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미 200만평의 전국적인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내에는 골프장 어린이 놀이터 호수 산림욕장 운동장등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3. 납골당 규모는 부지 4,440㎡ 지상에 현재 건축된 건물건평은 99.60㎡에 불과하나 앞으로 허용된 건폐율에 의하면 건평1.322㎡ 를 건축할 수 있고 여기에 유골 1만위를 봉안할 수 있어 1위당 300만원씩 계산하면 약 300억원의 소득이 된다할 것입니다.

4. 반야암 부지 4,440㎡ 는 도지시가만 30억원이나 되는 전국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입니다.

5. 그리고 납골당 건물이 사찰 경내지 동편에 별 동으로 건립 되어 있기 때문에 타종교단체 신도의 납골시설 이용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카토릭 광주교구가 1만 4천위 규모의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위 종교단체 반야암 납골당 운영사업을 사업자와 함께 그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 하고저 하는 스님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삼방동 825-2번지 전화 055)337-0677 / 011)575-6998 반 야 암 운 영 회

군승지정문제 정대스님 발언

조계-진각종 첨예 대립



◇진각종 전국청년회 회원 40여명이 16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정대스님의 발언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위덕대의 군승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진각종 비하 발언에 대해 진각종이 강경대응방침을 밝히고 나서면서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조계종은 위덕대의 군승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진각종은 어떻게 해서든 위덕대 지정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 정대스님 발언 배경

9일 조계종 임시종회에서 나온 "어떻게 머리 기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원불교만도 못한 종단이다" "진각종은 불교가 아니다" 등 정대스님의 진각종 비하 발언은 소위 '유발 종단'을 불교 종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날 발언 가운데 "진각종이 청정비구 앞에서 포교하는 꼴을 못보겠다" "조계종은 조계종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조계종은 조계종의 근본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교계 일각에서는 "다른 종단의 정체성을 따질 만큼 조계종이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가연대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계종이 정체성을 운운하며 위덕대 군승 지정을 반대한다면 은처승 문제 등을 명백히 해결한 뒤에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내용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조계종 입장

정대스님의 개인적 판단 외에 종회 차원에서도 위덕대 군승 지정에 대한 반대기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9일 조계종 임시종회에서는 "부족한 군법사는 군승요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군승 실무부서인 조계종 포교원도 지난 7월말 진각종이 서면으로 요청한 위덕대 군승 지정 협조건에 대해 "협조 요청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12일 보냈다.

조계종은 부족한 군승후보생을 조계종 승적을 가진 일반 대학 졸업자도 지원 가능한 군승요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군승장교 정원미달 8년째 계속
기독교 절반에 못미치는 120여명
"위덕대도 지정해야" 여론 높아

◑ 진각종 입장

진각종은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풀되,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덕대 군승 지정 추진 방식에는 다소 변화를 주고 있다. 종전의 종단차원에서 위덕대 차원으로 업무추진 영역을 전환하고, 위덕대 기획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종단 간의 마찰로 비쳐질 수 있다는 내부의 견을 수렴한 것이다. 진각종은 정대스님의 발언 파장과 위덕대 군승 지정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대스님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도 개인 차원의 돌출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문제해결의 걸림돌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군승 수급 현황

현재 불교계에서는 위덕대를 군승사관 후보생 선발대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수적으로 부족한 군승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돼야 하며, 그래야만 군 포교 발전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군승은 모두 120여명으로 개신교 290여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군승 1년 수급인원을 18명으로 책정해놓고 있으나, 불교계에서 배출되는 군승은 한 해 12~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같은 신임 군법사 정원 미달 사태는 95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새로 임관한 58명의 군종장교 가운데 불교는 11명에 불과한 반면 가톨릭은 17명, 개신교는 30명이나 됐다.

이같은 상황은 군종장교 지원자격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졸업생에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덕대 등 불교종립학교에 지원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전망

정대스님 발언파문으로 두 종단 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조계종 스님들도 위덕대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진각종도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자세여서 정대스님 발언 파문이 이른 시일 내 가라앉을 경우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복지시설들 정부지원 큰 기대

불교계 31개 시설 양성화 신고 배경

보건복지부가 15일 조건부 신고제를 마감한 결과 불교계 미신고 복지시설의 경우 36곳 가운데 31곳이 신고해 86.1%라는 높은 신청율을 보였다. 정부의 양성화 유도정책에 대한 이들 시설의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이들 미신고시설 대부분은 수용자의 인적 사항 등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데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부족, 대형 안전사고, 인권 유린 등의 문제까지 안고 있어 양성화를 꺼려왔다. 여기에다가 까다로운 신고시설 조건, 행정기관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아예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속출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회의(회장 지거 조계종 사회국장)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고, 연내에 공동협의 창구를 개설해 미신고 시설 양성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문제, 시설종사자 자격기준, 운영비지원 확대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지만, 실효를 점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양성화 신고 31곳 시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은 예산문제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시설당 개 보수 비용 3천만원과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기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 또한 막대한 예산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이들 시설장들은 '마지못해 신청했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다' 등의 볼멘 소리를 내뱉으며 별다른 계획조차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신고하지 않은 시설들의 문제다. 10인 이하의 소규모인 이들 시설들은 그린벨트 안에서 설치된 비닐하우스나 가건물에 의지하고 있는데다가 영세한 재정상태로 기존 시설 유지조차 벅찬 상황이다보니 아예 양성화 신청을 포기한 것.

이에 따라 불교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시설운영 주체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신고전환시설 시설장 협의체 구성과 종교계 사회복지 연대모색 등을 통해 신고전환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대정부 건의 기능을 한다든가 이들 시설의 애로점을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건비 및 생계비 지원 △시설의 증개축 지원 △종사자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일반적인 입소기준 현실화 △소규모 시설 중심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당제도의 강화 등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영세 미신고시설도 대책수립 시급
협의체 구성 등 불교계 연대 필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15일까지 신고된 불교계 복지시설(31곳)

시설명	인원	시설유형	시설명	인원	시설유형
부루나 양로원	6	노인	쌍임사	10	아동 노인
자제정사	70	노인	신재동자원	54	아동.청소년
옥련의 집	10	노인	호신마을	8	장애인
쌍봉 양로원	2	노인	부처님 마을	11	장애인.신생아
더불어사는 집	13	치매 중풍	여성쉼터 연화의 집	0	여성
호심원 은빛마을	10	노인	불로사	20	노인
거북마을	4	노인	청련암	30	아동
보리수마을	31	아동.청소년	소쩍새마을	215	장애인
호암사	20	아동.청소년	굴암사	8	아동.청소년
보광정사	16	아동.청소년	진여원	8	노인
지월원	5	아동.청소년	목향원	7	정신지체
송덕사	15	아동.청소년	송덕사	16	아동
등지 청소년의 집	56	아동.청소년	수덕의 집	10	노인
해뜨는 집	17	아동.청소년	본향원	20	노인.아동
자비원	15	노인	행복한 집	5	소년소녀가장
정토마을 안락원	20	정신지체			

◆몰교계 미신고 복지시설(5곳)

시설명	인원	시설유형	시설명	인원	시설유형
봉로원	2	노인	정화시	2	노인 아동
봉국사	4	노인	대정사	4	아동
석림사	2	아동			

"북한산 터널공사시 붕괴 위험"

국회 건설교통·문광위 국감질의 지상중계

16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관통토로 건설문제가 불거졌다. 또 같은 날 열린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관광부 감사에서도 달라이라마 방한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의 북한산 관통도로, 달라이라마 방한관련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의원)는 16일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관통터널공사 시 붕괴와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승국의원은 "북한산 터널의 토피고(최상층부에서 지표까지 높이)가 16.9m밖에 안되는 지점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해봉의원은 "에덴건설의 전 사주 윤모씨는 이용호 게이트 연류 의혹을 받았던 정학모 LG스포츠단 단장과 친분이 있다"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공사인 LG건설이 에덴건설과 정원종합건설에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LG건설 하도급 수의계약 의혹 제시
달라이 라마 방한 사회적 합의 중요

한나라당 서상섭, 안경률 의원도 "한국도로공사가 노선조사위원회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면 건교부의 참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12월 31일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방한 문제에 대해 "불교계와 사회각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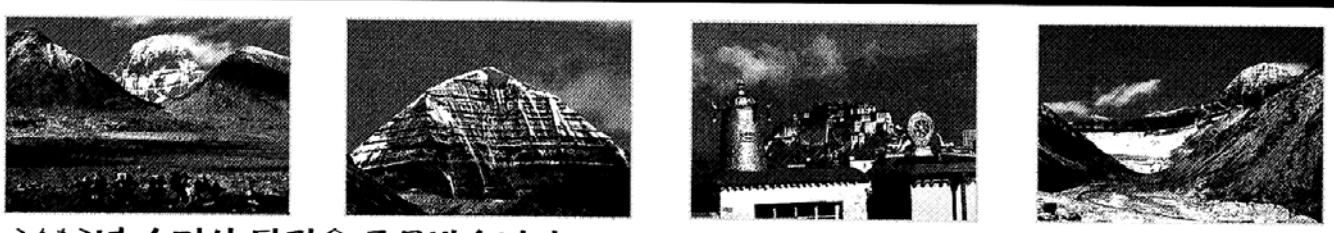
문화관광부는 16일 민주당 정범구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감 답변자료에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 문제는 그가 불교 승려인 동시에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반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감안, 종교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관계 등을 포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원우·강유신 기자 wwkim@buddhapi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봐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쉽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봐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봐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2003년은 수미산 달력으로 선택하십시오


2003년 수미산 달력을 주문받습니다.
이번 달력은 부처님의 세계로 불리우는 수미산을 실었습니다.
경전상의 수미산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산으로 우주의 중심이다.
그 둘레에는 일곱 겹의 황금산들과 일곱 겹의 바다가 에워싸고 있으며
그 바깥에 우리의 우주가 놓여 있다.
이와같은 수미산설의 모델이 되는 산이 티베트의 성산인 수미산이다.
해발 6714미터의 수미산은 범상치 않은 모양새와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기운 때문에 이 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한다.
수미산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야 하는 그런 산이다.
티베트인에게 수미산은 성산으로 부처님의 세계로 불리운다.
티베트 문화대제전 등 몇차례 출품한 작품들을 모아 달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달력으로 신비로운 수미산을 만나보십시오.
◆ 달력주문처 : 실크로드기획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443-1 (대구) 053-633-3611
(주)실크로드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TEL:(02)720-9600 / FAX:(02)734-9937
■성지 순례 안내■
●인도 성지 순례 9일
◆출발 : 11월 7일, 21일
●스리랑카 순례 6일
●미얀마 순례 6일
●캄보디아 베트남 6일
●인도네시아 순례 6일
●중국 구화산 황산 5일
●보타산 항주 순례 5일
- 관세음보살 도량 보타산항주 상해
10월 12일 출발
특별한 여행! 티베트 수미산 순례 : 신비로운 기운과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일정 - 21일간 (수미산 순례단 출발은 2003년 6월 1일, 8월29일 년2회 모집)

일주문



교통안전 가두캠페인

지성 동화사 주지는 28일 대구 국채보상공원 등에서 교통사고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조동종 종도 수련회

심월 조동종 총무원장은 10월 1~3일 서울 용천사 보리원에서 종도 소양교육 · 포교 성공사례 발표회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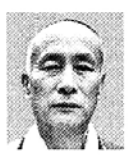
수해현장 생필품 전달

효성 서울 용암사 주지는 17일 강원도 하조대 수재현장을 방문, 1백 50여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장애인 50가구 백미 전달

원혜 강북장애인복지관장은 17일 복지관 강당에서 장애인 50가구에 각각 백미 20kg씩 전달했다.



제37대 주지 취임식

인공 서울 봉원사 주지는 30일 오전 11시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제37대 주지 취임식을 봉행한다.



어린이 도서관 개관

각우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관내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12일 개관식을 거행했다.



일본사찰 순례차 향일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은 25~28일 청취자 50여명과 일본 야끼다현 금색대관음사 등으로 사찰 순례를 떠난다.



불교평론 대표 취임

강정기 前 불교텔레비전 사업국장은 최근 불교전문시사계간지 〈불교평론〉의 대표에 취임했다.

인 사

재무부장 문덕스님
사서실장 도재스님
천태종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9일자로 사서실장 문덕 스님(사진 왼쪽)을 재무부장으로, 재무부장 도재 스님(오른쪽)을 사서실장으로 전보발령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

개교 20주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이하우 학장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달려온 20년, 성년의 기쁨에 앞서 성숙의 원년이 되게 하겠다는 각오로 늘 새롭게 다가가는 교육기관이 될 것입니다."

9월 20일로 개교 20주년을 맞은 부산불교교육대학 이하우(사진) 학장은 20년을 맞은 기쁨보다는 신도전문교육기관의 맏형 노릇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선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개교 이래 포교사과정, 경전연구과정 등을 통해 총 3천 5백명의 수료생과 전국 최다 포교사를 배출한 불교 교육기관의 명문이다. 그만큼 20년 성년을 맞으며 보다 성숙되고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정립을 위한 고심이 깊다.

이하장은 "불교대학원대학을 열어 불교학과 사회복지학 관련 전문 석박사를 양성, 불교학 발전을 꾀하겠다"는 장기 계획과 함께 "교육부의 학점은행제에 발맞춰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 신도들의 평생 수행과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불교대 개설 · 교과 세분화

20주년 기념으로 10월 21~26일 지리산 달마선원의 범주스님 초청 달마도 선서화전을 열고 내년 2월에는 '신도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20일에는 동문 7백여명이 동참하는 한마당운동회를 개최해 동문들의 화합을 다지게 된다.

"교와 선이 병행된 교육으로 생활속의 구체적 실천방안은 물론, 그 실천의 논리적 근거까지 확고하게 뒷받침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이하우 학장은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 인터넷 불교대학 개설, 교육과정 세분화 등을 통해 불교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내년 깐느 · 베니스영화제 출품"

영화 '동승' 총사령탑 주경중 감독



"영화 '동승'의 작품성은 아직 개봉전임에도 이미 해외의 수많은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국내외 영화 전문가들에 의해 호평 받고 있습니다. 5년간 성심 성의껏 준비해온 작품인 만큼 불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한 동자승이 어머니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동승'의 사령탑 주경중(사진) 감독의 각오다.

특히 내년 3월 개봉할 영화 '동승'은 지난 6월 제6회 상하이 국제 영화제 '최우수각본상' 수상을 시작으로 몬트리올 국제 영화제 '월드시네마' 부문 초청(8월), 버스터 코퀜하겐 국제 영화제 경쟁부문(9월), 제26회 카이로 국제 영화제(10월), 제26회 상파울로 국제영화제 경쟁부문(10월), 제22회 하와이 국제 영화제 경쟁부문(11월), 제38회 시카고 국제영화제(10월), 이탈리아 토리노, 그리스 데살로니카 국제 영화제 등 10여개의 유수 국제 영화제에 초청돼 올해 최대 국제 영화제 초청작으로 꼽혀 화제다.

주감독은 "불교영화하면 무겁고 딱딱하다는 느낌을 관객들에게 주었던것이 사실"이라며 "'동승'은 재미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 개최되는 깐느영화제와 베니스영화제 등 국제 영화제에 '동승'을 출품해 외국작품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대구 경북 군법당 포교사 지원"

신임 대구경북포교사단 권대자 단장



"포교가 곧 수행이며 수행이 곧 포교라는 포교사 정신으로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1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으로부터 여성으로는 교계최초로 대구경북포교사단장에 임명된 권대자 보살(60 · 사진)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포교일선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포교사 여러분들이 있기에 마음 든든하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올해 군포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권단장은 특히 "대구 경북의 군법당 중 법사가 상주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는 포교사를 파견, 기본적인 불교예법 및 교리강좌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전법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교사전문아카데미를 마련해 전문 포교사 인력양성에도 힘쓰겠다"는 권단장은 "포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규불교대학에서 2년 과정을 수료하고 매년 실시되는 포교사 고시에 응시하면 된다"며 현재 전문포교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포교와 전법수행에 관심있는 대구경북지역 불교신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대구= 박원구 기자



23사단 58연대 호국비룡사 개원

육군 23사단 58연대 군법당인 호국비룡사 개원법회가 15일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정의환 스님(강릉 구월사), 김갑영 군법사, 김태영 사단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1억2천여만원을 들여 45평 규모의 호국비룡사는 58연대, 포병연대, 102여단 전차중대 등 군불자들의 신행공간으로 활용된다.



포항 도선사 대웅전 낙성법회

포항 운주산 도선사(주지 운산)는 13일 대웅전 점안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총화종 종정 동광스님, 총무원장 남정스님을 비롯 1천 5백여명이 참가한 행사에서는 자매사찰인 일본 금봉산 정봉원의 주지 요시다 세이호 스님을 초청, 소원을 적은 나무를 불에 태우는 이색적인 호마의식도 가졌다.



불교동백회 첫 정기법회

부산여고 재경 불자 동문회 불교동백회(회장 조영수) 제1회 정기법회가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렸다. 지도법사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은 "함께 부처님 나라를 장엄해 가는 서원을 세웠으면 하다"고 말했다. 불교동백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법회와 성지순례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생명나눔회 장병학 씨에 치료비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13일 서울 사무실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장병학 씨(46) 부인 문영선 씨에게 치료비 4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문씨는 "불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법장스님(오른쪽)이 문 씨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있는 장면.



평불협 유제품 기증받아 北 유아에

매일유업이 평불협에 지원하는 시가 4천만원 상당의 유제품 맘마밀 190상자에 대한 기증식이 13일 평불협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매일유업 양광식 마케팅본부장으로부터 기증서를 받은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은 "앞으로는 국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받은 분유는 영양부족으로 고통받는 북한 영아들에게 추석선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정스님 14일 입적



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 원로 고담당(古潭堂) 태정스님(사진)이 14일 오후 2시 30분 입적했다. 법랍 53년, 세수 66세.

1949년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스님은 1958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62년 합천 해인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수료한 후, 조계종 총무국장, 8대 중앙종회의원, 포교원 포교부장, 용암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영결식은 9월 16일 봉선사에서 엄수됐다.

봉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108참배 금강경 사경 및 큰스님 초청 7일 정진 대 법회 축

도심속의 포교전당
본 금하선원은 2001년 인도 가니스와르 고승으로 부터 부처님 사리 5과를 모셔왔습니다.
이제야 우리 불자님께옵서 2546년 전 부처님의 진신사리 친견 참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하선원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108참배와 금강경 사경 및 큰스님 초청 7일 정진 대 법회 1000일 기도 입제를 봉행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정 표
2002년 10월 14일(월) - 10월 20일(일)
오전(10:00) 사시기도 (11:00) 큰스님 법어(11:40) 백팔 참배 및 진신사리 친견 (12:30) 점심공양 (14:00) 금강경 사경 (15:00) 회향

금강경 사경 불탑 봉안

- 금강경 사경 완성 후 불탑에 봉안 됩니다.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본 사찰로 전화주시면, 금강경 사경을 댁으로 우송, 사경 완성 후 본 사찰로 보내 주시면 불탑에 봉안해 드립니다.
- 성지 순례차 오시는 주지 스님과 신도분들은 미리 전화주시면 점심공양을 준비해 드립니다.

법회 집행 위원회

- 회 주 : 일륜 ◈ 주 지 : 청암
- 집행 위원장 : 신도회장 ◈ 집행 부원장 : 거사림 회장, 신도 부회장
- 위 원 : 금하선원 신도회, 거사림회, 불교 교양대학 1기~17기생
- 사 무 장 : 덕광 ◈ 재 무 : 여래심
- 포 교 임 원 : 금하선원 신도 회장단, 거사림 회장단, 불교 교양대학 : 1기~17기 총무단

● 일 시 : 2002년 10월 14일 오전(10:30) ● 음 력 : 9월 9일.
● 장 소 : 금하선원 법당 ● 접수기간 : 2002년 9월 25일~ 10월 13일
● 사경법회 동참비: 5만원(금강경 사경책 3권 포함)

대한불교 조계종 금하선원
전화 02)623-9135~6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7호선 장승백이역 4 · 5번 출구 1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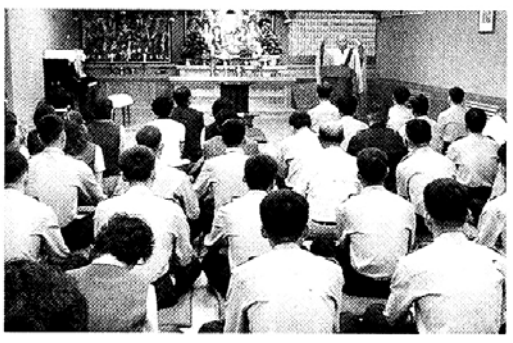
유성구청 불자회 첫 자체법회

대전 유성구청 불자회(회장 김종목)는 14일 대전 구암사에서 5월 창립 이후 첫 자체법회를 가졌다. 대전지역 공무원불자들과 연합법회를 열어 온 유성구청 불자회는 이날 법회를 계기로 10월부터 월 한차례씩 관내 사찰에서 법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법회에는 회원 및 가족 50여명이 동참했다.



경불회 지형스님 초청법회

경찰청불교회(회장 박재진)는 12일 경찰청 법당에서 선서화(禪書畵)로 유명한 지형스님(서울 소림정사 원장) 초청법회를 가졌다. 성낙승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회원과 직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지형스님은 '도와 현대인의 삶이란' 주제의 선문답식 설법으로 참가자들의 웃음과 박수를 이끌어 냈다.



광주불교산악회 속리산 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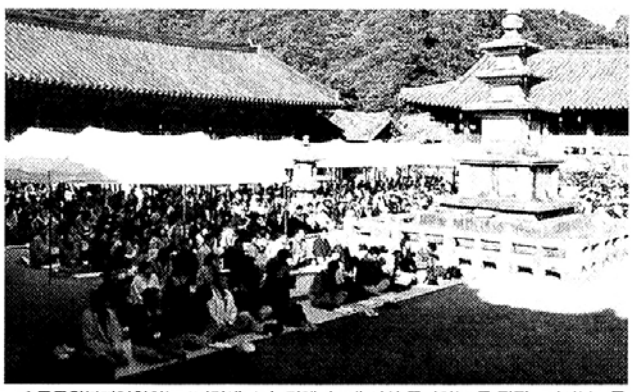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는 8일 속리산과 법주사로 산행을 다녀왔다. 회원 및 가족 60여명이 동참한 이날 산행은 보현재와 세심정, 문장대를 거쳐 법주사 금동대불과 팔상전 참배로 진행됐다. 한편 광주불교산악회는 29일 진도 첨찰산 쌍계사로 순례를 떠난다. 상록숲길과 봉화대를 따라 첨찰산도 산행한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2돌

직장직능 · 거사불교 주도



◇공무원불자연합회는 2년만에 소속 단체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직장 · 거사불교를 주도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사진은 2001년 10월 해인사에서 열린 창립1주년 기념법회.

28~29일 통도사서 기념법회…활성화 모색

180여 단체 가입…2년새 4배나 증가

연합활동 강화 · 교육체계 마련등 과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 이하 공불련)가 창립 2년만에 지회와 회원이 4배 이상 증가, 직장불교는 물론 거사불교 활동을 이끌어 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있다.

2000년 10월, 47개 공무원 불자회로 출발한 공불련은 중앙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 시 · 군 단위 불자회 창립이 이어져 2년새 180여 단체를 거느리는 연합체로 성장했다. 창립되어 있으면서도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제주시청 불자회 등이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고 광주광역시청, 서울 강서구청 등이 창립을 눈앞에 두고 있어, 공불련 소속 단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불련은 전체 직장직능 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방대한 규모와 인원으로 직장불교를 주도하고 있다. 법회와 성지순례, 수련회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경전강독, 기도법회, 봉사활동, 이웃돕기 등으로 활동이 다양해졌다. 지역사찰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 지역사회 발전과 불교 권익 옹호에도 힘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회원 교육체계 마련, 지역별 · 권역별 · 업무별 연대활동 강화, 지도법사단 구성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세무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등 별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자들을 공불련으로 통합하는 문제와 미창립 기관의 불자회 결성 등도 과제로 남아 있다.

공불련은 28~29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리는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계기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의 활성화 모색에 나선다. 거대한 규모의 공불련의 운영에 관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명실공히 공무원불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것. 소속 공무원불자들의 결속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번 창립 2주년 기념법회는 사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산사음악회 등 전야제 행사를 시작으로 철야정진, 기념법회, 지역회 회장단 모임, 정기총회, 영축산 산행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기총회에서는 2년의 임기를 마친 노옥섭 현 회장을 이을 신임회장 선출이 예정돼 있어 향후 공불련 운영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홍부 사무국장(감사원)은 "창립 이후 2년동안 지역불자회 창립 등 외적인 성장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회원 개개인의 신행, 사회적인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며 "단체별 교리 모임을 지역별 교리강좌로 확대하고 중국동포돕기에 나서는 등 회원들의 신행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기초교리 · 찬불가 배우기 주력"

세무사 불자회 이선희 신임회장



"현재는 법회가 큰스님을 초청해 듣는 법문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탈피하여 기초교리 강좌와 찬불가 배우기 시간 등을 가져 회원들이 기초부터 착실히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한국세무사불자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선희 세무사(66 · 사진)는 "회장 등 임원진의 독선적인 운영이 화합을 깨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면서, 회원 중심의 불자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에만 구성되어 있는 세무사불자회를 전국단위로 확대, 지역의 세무사불자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5,100여명의 세무사 중에는 불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역 세무사모임 결성 추진

봉은사에서 열리고 있는 정기법회 장소를 조계사로 이전하는 문제도 고려중이다. 이 회장은 "위치나 대표성을 보더라도 한국불교 1번지로 불리는 조계사가 적합하다"며 "회원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공석상태인 지도법사를 모실 예정이다. 안정적인 법회 진행과 체계적인 회원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이다.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책임지고 지도할 법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 확대에도 나선다. 이 회장은 정구정 전 회장의 원력으로 회원이 60여명으로 확대되기는 했으나, 96년 창립 당시 120여명에 달했던 인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 임원진이 구성 되는대로 회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회원이 아닌 세무사불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회장은 "봉사활동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회원들의 참여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선희 신임회장은 동산불교대학과 조계사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종 포교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 13시군불자회 결성 추진

도청불자회 1돌, 지역사암련과 협력강화

전남도청 불자회(회장 박재순)는 10월 2일 도청 회의실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관내 시 · 군 불자회 결성에 나선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순천 광양 해남 장흥 강진 무안 화순 등 7개 시 · 군청에 불자회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목포 영광 담양 등 3개 지역은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나주 영암 곡성 등 13개 시 · 군에는 불자회가 없다. 전남도청 불자회는 미창립 지역의 불자회 창립을 위해 해당지역 사찰에서 전남지역 연합법회를 열어 공무원불자와 지역사찰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 사암연합회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대구지역 공무원불자들을 초청해 연합법회를 개최한 바 있는 전남도청 불자회는 타지역 공무원불자와의 교류 및 연합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월중 6차례에 걸쳐 회원들의 불교소양교육을 실시, 회원들의 자질을 높일 예정이다.

신입회원 기초교육 회향

한전 반야회, 26일 봉은사

한전본사 반야회(회장 이인규)는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5차례에 걸쳐 실시해 온 '기초교육'을 회향한다. 26일 열리는 회향식은 봉은사에서 예불 집전 실습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불자예절과 사찰 구조, 기본 교리, 불교의식 등 불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상식과 예절 중심으로 실시돼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가한 이명희 씨(송변전처 보호계전팀)는 "첫 법회에 참석했을때 아무 것도 몰라 참석하기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법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소비자보호원 법우회 성지순례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신동구)는 10월 5~6일 대구 동화사와 팔공산 갓바위를 순례한다. 동화사 새벽예불과 갓바위에서 108정진을 갖는 등 불교의식을 체험한다. 김종관 총무는 "초심자 회원들이 많아 불교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초발심을 닦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교사불자회 동학사서 법회

대전교사불자회(회장 여성구)는 28일 공주 동학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가을 성지순례 계획을 논의한다. 파라마타청소년협회 대전지부 주최로 10월 13일 열리는 익산 미륵사지 답사 참여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이날 동학사 주지 일초스님이 법문한다.

KBS불교硏 육조단경 강독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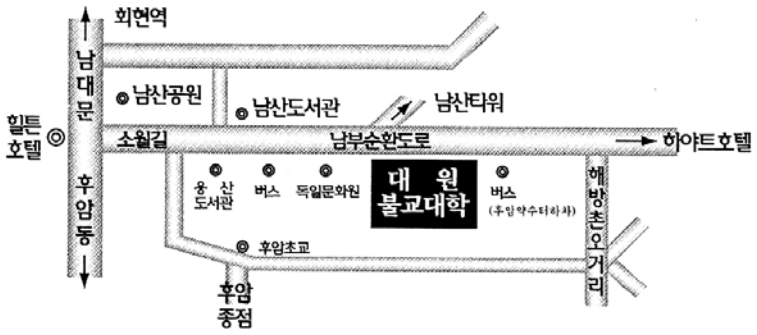
KBS 불교연구회(회장 정종철)는 28일 본관 제1회의실에서 육조단경 강독법회를 갖는다. 강사로는 조인오 법사가 나선다. 불교연구회는 격월제로 경전강독과 저명한 스님 초청법회를 열고 있다.

최봉수 교수의 범본 금강경 특강


최봉수 고수

한국불교의 소의 경전으로 불교 대중들이 널리 애독해 왔던 금강경!
지금 우리 불교는 그 금강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구마라즙과 현장 법사의 금강경 번역에 차이가 있고 산스크리트어 금강경과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데 ……
이제 최봉수 교수의 명쾌한 원전비평과 해석을 토대로 21세기의 사상적 대안인 금강경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시도합니다.
불기 2546년 10월 7일 대원불교대학에서 떨쳐지는 사자의 외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개 강 : 불기 2546년 10월 7일 오후 2시 매주 월요일
◈ 장 소 : 대원불교대학
◈ 수강문의 : 02)754-1613(통신 수강도 가능함 : 직장인 및 출강이 불가피 하신 분)
※ 본 특강은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중심으로 구마라즙과 현장의 한역본, 현대의 영역본 등을 비교하며 진행됩니다.



• 지하철 - 서울역(1,4호선), 회현역 하차(4호선)
• 버 스 - 83, 83-1, 79-1(후암 약수터 앞 하차), 32, 45(후암동 버스 종점 하차 도보 5분거리)

대원불교대학 홈페이지 www.idaewon.or.kr로 오세요
무료
최고의 불교학자들의 명강의를 생생하게 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과 목	담 당 교 수	교 수 약 력
중국불교사	장 휘 옥	부산대 화학과 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및 대학원 석사 졸업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 졸업, 현 금강대학 교수
원시불교	최 봉 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및 대학원 석 박사 졸업 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유마경 강독	허 경 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인도 베나레스 한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과 목	담 당 교 수	교 수 약 력
여래장 사상	김 사 업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및 대학원 석 박사 졸업 일본 국립경도대학교에서 인도철학연구, 현 금강대학 교수
현대불교윤리	김 종 욱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박사 졸업 불교TV 불교와 철학의 만남에서 특강
전통불교의식	마 일 운	스님, 불교 전통의식 범패 전수 교육자

homepage : www.idaewon.or.kr

⊙ 大圓佛敎大學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 754-1613, 773-9171, 776-7156 FAX : (02)756-7258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9월-불서 읽기의 달
- 매일 시간정해 책을
- 경전부터 읽자
- 선물은 불서로
- 절마다 도서관 만들자

절마다 도서관 만들자

신행공간·정보센터 기능 겸해

생활불교·지역주민 포교 큰 힘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장 청송심 보살(38)은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자마자 장충동에 있는 불광산사로 향한다. 대학시절 중국어를 전공한 장 보살에게 중국불서가 일반 도서관보다 비교적 많고 국내 불서까지 고루 갖춰진 불광산사 도서관은 하루의 여유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마춤인 곳이다. 벌써 세 달째 책읽기에 흠뻑 빠져 있는 장 보살은 "절에서 이렇게 좋은 책을 모아 도서관을 만들어 주어 너무 좋아요. 여기서 중국어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인근 지역 주민이 책을 읽기 위해 그 사찰을 방문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불자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찰 도서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정성들여 만든 도서관은 신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쉼터'와 '문화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또 사찰도서관에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서뿐만 아니라 각종 시사지나 월간지, 정보서적들을 함께 비치한다면 신행공간으로서의 역할 외에 지식정보센터의 기능까지 겸할 수 있다.

책을 읽지 않는다고 불자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 스님들이 동기를 부여해 주며 변화하면 자연히 신도들도 달라진다. 그러면 사찰의 모습뿐만 아니라 불교 전체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사찰 도서관이 문을 연지 10년이 넘은 서울 사천왕사는 벌써 7년째 매주 한차례씩 신도들 스스로 독서모임을 연다. 회원들이 함께 모여 일주일간 읽은 책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한다. 부처님에게 한층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법열의 기쁨도, 도반들끼리 이제는 각자 집안의 속내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워진 것도 도서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현재 도서관을 갖춘 사찰은 전국적으로 20곳이 채 안된다. 국내 사찰 수를 1만 3천여 개로 추산할 때 0.1%에 불과한 수치다.

이런점을 감안할때 절마다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 큰 규모가 아니라도 좋다. 예산이 없다면 여러 신도들의 창고 속에 잠자고 있는 도서를 보시받아 1평의 작은 공간에라도 도서관을 만들자. 사찰마다 도서관을 만든다면 일반 불자들은 다양한 불서를 손쉽게 읽게 되어 '불서 읽기 붐'도 조성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서울 잠실 불광사 도서관에서 한 불자가 책을 빌리고 있다.

신행 캘린더

9월 25일 (수)

■만현스님 초청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에서 춘천 현지사 만현스님을 초청, '불교와 자기구제' 주제의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만현스님을 통해 '계율 지키기와 올바른 수행법'에 대해 알아본다.(02)703-0108

■전국비구니회관 '한지공예'=전국비구니회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시 서울 수서동 회관으로 중앙승가대 법연스님을 초청, 한지공예를 배우는 시간을 준비했다.

직사각접시, 함지박, 삼각함, 휴지케이스, 폐물함 등 일상 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물건들을 직접 만들고 집안도 산뜻하게 꾸며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02)733-5467

9월 26일 (목)

■터사랑 '완산벌의 절집을 찾아'=터사랑은 호남 미륵신앙의 본거지인 김제 금산사와 완주 화암사를 찾아가는 성지순례를 마련했다.

깊어 가는 가을, 후백제 창건주 견훤대왕의 일화가 살아 있는 금산사와 하앙식 처마구조로 유명한 백제계 사찰 화암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삼 일깨울 것이다. 출발은 오전 7시 서울 안국역. 참가비는 성인 3만 8천원(02)725-1284

9월 27일 (금)

■창무극 '삼생인연'=잊혀져 가는 전통연희인 재담을 소재로 한 창무극 '삼생인연'이 27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진다.

경기민요 선소리 타령, 서도소리, 휘모리 잡가 등 수많은 한국 전통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극락왕생을 비는 회심곡, 이승과 저승 벽을 허무는 탑돌이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02)533-6834



◇지난2월 열린 100번째 통일대화마당.

■좋은벗들 '통일대화마당'=남북통일을 위한 1천일 정진기도를 진행 중인 좋은벗들의 통일강좌.

좋은벗들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순성 교수를 초청해 '남북 경제공동체의 미래,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주제의 강좌를 연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초동 정토회관. 11월 22일이 1천일 통일정진기도 회향식이다.(02)587-8996

■연화복지원 '위빠사나 선 수련'=한국 유일의 미얀마 사찰인 '미얀마 선원' 주지 산디마 스님이 지도하는 '위빠사나' 강좌.

산디마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에 관심많은 한국 불자들을 위해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전 11시 광림사 법당에서 참선 강좌를 진행 중이다. 참가비는 무료.(02)2202-5831

9월 29일 (일)

■청량사 '산사음악제'=천년의 소리, 천년의 울림.

봉화 청량산 청량사가 오후 7시 산사음악회 두 번째 마당을 펼친다. 타악기 연주팀 두드락, 북 연주가 '최소리와 자유인', 엄인호와 정경화의 신촌블루스의 연주, 성악가 정률스님의 독창 등 다양한 공연이 함께 할 예정. 사회는 국악인 오정해 씨.(054)672-1446

10월 2일 (수)

■국청회 '천수경 강좌'=국청회가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정각스님을 초청한 천수경 강좌를 마련했다.

'천수경 연구'의 저자인 정각스님을 통해 천수경 속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를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수송동 원당빌딩 3층 국청회 법당에서, 12월 2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02)730-1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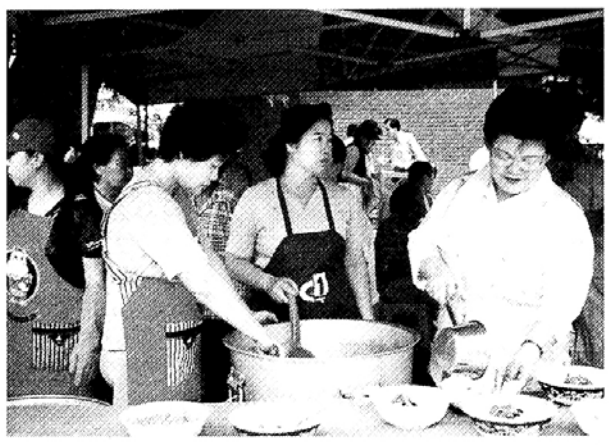
"국자 챙기세요" 대중공양 '베테랑'

우리 절 우리 신도

청주 광덕사 양숙자 신도회장

주말마다 군법당·교도소·복지관서 봉사

대소사 궂은일 도맡아… "큰언니 같은 존재"



◇9월6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열린 경로잔치 점심 공양을 준비하고 있는 양숙자 회장.(사진 맨 오른쪽)

'임진왜란 시 청주성 탈환 4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 6일 청주 중앙공원.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앙공원 한켠에서는 광덕사가 4년째 열고 있는 경로잔치 준비가 한창이다. 800인분의 국수를 삶고 떡과 음료수를 봉지에 나누어 담는 40여 명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부산하다.

"곧 행사가 끝나니까 얼른 국수 그릇 정리하고 국자 챙기세요. 총무님, 수저통 이쪽으로 좀 주세요."

공양 준비에 여념이 없는 광덕사 신도회 관음회 회장 양숙자 보살(법명 대련화 · 62). 양 회장은 대중공양 준비를 하는 데는 이제 '베테랑'이다. 광덕사가 매년 3차례 중앙공원에서 여는 팥죽공양, 국수공양, 경로잔치는 물론 복지관 공양과 군법당 및 청주교도소 재소자 교화를 위한 위문법회 공양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 회장이 광덕사 신도가 된 것은 4년 전이다. '광덕사 주지 스님이 포교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20여 년 동안 다니던 근처의 절 대신 이곳 광덕사에 다니기로 결심한 것이다.

"크고 유명한 절에 다닌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하지만 광덕사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주지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 모두 포교를 열심히 하는 사찰에서 함께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광덕사로 자리를 옮기고부터는 주말마다 군법당과 교도소, 복지관 등을 다니며 공양을 대접하는 일을 맡게 됐다.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설거지며 시장 보는 일, 심지어 사찰 안팎 청소까지 척척 해냈다. 대중공양이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고, 취사시설이 없는 곳에는 가스버너부터 밥그릇, 숟가락까지도 잊지 않고 챙겼다. 한 달에 한 번 사회복지관 공양을 나갈 때는 도시락 싸는 일도 잊지 않는다. 몸이 불편해 복지관에 나올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 20여개의 도시락을 싸 직접 집으로 가져다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공양을 준비하는 것은 이렇듯 몸도 고되지만, 금전적인 어려움도 많다. 절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아 부족분은 관음회 회원들이 행사 때 마다 십시일반 모은다.

지난해 초파일 행사가 끝나자 양 회장은 신도회장이라는 소임을 맡았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은 물론 가족처럼 지내는 신도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관음회 총무 진영옥 씨는 "주말마다 챙겨야 할 행사가 많아 힘들 때도 있지만 회장님은 언제나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큰언니 같은 존재"라고 칭찬한다. 하지만 양 회장은 손사래를 치며 "여기 있는 신도들 모두 어려운 형편에서도 서로 돕고 격려해주는 '진짜 보살'들이에요. 나야 뭐 회장이라는 직책만 맡았지, 신도들 모두 절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앞장서서 하려는 모습을 보면 나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라고 말한다.

혈압이 높아 요즘은 책 보기가 힘들다는 양 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곧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참불자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기념행사가 끝나고 국수 공양을 하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다. 국수를 건네고 떡과 음료수를 챙기는 틈틈이 '저기 모자 쓴 할아버지가 공양을 하셨는지, 파란 치마 입고 계신 할머니께 떡은 싸드렸는지'를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큰언니'다.

두 시간 동안의 공양이 끝나자 양 회장은 "남은 국수와 떡을 양로원에 가지고 가야 하니 이제 사진은 그만 찍으라"며 국수사리가 담긴 통을 들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청주=여수령 기자

추천의 말

일봉스님 광덕사 주지



관음회장 양숙자 보살은 우리 절에서 마련하는 경로잔치와 복지관 급식을 비롯하여 군법당 및 청주교도소 재소자 교화를 위한 위문법회에 남다른 신심과 원력으로 참여하시는 자비보살입니다.

박계하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지난 초파일부터 신도회인 관음회장을 맡은 후부터는 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공양을 위해 시장을 보고 음식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흔쾌하게 사찰 안팎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또한 부회장과 총무를 비롯한 30여명의 임원들을 가족처럼 잘 보살피며 지냅니다.

양 회장은 앞으로도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등에 끊임없이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 그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랑으로 보듬는 마음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부산지사
051-632-0064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충북지사
043-258-3282 / 011-459-3282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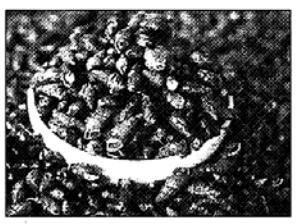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7시~일요일 아침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무릎,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조계사앞 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요

고차원치유에너지 활용법 전수! 이제 전세계 비만인의 고민은 사라진다!!

비만완전탈출!! 지도자모집

세계최초 부산에서 전격 지도자 양성.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 약이나 氣등의 도움이 없다.

대 상
◆ 가족의 난치병 간호에 고통을 겪고 계신분
◆ 해외이민 희망자
◆ 先見之明의 지혜를 가지신 남 · 녀
◆ 인기폭팔 비만 및 피부미용 샵 운영 예정자

교육과정
◆ 비만 및 난치병 조정법 6일간의 속효 조정법으로 최고의 고등본능 방법술 전수
◆ 십이종 지능과 십이종 의식 구조학의 고난도 핵융합방법 전수
◆ 부작용이나 요요현상이 없다

본학문을 전수받고 난후 당신은 아래와 같은 능력자가 된다!
1. 배운대로 하면된다 (살찌게 하는 DNA를 교정, 마르게 하는 DNA를 교정)
2. 피부가 더욱 아름다워진다
3. 상대를 하루 1~2시간 6일을 조정해주면 된다
4. 6일 이후 부터 비만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자기본래의 표준골격을 되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체지방을 몸밖으로 자동배출 하게 된다. 부분비만은 물론 제아무리 거구의 비만인이라하더라도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입게 된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놀랍다! 과연신기하다! 라고들 하나 믿기 어려운 기적같은 현실임)
5. 감기도 암도 같은 맥락에서 원상회복된다
6. 난치의 비정상 세포를 몸밖으로 배출시키고 복원시키는 비전의 학문을 전수받으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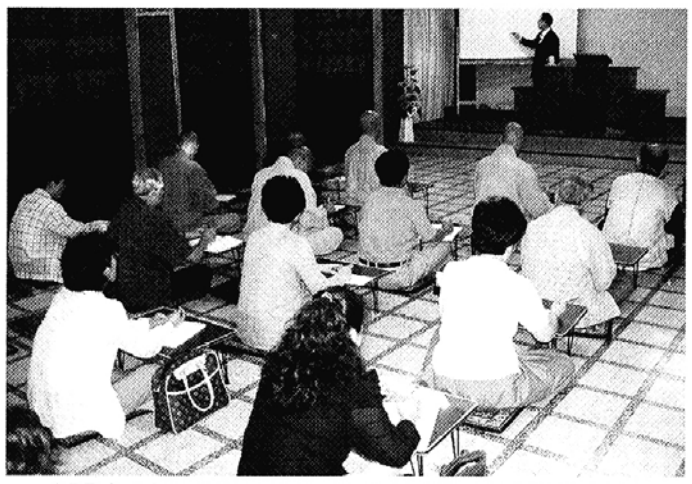
※ 종교와는 무관하며 이법을 세상에 보급할 때가 되었으므로 지도자를 양성하며 인연닿는분 필히배워두시길 배워두면 성공한다!

문의처 부산시 진구 전포2동 608-1
051) 805-3568~9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硏究學會

불교대학을 찾아서

⑬ 강원불교대학



◇동국대 불교학과 조용길 교수(도서관장)로부터 원시불교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94년 첫해 360명 수강…강원도 불교바람
교훈 信·解·行·證-월1회 實修 배움 체화
내년 대학원·홈페이지 개설 제2도약 계획

1994년 호반의 도시 춘천에 강원불교대학이 개교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배움에 목말랐던 사람들 모두 강원불교대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불교학·사회복지·일반교양강좌·불교의식 등 4강좌에 주간, 야간, 통신반 등을 합해 개교 첫 해에만 360여명의 학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다.

이처럼 춘천에 불교 교육 바람이 인 것에는 뛰어난 강사진과 아낌없는 투자도 한 몫을 했다. 강원불교대학이 태고종 소속 석왕사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불법 전파에는 종단 구분이나 승속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교육에서 나온 이익금은 교육으로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는 학장 백운 스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성타 스님(불국사 회주),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박운곡 스님(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심만춘 스님(태고종립대학 동방불교대 부학장) 정병조·권기종 동국대 교수 등이 이 대학에서 강의했다.

1기부터 5기까지 강원불교대에서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로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50여명, 강원대·한림대 등 대학교수 7명, 시장·군수 3명 등. 나름대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체면 따위는 벗어던지고 강원불교대로 찾아들었다. 지금까지 배출한 졸업생만 해도 3200여명. 특히 춘천시에 사는 불자들은 대부분 강원불교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원불교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재적 사찰이나 직장으로 돌아가 각 단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배움의 회향은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해야 포교활동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배움의 뿌리를 잊지는 않는다. 졸업생들은 총동창회를 만들어 1년에 한번씩 정기법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동문들의 우의도 다지고 강원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계획도 마련한다.

또한 총동창회를 홍천·원주·강릉·동해 등으로 지역을 구분, 분기별로 사찰순례를 하며 신심을 다진다.

현재 강원불교대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7시에 강의를 연다. 신·해·행·증(信·解·行·證) 즉 올바른 믿음(信)으로 올바르게 이해(解)하고, 믿고 이해한 것을 바르게 실천(行)한 다음, 이해와 실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는다(證)는 교훈으로 주간과 야간, 통신으로 교육을 한다. 또한 매달 1박 2일은 신행실수 시간을 가져 배움을 체화시킨다.

강원불교대는 내년부터 승가 교육기관인 삼장불학원에 재가자들을 위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경전 강독을 중심으로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홈페이지를 내년에 개통, 사이버 포교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학장 백운 스님은 "대학원 과정 개설과 홈페이지 개통으로 분위기를 일신한 후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033)251-5040 춘천=남동우 기자

늦바람공부 4년째 "전법포교에 주력"
13기 학생회장 전찬호씨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쉬움과 함께 알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13기 학생회장 전찬호(63, 법연)씨는 4년째 강원불교대학을 다닌다. 공무원 생활 정년퇴직 후 우연히 신문 광고를 보고 강원불교대학을 찾은 전씨는 교육 후, 태고종에서 발급하는 포교사 자격증도 취득할 정도로 열성 불자가 됐다.

전 학생회장은 "배움에 만족하지 않고 전법포교사로서 포교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자비신행회는 최근 광주시 동구 지원초등학교를 임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황토방, 경로 식당 등을 마련했다.

광주시내 폐교를 불우노인 쉼터로
자비신행회, 불교복지교육관으로 개조·개관

광주시내의 한 폐교가 불우노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광주지역에서 왕성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비신행회(회주 현장스님)는 최근 광주시 동구 옛 지원초등학교(지상2층)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임차해 개조공사를 마치고 14일 불교사회복지교육관 개관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새로 단장된 이 건물의 1층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한 식당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주부 회원들이 매일 도시락 115개를 정성껏 만들어 북구 오치복지관 등 불우노인 수용시설에 제공하고 있다.

식당 옆에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황토방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부항을 붙여주는 등 간단한 물리요법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전통무예인 수벽치기를 가르치기 위한 도장도 마련돼 노인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2층에는 노인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마음의 소리' 상담실, 법당, 강의실 등이 들어서 있다.

당초 '도시락 봉사'를 위해 지난 99년 7월 20여명으로 출범한 자비신행회는 현재 회원수가 30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신행을 펼치고 있다. 1년에 한 차례씩 호스피스 양성교육을 실시, 임종을 앞둔 환우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해왔다. 또한 청소년 장학사업과 전문불교상담교육에도 관심을 쏟았으며, 경전교실을 열어 왔다.

자비신행회는 그동안 해 온 사업의 연장선에서 9월 17일부터 12월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교육관에서 제1기 불교입문교육을, 9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제6기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호스피스 교육은 9월 27일 '죽음을 이해합시다'(현장스님), 10월 4일 '호스피스의 역사와 의미'(혜도 스님), 10월 11일 '불교의 생명관'(이중표 전남대 교수) 등 모두 14회 진행된다.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은 "불교사회복지교육관에 광주전남교사불자회 등 신행단체들이 입주하는 신행공간으로 가꾸는 한편, 임종간호(호스피스)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불교전문 호스피스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원력을 밝혔다. (062)234-2732

주용직 광주지사장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할머니를 엄마라 부르는 선명이

"셋방, 재개발로 곧 헐려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아 친할머니의 품에서 자란 아이. 타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하다 사망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아이. 아직까지 친할머니(김옥순, 71)를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 그런 선명이(10, 남양주 양정초등학교 2)의 집이 재개발 때문에 곧 이사를 가야 한다.

선명이가 사는 2층 단칸방에 들어가려면 먼저 주위의 물건들에 시선을 줘야한다. 조그만 문 앞뒤로 물건들이 뒤죽박죽 쌓여있어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은 뒤, 방안으로 들어가면 텔레비전 한대와 장롱 하나, 한쪽에 쌓아 놓은 짐들이 전부다.

"선명이 아버지가 우리 집 장남인데 다시 딸이 있는 논산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없는 살림에 피해를 줄까봐 그러지도 못했다.

할머니의 삶이 이렇게 헝클어져 버린 것에는 할아버지의 책임이 크다. 아들 셋과 딸 넷을 낳은 뒤 할머니가 40살이 되던 해, 주조공장에 다니던 할아버지는 소리소문도 없이 그만 집을 나가버렸다. 아직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없다.

아비 없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할머니는 죽을힘을 다해 살았다. 하지만 없는 형편에 교육은 사치였다. 그래서 아들 하나는 아직 막노동을 하고, 나머지 아들은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할머니 품에서 자라
아버지 교통사고로 사망…20만원으로 한달

젊을 때부터 막노동을 다녔어. 선명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도망가 버렸고, 선명이 아버지는 술만 먹다가 선명이 엄마 찾으러 다닌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지. 선명이는 내가 핏덩이 때부터 키웠어."



◇할머니와 선명이 뒤로 쌓여있는 이삿짐들. 사진=임민수 기자

그러나 선명이 아버지는 돈이나 엄마는커녕 강원도 철원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만 전해졸 뿐이었다. 사망 소식에 눈앞이 캄캄했다는 할머니는 '촌구석에 처박혀 사는 죄'로 장남이 어떻게 죽었는지,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가슴과 선산에 장남을 묻어야 했다.

이후 할머니는 시골에서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다 2년전 딸이 살고있던 남양주시로 선명이와 함께 왔다. 그러나 딸이 사정상 다시 논산으로 이사를 가고 할머니와 선명이만 덩그러니 남았다.

딸들 역시 없는 집에 시집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도 딸이 살림 밑천이라고 한달에 합해서 10만원 정도는 보낸다. 여기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30여만 원을 더한 40만원으로 한달을 버틴다. 그러나 사글세 20만원을 빼면 결국 20만원이 생활비다. 여름철에는 그런 대로 버티지만 겨울철에는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는 꿈도 못 꾼다. 전기장판에 할머니와 손자가 어깨를 붙여가며 잠을 잔다. 하지만 그런 보금자리도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동네가 재개발 지구로 선정돼 이달 안으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이다.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96-2
전화번호:031-565-1405
후원계좌:농협 204030-56-075151(예금주 조선명)

남동우 기자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까?"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 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가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성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1. 안정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
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진하스님(준보유자 / 서울 금강선원 교수)
(1) 대령 / 관욕
(2) 지장청
(3) 전시식
(4) 삼신이운 / 삼보통청
(5) 범패작법무 따라하기(실습용)

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1) 대령/ 관욕
(2) 상주권공 지장불공의식
(3) 상용영반/ 산중작법 의식
(4) 교재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1) 순선법문 1, 2
(2) 서울길상사 천도재
(3) 철원심원사 보살계
(4) 변산실상사 천도재

구입처 : 다 원 미 디 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 외환은행 284-18-00208-7

※ 초파일, 사찰행사등에 이미 녹음된 TAPE나 촬영된 비디오를 선명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법성합장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제11기)
- 지도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학습내용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성례·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 2002년 10월 5일까지(현재 접수중)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2년 10월 9일 (수)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의 특징 -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바라작법반 모집

※ 49재, 천도재 등 법회시 바라작법 및 북·태징·사물 다루는 법을 자세하고 완벽하게 지도함.

- 수련기간 : 6개월 과정 (제4기)
- 교육시간
  매주 월요일 5시~7시(2시간)
  화요일 3시~5시(2시간)
- 개강일시
  10월 7일 (월)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학습내용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점안의식 등
  (법주 · 바라지 교육전문)
  작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복청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사물 : 북, 태징 등 사물 교육
- 접수방법 : 불교의식반과 동일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⑮



그림 · 문병성

홀로그래피와 무문관

광(光)물리학의 첨단 응용분야로 레이저 입체사진술이라고 불리는 홀로그래피(holography: 그리스어로 '완전한'이란 뜻을 가진 'holos'와 '정보'라는 뜻을 가진 'gramma'의 합성어)는 실물 영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첨단 영상매체이다. 이 기술은 1960년대에 개발된 레이저(laser: '복사(輻射)의 유도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이란 뜻의 영어문구 머릿 글자의 집합에 의한 합성어)라 불리는 특정한 빛을 이용해, 실물을 기록하고 다시 영상을 재생시키는 새로운 방식이다. 물론 입체감을 담은 사실적 기록으로부터 영상의 재생시 인간이 사물을 본다는 것은 빛의 반사에 의한 반응을 두뇌에서 인지하는 생화학, 물리적 반응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생생한 사실감의 전달은 빛의 반응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레이저에 관해 좀더 부연 설명을 하면,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 원자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옮겨가면서 빛을 방출하는 양자역학(量子力學)적인 특성을 응용하여 아주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電磁氣波)를 증폭하거나 발진하는 장치인, 레이저의 중요한 성질은 간섭성을 가지며 단색성을 나타내고, 강력한 가는 빛을 방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1839년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자끄 망데 다게르에 의해서 이차원 사진술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실물 재현의 유일한 사실적 기록방법을 발명했다고 믿었다. 그러다 1948년 영국의 데니스 게이버 박사가 전자현미경의 분해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생각해낸 삼차원 영상방법이 홀로그래피 기술이다. 사실 종래의 사진이 물체의 밝고 어두운 면의 분포만을 기록하는 반면, 홀로그래피는 파동으로서 빛이 가지는 모든 정보, 즉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축적하고 재생할 수 있게 돼 인류는 새로운 차원의 완전한 정보 재생 기술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다.

한편 필자의 견해로는 남송 시대의 무문혜개(無門慧開) 선사가 1700칙(則)의 공안 가운데 48칙의 공안을 골라 뽑아 제창한, 선종 최후의 공안집인 '무문관(無門關)'은 '선종'의 종지(宗旨)를 100% 재현할 수 있는 생생한 선적 체험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삼차원 홀로그래피에 견줄 수 있다. 그 이전의 선종문헌들은 이차원 평면사진술에 비교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비교를 위해 '무문관'과 그 이전의 선종문헌들을 대표하는 〈벽암록(碧巖錄)〉을 살펴보기로 하자. 선은 당 시대에 가장 창조적인 활력으로 넘쳐 있었지만 그후 문화적 예술적인 면으로 발전되면서 북송 시대에는 차츰 회고적 풍조를 띄게 되었다. 그러다 남송 말기에 가서야 공안에 의한 선 수행, 즉 간화선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무문관'은 이와 같은 때에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며 나타나 역사적 사명을 다한 소중한 선서(禪書)이다. 그러므로 같은 선 공안집이라 하더라도 〈벽암록〉과 〈무문관〉은 그 자체가 역사적 배경과 그 출현의 의의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두 책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벽암록은 문학성이 풍부한

무문관에 '염화시중' 등 선적 정보 풍성

선종 종지 3차원 홀로그래피로 보는 듯

반면 이것이 오히려 수행자로 하여금 생생한 선적 체험도 없이 이차원적 언어의 유희를 통해 체험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심지어 제자들의 이런 작태에 격노한 대혜종고 선사는 스승의 저작인 〈벽암록〉을 불태워버리기까지 했다. 반면에 무문관은 벽암록에 있는 군더더기들을 과감히 없애고, 수행자들의 지해분별(知解分別)을 철저히 끊을 수 있도록, 직설적이고, 제창적이고 참구적인 요소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무문 선사는 수행자 시절 '조주무자' 화두를 받아 6년간 씨름하다 대오(大悟)한 후 이 체험을 바탕으로 제자들의 근기에 따라 알맞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화두들을 부과해 수행시켰다. 그러다 그것들이 어느덧 48개나 쌓이게 되자, 1228년 남송 이종(理宗) 황제의 즉위를 기념하여 이들을 한데 모아 평창(平唱)과 송(頌)을 덧붙여서, 선 수행의 지침서로써 '무문관'을 엮게 된 것이다. 그는 이 저술 속에서 '염화시중', '외도문불', '가섭찰간' 등의 제창을 통해 석가세존과 그 제자들의 깨달음의 정수를, '불사선악', '비풍비번'의 제창을 통해 육조혜능 선사로부터 비롯되는 조사선의 전통을 계승한다. 그리고 '천녀이혼', '노봉달도' 및 '우과창령'의 제창을 통해 오조법연 선사로부터 비롯되는 간화선 수행체계를 계승함과 동시에 '조주무자' 공안의 완결을 통해 간화선 수행체계를 완성, 선종의 종지를 100% 보존하였다.

끝으로 무문 선사는 무문자서에서 다음과 같은 게송을 통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바르게 수행하면 대자유인으로의 길이 있음을 제시한다.

대도는 무문으로 천가지 길이 있나니(大道無門 千差有路)
이 관문을 통과하면 천하를 독보하리라.(透得此關 乾坤獨步)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jpark@ccs.sogang.ac.kr

이렇게 들었다

어른부터 바른모습 보여야

심각한 청소년문제

국내 초등학생의 53.1%가 가출 충동을 느끼고, 여중생 40.1%가 성형수술을 희망하며, 여고생 5.6%가 낙태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발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김화중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6일부터 한 달간 초중고생 1만9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밝힌 '초중고생 정신건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생 4천89명의 10.8%가 흡연경험이 있고, 남학생의 46.3%, 여학생의 32.9%가 음주경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중학교 남학생의 32.2%, 여학생 55.7%가 가출이나 자살충동을, 남학생 1.3%, 여학생 0.9%가 윤락가에 출입해 본 경험이 있고, 고등학교 남학생의 33.7%, 여학생 71.6%가 성형수술 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비뚤어진 어른들의 모습이 곧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는 점이다. 청소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다섯 가지의 잘못을 범했을 때 꾸짖을 것이니, 믿지 않음, 게으름을 피움, 욕설함, 부끄러움을 모름, 나쁜 벗을 가까이함이다. 다섯 가지의 꾸짖는 법이 있으니, 함께 말하지 않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가려서 가르쳐주지 않음, 그가 바치는 것을 받지 않음, 착한 일을 칭찬하지 않음, 의지가 되어 주지 않음이니라.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은 응당 세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널리 배워 온갖 음절과 어질음을 지님이요, 둘째는 세간 출세간의 온갖 얻음으로써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번뇌가 없음이요, 셋째는 파괴됨이 없어서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실천함이다. <시왕비파사론>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㉗

불법은 없다

마른 가시덤불서 무슨 즙 찾나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깨끗하고 묘한 국토에 들어가서는 청정한 옷을 입고 법신불을 말하며, 차별 없는 국토에 들어가서는 차별 없는 옷을 입고 보신불을 말하고, 해탈국토에 들어가서는 광명의 옷을 입고 화신불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삼안국토(三眼國土)는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것들이다. 경론가(經論家)라면 법신을 근본으로 삼고 보신과 화신을 응용으로 여기겠지만, 나의 견처에서는 법신이라 하더라도 법을 설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말하기를, '불신(佛身)은 뜻에 의지하여 세워지고, 불국토는 바탕에 의거하여 논한다'라 한 것이다. 법성신과 법성토가 만들어진 법이며 의지하여 통하는 국토로서, 빈 손에 누른 잎사귀를 쥐고서 어린 아이를 속이는 짓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가시덤불의 마른 뼈다귀 위에서 무슨 즙을 찾느냐? 마음 밖에도 법은 없고 마음 안에도 법은 없는데, 무슨 물건을 찾는가?

선종에서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고, '뜻으로 헤아릴 수 없고 말의 길이 끊어진다'고 하고, '생각을 움직이고 입을 열면 벌써 어긋났다'고 하고, 〈금강경〉에서는 '모양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다'고 하고, 임제는 '입을 열 수도 없고 발을 디딜 곳도 없다'고 하며, '실상(實相)은 무상(無相)'이라고도 하고, '법은 머무름이 없다'고도 하며, 노자는 '도는 현묘하여 도를 도라고 하면 어긋난다'고 하고, 장자는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주재자(主宰者)도 없다'고 한다.

우리는 도니 법이니 실상이니 실재니 진여니 진리니 마음이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하는 등등의 말을 사용하여 공부할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을 붙일 대상을 먼저 경험하고 그 대상에 대응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대상은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름만 생각하고 이름만 말할 뿐, 실제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름은 헛된 것이다. 우리는 그 이름에 대응하는 대상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이름을 더욱 잘 믿고 잘 기억하며 잘 분별한다.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의식하는 모든 이름들이 전부 그렇다. 우리는 헛것인 이름과 실제인 대상을 동일시하는 버릇이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버릇이 오히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우리는 생각과 말이라는 헛것을 통하여 추리하고 결정한 뒤에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이런 헛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이처럼 허깨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공부란 결국 이런 공허한 허깨비의 삶을 벗어나 순간순간 진실하고 실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러므로 공부의 출발은 우선 헛것인 이름과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다. 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기회를 맞으면 이름과 생각은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과 생각이라는 헛 것조차도 도의 경험을 벗어나 따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도 위에서만 이름도 생각도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도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원: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불교를 믿는 목적
What is the purpose of believing in Buddhism?

Buddhism is a religion practiced through one's own pure will and effort. It is not concerned with saving people through subservience to an Absolute Being. Rather, it is concerned with helping people to save themselves.

불교는 자신의 순수한 의지와 노력으로 수행을 하는 종교이다. 또한 절대 신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을 돕는 종교다.

Believing in Shakyamuni Buddha's enlightenment, one devotes oneself to practicing and to also gaining enlightenment and so to helping all being. Thus, with wisdom and compassion we can help to make a world where all can live in equality and peace. This is the goal of Buddhism.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고, 수행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힘쓴다. 또한 다른 모든 존재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돕는다. 지혜와 동정심으로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동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一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굿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둑을 잡아 주십시오

도둑놈들이 책을 대량 복사해서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본 책을 개인이 판매하러 다니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부산지사에서 전화주문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찾아와서 저와의 연고를 빙자하면서 이 책을 싸게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조직적으로 대량복사 했거나 도용인쇄하여 팔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본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을 구입하셨거나, 개인이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책을 사라고 하는 경우를 겪으실때는 바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함께 알려 주시면 본책을 한질 드리거나 현금1백 50만원을 즉시 사례하겠습니다.
저는 이책을 쓰기까지 처자식을 헐벗게 놔두고 7년을 산속에서 신음 했습니다.
또,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이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이 책이 신통하기로 검증이 되어 활인천역동역자 제위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로서 저는 가히 7년의 산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파렴치한 자들이 저의 책 설명 강의를 몇번듣고 저로부터 육임을 배웠다고 자칭하면서 마치 저와의 인연이 깊은양 말하고 다니며 제가 쓴 책들을 대량 복사하여 조직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이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바로 살게 하는데 협력하여 주십시오.
저의 직통 전화는 02)996-3335입니다. 효사 배상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재 취직 승진 매매 임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 할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실명비디오 포함)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500,000(휴대용)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좌정용)
●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
●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900,0000

● 강의신청「육임학당효사숙」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목어

정신 좀 차립시다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생명 있는 것은 모두 자기 개성과 주체성이 있다. 역사상 우리 민족은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과 지배 아래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아직도 사대주의 근성이 남아있다. 이를 이용한 권력층의 아만심에 찬 횡포로 선량한 국민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전히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난 지 어언 50여 년, 아직도 친일의 여죄는 청산되지 못하고 항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민족의 시련은 모두가 지배계급의 횡포 때문이었다. 일본의 지배 하에서 겨우 벗어나자 미국이 점령하여 정치 · 군사 · 경제 · 교육 · 문화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는 엄연히 하나의 주권국가인데도 말이다.

우리 민족은 한 많은 시련 속에서도 참으로 끈질긴 전통문화와 민족의 긍지를 계승해 오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잊어버린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아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남에게 예속되거나 남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남을 억압하거나 남의 주권을 침탈해도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열강의 틈에서 전통문화의 긍지를 고수해 오고 있는 것도 1600여 년 형성되어 온 불교적 정신문화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참으로 참담한 사건이 생겨 국민을 대단히 실망스럽게 하고 있다. 다름 아닌 달라이 라마의 방한 문제다. 달라이 라마가 왜 한국에만 오지 못하는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엄마 전 중국의 국무원 종교국장이 한국을 다녀갔다. 방한 목적이 우리측 정부에게 달라이 라마가 한국에 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들이 대체 무엇이길래 남의 주권국가에 와서 누구는 이 땅에 오면 안 되고 누구는 된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편짜기 좋아하는 자들은 달라이라마가 오면 마치 한국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망할 것 같이 그들의 편들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정녕 이 나라의 미래는 생각지 않는다. 단지, 사탕 받아 먹기에만 바쁘다.

동포여러분! 정말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립시다.'

법 산(동국대 정각원장 · 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출가연령



조계종이 최근 출가자 연령 제한 법조항을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40세 이상의, 늦은 발심자에게 출가기회를 줄수 있는 별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5명 가운데 70명(82.3%)이 필요하다, 15명(17.7%)이 필요없다고 답변했다.

또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좋으냐는 질문에는 53명(74.7%)이 엄격한 특별심사를 통한 예외적 출가의 허용, 12명(16.9%)이 종무행정 등을 관장하는 전문 계층으로 수용, 6명(8.4%)이 기타 라고 응답했다. 김두식 기자

"별도법 필요하다" 82.3%

불자 세상보기



최종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백진우군 미담' 감동의 緣起法

요즘은 신문을 펼치는 것이 실로 짜증스럽다. 신문이 하루를 상쾌하게 출발시키는 청량제라기 보다는 하루의 시작을 우울하게 만드는 전염병균처럼 느껴진다. 이런 우울함이 젖어 있는 초가을의 문턱에 가슴을 뭉클하게 감동시킨 미담이 있다. 감동을 자아내는 백진우 군의 이야기다.

그는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이다. 아버지 백병철 씨는 만성간경화를 오래 앓아왔다. 서울 중부시장에서 김 도매업을 하던 그가 지난 99년 말에 갑자기 쓰러졌다. 복수가 차서 배가 산처럼 부풀었다. 이때부터 투병이 시작되었다. 그 후 2년여 동안 발작과 응급실행 그리고 입원의 반복이 계속되었다. 부인은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집까지 팔아 치료비로 충당했다. 올해 초 그에게는 간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누가 그에게 간을 떼어 줄 수 있겠는가? 내 몸을 떼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아들 진우군이 자신의 간을 이식하겠다고 나섰다. 이식수술은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후 11월말에 하기로 날짜를 잡았다.

그러나 백병철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 되어 11월말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아버지는 수능시험을 앞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앞길이 막힌다고 극구 수술을 거부하였다. 아들 진우군은 수능시험이야 또 보면 되지만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혼수에 빠진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간을 떼어 아버지의 몸속으로 이식하게 하였다. 12시간이 걸리는 긴 수술이었다. 배꼽에서 명치까지 다시 배꼽에서 옆구리에 걸린 50cm의 긴 흉터를 남기는 대수술이었다. 감동의 드라마이다. 수술을 받은 두 사람 모두 회복을 잘 하고 있다고 한다. 곧 건강을 되찾으면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고 싶다고 한다.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를 활력있게 만들고 살맛나게 하는 것은 엔돌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수십배 강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감동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로 건강해진다고 한다. 이 감동호르몬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불치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이라기보다 이 감동호르몬의 초월적인 작용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적의 가르침이 아니다. 신비한 힘을 불교에서 기대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을 차력사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니란자강에서 육체적 고행을 그만 두신 것은 깨달음이 초인적 능력을 얻기 위한 차력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 깨달음이 아닐까? 인간을 감동시키는 일이 바로 깨달음의 본 모습이 아니겠는가?

유교의 효는 자식이 부모를 향한 일방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불교에서의 효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보은의 뜻이 강하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자애가 자식에게는 부모를 향한 봉양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도리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연기법적으로 이해 되어진다. 백진우군의 미담은 감동의 연기법이다. 이 감동으로 모든 사람을 나의 부모로 알고 공경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고개를 숙인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화장문화 정착방안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화장률이 91년 17.8%에서 2000년 33.7%로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화장률은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례문화개선운동부본은 16일 '장묘문화 개선 심포지엄'을 열고 바람직한 장묘정책과 화장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복(중부대) 교수와 고덕기(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씨의 발표문을 요약했다.

김태복(중부대 사회학부 교수)



장묘관련법령 현실맞게 개정을

사람이 생존하는데 '생활 공간'이 필요하듯 죽은 자에게는 '주검의 공간'이 필요하다. 좁은 땅덩어리를 가진 한국은 '주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자기 땅이라고 함부로 조성된 불법 호화분묘, 사후관리 소홀로 방치된 무연고 묘지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대상이다. 조상숭배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무연고 묘지가 현재 800여만기 이상 존재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묘지들은 주거공간 인접지역에 위치해 상호근접성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의 태부족, 전국에 산재한 공동묘지의 방치, 잘못된 풍수지리 관행, 장묘업계의 영세성과 폐쇄성 등도 장묘문화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 장묘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실천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장장 · 공설납골당 · 납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당 지자체의 홍보와 국민의식 개혁운동도 하루 바삐 실천되어야 한다. 납골묘 전시회 등을 통한 홍보, 전국 묘지현황 파악 및 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법인묘지 관리비 현실화 방안 강구 등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장의업체의 영세성과 폐쇄성을 지양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종쉬볼 묘지에서 보듯이 인접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운영하는 장묘 관련 시설 확충, 정부 · 지자체의 투자재원 확충 및 민자유치 등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묘지문제의 해결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우리의 전통적인 효사상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우선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지속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장묘관습도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현시점에서 조성되는 묘지 및 장묘 관련시설만이라도 적법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 건설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고덕기(前 한국보건사회硏 주임연구원)



홍보·교육강화, 지도층 수범보여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사 관습은 화장보다 매장 위주의 장례 방법을 선호해 왔다. 이는 우리가 유교의 핵심이념인 효사상 및 조상숭배 사상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묘지의 국토잠식, 자연환경 훼손, 무연고 분묘 발생, 묘지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바람직한 화장문화와 납골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화장에 대한 의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매장과 화장에 대한 선호비율은 약 6: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구밀도가 비슷한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낙후된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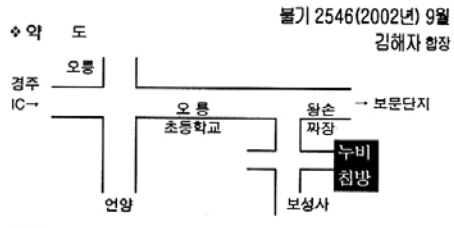
화장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장에 대한 인식 및 홍보부족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매장을 선호하는 습관이 뿌리깊게 남아 있다. 특히 중노년층에는 화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화장에 대한 홍보는 몇몇 시민단체만이 전개할 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화장장 공급이 부족하고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인구당 화장로 수가 일본의 경우 10만명당 6기 기준인 반면, 서울의 경우 1천4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화장로는 16기에 불과하다. 또한 화장로 및 관련시설이 크게 노후화돼 혐오감을 줄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도 시정해야 할 사항이다. 화장 관련 종사자도 전문성이 결여되고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자세를 찾기 어렵다. 화장장과 납골시설이 혐오시설로 알려져 주민들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것도 화장문화 개선을 위한 걸림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인 대통령, 국회의원, 종교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화장을 장려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화장시설을 현대화, 리모델링하는 한편 새로운 최첨단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화장장을 단순히 화장만 하는 장소가 아닌 보다 친밀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할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硏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증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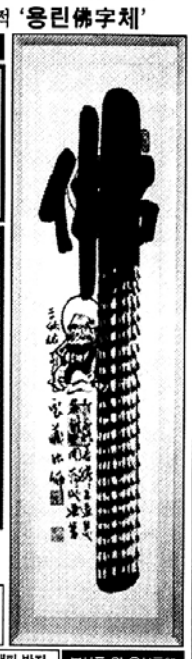
손누비 공개 강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누비장 김해자 선생님의 공방에서는 이번 10월에 승복조끼를 시작으로 승복 손누비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따뜻한 송누비 옷하나 가지고 싶은 분들, 정성을 다하여 존경하는 스님에게 보시하시고 싶은 보살님들, 단순한 누비작업을 통하여 스스로 인욕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싶으신 분들, 화두쌍수의 의미를 두고 누비삼매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누비 강좌에 오셔서 뜻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2년 10월 2일 ~ 10월 5일 (4회 연속)
❖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 대 상 : 10월 2일 - 일반신도
10월 3일 - 일반신도
10월 4일 - 비구니스님
10월 5일 - 비구스님
❖ 장 소 : 경북 경주시 탑동 637-1번지
중요무형문화재 제 107호 누비장 김해자 누비공방
❖ 참가인원 : 아루 30명
❖ 준비재료 : 겉감-순물염색한 명주, 안감-목조염 염색한 명주
❖ 재 료 비 : 小 - 210,000 , 中 - 235,000 , 大 - 260,000
❖ 식 대 : 10,000원
❖ 모집기간 : 2002년 9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
❖ 계좌번호 : 농협 749-02-456047 김 해 자
자세한 내용은 경주 가공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4-775-2631, e-mail : nuby107@yahoo.co.kr)
불기 2546(2002년) 9월
김해자 합장
❖ 약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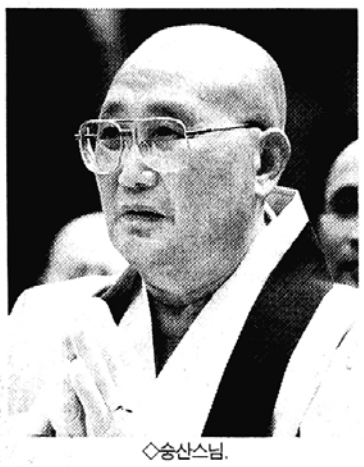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만아심경 8폭 병풍 후면 단마그림 특별 한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달 마 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붉자 용자)
수곡소장하여 활 가장 고귀한 진품명품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 (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흥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21.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화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숭산스님.

숭산스님 미주지역 포교 30주년 기념

일대기 '구도' 현지무대 오른다

한국 해외포교의 살아있는 역사인 조계종 원로의원 숭산 스님(화계사 조실). 미국 땅에 한국 불교를 전한 지 30주년을 맞아 스님의 미주 포교 과정을 그린 작품, '구도(The Dharma Path)'가 현지 무대에 오른다.

11월 5일 링컨센터서

연극·무용·음악으로 그린 '전법원력'

뉴욕 불교TV방송 10월 개국 축하도

오는 11월5일 링컨센터 앨리스 털리홀에서 막을 올리는 '구도'는 숭산 스님이 지난 72년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딘 후 홍법원을 설립, 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친 과정을 연극, 무용, 음악을 합친 종합예술로 표현한 작품. 이번 작품의 제작감독은 링컨센터 디렉터로 있는 홍준의 · 홍준호씨가, 극작과 예술감독은 곽재환 법사(뉴욕 조계사)가 맡았다.

숭산 스님의 미국인 제자 40여명이 나와 한국 사찰에서 봉행하고 있는 경건한 아침예불로 시작하는 '구도'는 이명숙씨의 바라춤, 홍법원 미국인 주지 정행 스님 외 4명이 펼치는 재즈 연주, 아프리카계 흑인 10명이 공연하는 아프리칸 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숭산 스님의 제자 묘지 스님은 지난 3일 뉴욕 조계사에서 '구도' 기획, 제작 관계자들과 함께 공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참 나'를 돌아보고 해외전법의 원력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오는 10월부터 교포케이블 TV인 TKC(The Korean Channel, 채널76)를 통해 방영되는 뉴욕불교TV방송 개국을 축하하는 자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극작을 맡은 곽재환 법사는 "고행과도 같은 원력으로 30년 동안 미주 포교를 해 온 숭산 스님의 발자취를 현대 감각에 맞는 공연 형식으로 무대에 올려 스님의 큰 뜻을 본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숭산 스님의 역을 맡은 연극인 김용준씨는 "큰 스님의 역할을 통해 나 또한 구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하루에 1천배 기도를 올리며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장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득도한 스님에게 관객들이 삼배를 하면서 막을 내린다. 총 공연 시간은 1시간25분이다. 문의 뉴욕 조계사(1-718-706-1749).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숭산 스님 미주 포교 일대기를 그린 '구도' 제작자들이 뉴욕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준, 홍준호, 묘지 스님, 홍준의, 곽재환 법사(사진 중앙일보 제공).

1966년 일본시작으로 해외포교활동

현재 33개국 120여 사찰에 신도 10만

숭산스님은 누구?

숭산스님은 해외에서 달라이 라마, 틱낫한, 마하 고사난다와 함께 세계 4대 생불(生佛)로 불린다.

지난 66년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포교를 시작, 현재 33개국에 1백20여개의 사찰과 10만명의 신도를 지도하고 있는 숭산 스님은 지난 72년 미국 방문 때 미국인들이 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고 그 길로 포교에 나섰다. 보스턴의 한 아파트에 선방을 차려 놓고 한국의 선을 가르치다 따르는 불자들이 늘어나자 73년에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지역에 홍법원을 세웠다. 스님은 또 75년 맨해튼에 '조계 인터내셔널 젠센터'를 설립, 한인은 물론 타민족을 대상으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쳤다.

印 불교계 세미나·토론회 활발

의례·정체성·부다가야 사원 운영권 문제 등

최근 인도 각지에서 불교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어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불교단체인 쁘라붓다 바라띠 인터내셔널(Probuddha Bharati International)은 지난 달 27일 '오직 불법만이 테러를 막을 수 있다'라는 주제 하에 뉴델리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인도 비구 대연합' 회장인 갸네스와르 스님은 주제발표를 통해 "오늘날 테러리즘은 세계 평화와 단결, 우의를 깨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국가들은 위기의 시대에 불법이 세계를 테러와 공포, 불의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 정부 소속 소수민족 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 로첸 틀쿠 림포체는 불교가 이성과 논리에 바탕을 둔 종교라서 교육받고 이해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된다고 전제, 따라서 초등교육의 전파에 더욱 힘을 기울이면 정토사회가 보다 빨리 이뤄질 것이라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북부 인도 짠디가르 시에서 '암베드까르 박사 연구회(Dr. Ambedkar Study Circle)' 주최로 '왜 암베드까르 박사는 불법에 귀의했는가'라는 주제하에 세미나가 열렸다. 인도에서 불교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와 특수성에 대해 토론하고, 최근 북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일고 있는 개종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는 취지로 준비된 이 세미나는 특히, 인도 전국의 불교 단체들과의 연락을 통해 발표 논문을 공개 모집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회는 편잡 지역의 지식층 불교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불교 연구단체다.

불교 학술 세미나 붐은 남인도 지역에까지 전파돼, 오는 9월 22일에는 하이드라바드 시에서 안드라 쁘라데쉬 불교도 트러스트(Andhra Pradesh Buddhist Trust)가 세미나를 주최한다. 불교 의례, 불교도의 정체성, 부다가야 사원 운영권 문제, 승려와 사찰의 사회적 역할, 외국 불교단체들의 영향, 불살생, 비폭력 계율의 현실적 적용 문제 등 현대 인도불교가 안고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주제로 정해져 분임토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불자들의 폭넓은 참여가 기대된다.

최근 인도에서 열리는 불교 학술 세미나는 사회참여의 성격이 강한 인도 불교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도 불교인들의 현실 인식과 종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인도 뿌네= 이지은 통신원

티베트 제17대 까르마파

"카규사원 방문 희망" 회견

지난 2000년 티베트에서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망명정부로 탈출한 티베트 불교 카규파의 제17대 까르마파인 우기옌 트린리 도르지(Ugyen Trinley Dorje, 16세)가 처음으로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대중 앞에 나섰다. 중국을 의식 대외활동을 자제해 온 까르마파는 16일 인도 캘커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04년까지 인도 시킴주 근처의 카규파 소속 사원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까르마파(사진)는 1959년에 반중국 봉기 실패 후 달라이 라마와 많은 불교 지도자들이 티베트를 탈출, 인도로 망명한 이후에 중국을 탈출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17대 까르마파는 인도 시킴주에 있는 카규파의 망명 본산에서 원로들의 분열적인 주도권 쟁탈전 이후 16대 까르마파의 환생자로 선택되었다.



http://www.sunjaevatar.com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경험이 바뀐다

당신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책임을 원합니까? 묻고 묻는 영혼은 누가 만듭니까?
당신은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의 업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신념은 지우고 원하는 신념을 창조하여 변화된 삶을 만드십시요.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바타 코스는 당신을 뜻대로 사는 길로 안내합니다

주위 : 변화한 삶을 원하는 분은 그림을 거꾸로 봐 주세요

선재아바타 IR 센터 ☎ 02-362-3647 ☎ 018-206-3647 E-mail avatarsunjae@yahoo.co.kr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4-1 북아현센선 2동 502호



이거룡교수의
스리랑카 불교 기행

글 싣는 순서
① 삶과 종교의 일치
② 야자수 잎에 새긴 불법, 패엽경(貝葉經)
③ 숲 속의 수행자들, 아란야(Atanya) 전통
④ 살아있는 부처님, 보리수



◇수령이 2200년이라고 전하는 아누라다푸라 사원의 보리수.

꽃·향 치장, 佛旗 걸어놓고 소원 빌어

영원한 진리 불법의 살아있는 상징

부처님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은 항상 나무와 관련을 갖는다. 알다시피 탄생의 순간에는 모친께서 무우수 가지를 잡고 계셨다. 정각과 열반의 순간에는 각각 보리수와 사라수 아래 계셨다. 이 중에서도 부처님의 정각과 관련된 보리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초기불교의 회화나 조각에서 무우수나 사라수가 아니라 보리수로 부처님을 나타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리랑카불교는 특히 보리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왕의 딸 상가미타(Sanghamitta) 비구니가 스리랑카로 건너갈 때 보드가야의 보리수 싹을 가져다가 아누라다푸라에 옮겨 심었다. 나중에 보드가야의 보리수가 이교도들의 박해에 의해 잘려나가 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을 때, 아누라다푸라에 옮겨 심었던 보리수의 묘목을 다시 가져다가 보드가야의 대보리사에 심었다고 한다. 보리수의 모천회귀인 셈이다. 현재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수는 아누라다푸라 보리수의 손자 격에 해당한다고 전해진다.

대개 보리수 하면 선정에 든 부처님을 떠올리기 쉬우며,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는 으레 좌선에 든 순례자들이 있다. 그런데 스리랑카의 보리수 숭배의식(bodhipuja)은 전혀 다르다. 대개는 보리수에 꽃이나 과일, 향 등을 올리고 자신의 소원을 빈다. 뿌리 주변에 물을 붓기도 한다. 출산 혹은 치병(治病)이나 사업의 번창을 위하여 보디뿌자를 드리며, 때로는 보리수에 가사나 불기(佛旗)를 걸어주기도 한다.

부처님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리수 외에도 불족(佛足)이나 보좌 혹은 스투파도 있지만, 보리수 숭배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를 숭배하기 때문이다. 대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대척점에 있기 마련이다. 무상한 인간의 삶과는 다른 이른바 영원 불변의 무엇이라야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보리수 숭배는 다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무상한 대상 속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보리수는 우리와 똑 같이 몸 가진 존재로 와서 영원한 진리를 이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상징이다.

▨동국대 연구교수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불교의식(범음·범패), 기타
학 인 모 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 법(속성과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 태평소(호적)

■ 모집인원 : 각 반 20명(선착순)
■ 원서접수 : 수시모집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일승불교대학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경명주사로 직접 제작한 불서화의 대가
태광 선사의 행운의 달마 길상도



▷백팔달마 팔문 재수부 ▷12띠 수복 달마
▷달마 백복도 ▷금분 붉자 달마(색상지) ▷붉자 반야 심경

* 각종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모전, 한국예술상, 대상 및 수상다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 현, UN IAEWP 한국대표부 문화예술 전문위원.
* 현,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각종 문화국장.
* 현,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득심사 후원회장

불사 주문 신청 : 국민은행 075-01-0349-506 득심사
전 화 : 02)839-7829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씨트리 키토산은 당뇨병에 경이적인 식품입니다.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몰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장해 줍니다.
씨트리 키토산을 복용하시면 식생활을 제한없이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생활로 체질을 빨리 회복시킵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읍니다.
자연식 풍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홍관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숙,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주)반도제약(구)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632
무료 전화 080-598-9632

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수행은 왜 해야 합니까?"

161명 가운데 대답을 하는 사미(니)는 아무도 없었다. 몰라서가 아니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화두,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할 전부임을 사미(니)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13일 오후 2시 대구 동화사 설법전. 2002년도 조계종 기초선원 '가을교과안거'

기초선원 가을 교과안거(敎科安居)는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으로 일주일째를 맞고 있었다. 질문을 던졌던 기초선원장 지환스님은 "괴로움을 통찰하면 통찰할수록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사미(니)들을 독려했다.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참선에 들어간 사미(니)들. 조계종 기초선원 교과안거 교육의 반은 참선수행으로 채워진다.



◇지오스님(해인사 강주)의 '대승기신론' 강의를 듣고 있는 사미(니)들



◇기초선원의 청규는 엄격하다. 강의장소에 올때는 반드시 이렇게 '안행(雁行)'을 해야한다.



◇도량청소를 하고 있는 사미(니)들

조계종 기초선원의 교과안거는 봄 가을로 일년에 두 번 열린다. 전국 80여 제방 선원에서 참선수행을 하고 있는 사미(니)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한 달 동안 수행에 필요한 경전과 논서를 공부하고 참선수행자로서 지녀야 할 각종 예절과 의식을 익히는 기본교육과정이다. 이번 교과안거에서는 특강(지환스님)을 비롯해 가신론(지오스님), 선교결(원융스님), 화엄활요(수진스님), 전심법요(통광스님), 선관책진(혜국스님) 등의 교과목 강의가 좌선과 함께 진행됐다.

조계종단의 비구(니)계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승가대나 동국대, 강원 또는 선원에서 4년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 여기 모인 사미(니)들은 경전공부가 아닌 참선수행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각각의 선원에서 동·하안거 8안거를 이수하고, 이번처럼 열리는 교과안거를 6안거 이수해야만 비구(니)계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오직 참선에만 몰두해 온 사미(니)들에게 교과안거는 평상시 접하지 않던 책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화두를 놓지 않는다. 걸으면서도, 공양을 하면서도 정신은 오직 한 곳에 집중해 있고, 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경전·수행자예절·의식 배워
강의장 올땐 반드시 안행으로

오후 8시 금당선원에서는 38명의 사미들이 일제히 좌선에 들어갔다. 금당선원 옆 선열당과 설법전에서도 76명의 사미들이 죽비소리에 맞춰 좌선삼매에 빠져들었다. 47명의 사미니들이 좌선에 들어간 설법전 인근의 부도암과 양진암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이런 선원의 모습이 취재진에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좀처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길 꺼려하는 선원의 수행자들.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의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이들은 온종일 화두 하나에 자신을 내던진다.

다음날인 14일 새벽 3시, 하루의 첫 시작 역시 좌선과 입선으로 시작됐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이 팔공산을 휘감았다. 어떤 사미(니)들은 오후불식을 하며 버티기도 하고, 어떤 사미(니)들은 잠자리에서 화두를 들었다가 끝내 놓지 못하고 새벽을 맞기도 한다. 그러나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과안거에 입교하기 전 이들 사미(니)들은 각 선원에서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 정진을 해왔다. 혹독한 수행을 자처하며 적게 먹고 적게 자다보니 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선배 수좌들이 하루 세 끼를 다 먹어야만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충고해도 듣지 않는다. 발심에 불이 붙어 오로지 수행에 몰두하는 사미(니)들에게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이 품고 있는 화두뿐이다.

아침공양과 도량 청소 후 주어진 잠시의 여유시간. 대둔사에서 왔다는 법강 사미와 어렵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교과안거에 입교했다는 법강 사미는 2년간 해인사 강원에 다니다가 발심을 해 선원에 오게 됐다고 했다. "무엇이 가장 어려우냐"고 묻자, "오즉 했으면 선원에 왔겠느냐"고 반문했다. 생사해탈이 그토록 간절하지 않았다면 산문에 들어설 이유도, 선원을 평생 수행처로 삼을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사미(니)들이 안행(雁行 : 기러기가 대오를 맞춰 날아가듯 질서 있게 가는 것)으로 설법전에 모여든 시간은 오전 8시. 해인사 강주 지오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의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교과안거에는 21세부터 시작해 55세나 되는 사미(니)도 있다. 하지만 선원에서 나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똑같이 깨달음을 좇는 수행자일 뿐이다. 그래서 강의시간에는 선감(禪監 : 선원 대중의 안거 관리를 담당하는 수좌)도 참석한다.

교과안거 기간 중 사미(니)들은 엄격한 청규를 따라야 한다. 교과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안행으로 강의장소에 와야 한다. 산문 밖 출입은 물론 외부인사와의 접촉도 금지된다. 소란을 피워서도 안 되고, 운력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10월5일 회향…年두차례 교과안거
6안거 끝내야 비구(니)계 수계자격

동화사 기초선원이 조계종 기초선원 중심도량으로 지정된 것은 1997년이다. 제방 선원의 사미(니)들이 이론과 실제를 겸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 곳에서는 1년에 두 차례 교과안거가 열린다.

이 땅에 선원이 생긴 것은 중국의 선이 전래되고 각 사찰에서 수행풍토가 자리 잡으면서부터다. 그리고 신라시대 구산선문(九山禪門)이 개창되면서부터 선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스스로 마음을 밝혀 부처가 되겠다는 선정 수행의 오랜 역사가 지금 선원의 뿌리인 것이다.

강의가 끝난 뒤 이어진 사시 예불. 봉서루에 모인 사미(니)들이 대웅전을 바라보며 석가모니불을 염송한다. 예불이 끝나면 다시 강의와 참선시간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채우며 10월 5일 교과안거를 회향하게 된다. 하지만 교과안거가 끝났다고 해서 쉴 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아니, 사미(니)들 스스로 '쉼'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곧바로 3·7 용맹정진(21일간)에 들어가고, 나머지도 각 선원으로 돌아가 수행길을 재촉한다.

"확신이 없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이 길이 내 길이라는 신념 말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겁니다. 저기 사미(니)들에게 물어보더라도 대답은 같을 것입니다."

19년째 수행을 해온 선감 대전스님은 설법전 앞에서 기자에게 이 한마디를 던지고는 금당선원으로 총총히 발길을 옮겼다.

글=한명우 기자, 사진=임민수 기자

"수행자 자질 확립에 심혈"

기초선원장 지환스님



"발심출가한 수행자가 이 시대의 선지식, 본분납자가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초선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선원의 사미(니)들이 수행자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선원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기초선원장 지환스님은 선원 사미(니)들의 발심이 식지 않고 용맹정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이번 교육의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비구(니)계를 받기 위한 종단 기본교육과정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행자로서의 확고한 토대를 다지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초선원은 아직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설이나 수행,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지환스님은 얼마 전부터 선원의 관계자들이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선원 사미(니) 1년차의 경우 한 곳에 모여 1년간 결사를 하고, 2년차 역시 이에 준하는 수행과 교육을 하며, 3~4년차는 출중한 선지식이 있는 선원에서 안거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놓았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기초선원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한국선불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종단과 사부대중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이 승가교육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선원은 자질있는 소수정예를 철저히 수행시켜 지혜와 자비의 원력으로 세상을 밝힐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2년차 수행자 내년부터 1년 결사 추진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심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⑭ 여래수량품 제16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천태 대사는 〈법화경〉 28품을 둘로 나누어 전반 14품을 적문의 가르침, 후반 14품을 본문의 가르침이라 분류했다. 즉 전반은 붓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여신 '사(事)의 석존'의 설법이며 후반은 '수량품'에서 나타내 보이는 '이(理)의 석존'의 설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수량품' 이후는 인간 석존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설법한다는 법이 법을 설한다고 하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진리임을 깨달은 석존이 진리의 몸으로 설법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본문·적문의 석존' 혹은 '법신·응신의 석존'이라고 한다면 역사상의 석존과 진리인 석존으로 2분화되어 마치 순위가 정해진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 2분화의 인상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이다. 여행에서 병든 아들 곁으로 돌아와 약을 만들고 다시 여행길에 나서서 "죽었다"고 전했던 석존은 적문의 석존이며, 아이들이 완쾌한 후 귀국한 석존은 본문의 석존이다.

"사망했다고 전했으나 참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두 사람의 석존'의 1인화를 느낄 수 있다. 아이들, 즉 미혹한 사람들은 아버지(적문의 석존)의 사망에 의해 미혹에서 깨어나니 비로소 아버지(본문의 석존)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와 아들의 비유'는 적문의 아버지와 본문의 아버지를 동일 인격으로 본다. 교리 상으로는 사(事)와 이(理)의 두 사람의 석존으로 나누어 설하지만 궁극에는 사와 이의 석존을 한 분의 석존으로 신봉하는 이지불이(理智不二)의 부처님이다. 법을 설하는 부처님은 아득한 옛날에 보살도를 행하고 성불한 보신의 석존이며, 법을 설하는 마음은 법신의 부처님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대목은 기독교의 '부활'과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 즉 부활은 인간이 죽은 후에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이 비유에서의 아버지는 참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린 것은 적문의 석존의 사망을 뜻하지만 적문의 석존에 깃들어 있는 깨달음의 진실, 즉 본문의 석존(법신)은 불멸인 것이다. 앞의 "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만난다는 것을 뜻하므로 여기서 부처님을 뵙게 되었다는 것이니 바꾸어 말해서 깨달음을 얻음, 즉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뜻이다.

〈법화경〉 '수량품'에서 말하는 구원의 생명이란 요컨대 법(진리)을 말한다. 법·진리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해서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므로 "법(佛)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여래수량품'이라는 말이 바로 '무량수품'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한 말이다. 그리하여 이 본문의 부처님인 법신불은 수명이 한량없어 "때로는 다른 부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나므로 그 이름이 같지 않고 세상에 머무는 시간도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반야(般若)의 공(空)사상, 즉 법공(法空)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법신불은 이름이 없다. 흔히 〈화엄경〉의 비로자나불이 법신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사실은 비로자나불도 보신불인 것이다. 다시 말해 아득한 옛날에 보살도를 행해 마치고 성불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보신불인 것이다. 왜냐하면 법신불인 비로자나불과 보신불인 노사나불은 동일한 이름의 바이로차나를 음역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법신의 부처님, 즉 본불도 석가모니불이요, 법을 설하는 보신불도 석가모니요, 응신불도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것이며 단지 그 수명이 아미타라는 것이다. 3즉1(三卽一)이요 1즉3(一卽三)은 바로 법신에는 보신과 응신이 구족되어 있고 응신에는 법신과 보신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화경〉이 일승(一乘) 사상에 일관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삼승(三乘)을 일승으로 귀일시킨 것이 아니라 만법(萬法) 동귀(同歸)를 말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이든 회교이든 유교이든 도교이든 이 세상의 어떤 종교 및 어떤 사상이든 이를 통일하는 사상이 〈법화경〉이요, '묘법(妙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묘법에서 보면 예수이든 공자이든 마호메트이든 모두가 법신불의 화현인 것이다. 아! 나는 이로써 영원한 생명(아미타유스)의 소유자임을 알았도다. 이 어찌 기쁘고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춤이라도 한 번 덩실 추어나 보세 그려.

▩무설정사 조실

법은 아득한 과거와 현재를 거쳐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존재



◇일우스님은 모든 일상이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진리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셨다.



불법은 몸과 녹아야 참다



가까이서 뵌 일우스님 (태

경전·참선공

참선만하면
말을 제대로
경전만 읽으
마음이 움직

보현사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대웅전 앞으로 몇 백 년 됐음직한 아름드리나무가 자리 잡고 있고, 뒤로는 통일약사여래 대불과 옥으로 조성한 천불이 청도읍내를 굽어보고 있었다. 전통사찰답게 고풍스런 분위기가 묻어났다.

한 신도의 안내로 일우스님이 거처하는 고불당(古佛堂)에 들어서자, 스님과 얘기를 나누던 신도들이 자리를 양보했다. 지난 8월말 태고종 원로회의 초대 의장에 추대된 일우스님. 180Cm쯤 돼 보이는 큰 키에 다소 마른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이 첫눈에도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강한 인상과는 달리 신도들에게는 자상하고 친절하셨다. 누구에게든 스님의 방문은 열려 있고, 이날도 스님과 신도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스님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 찾아왔다며 말을 꺼냈다.

"산천초목과 산하대지 불법인연 아닌 것이 없는데, 굳이 내게 무엇을 물으려 하시는가. 무정설법이 진실로 불법이니 나는 할 말이 없다. 유정(有情)으로 나투는 것이 어디 불법이던가. 자네들이 부처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구하려는가."

"원로회의 의장이 되셨으니 더 바쁘시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때 되면 일하고 그렇지 감투하나 썼다고 근본이 달라질 수야 있나. 화경청정(和敬淸淨)하면 그만이지. 자연과 시비하지 않고 만물을 공경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내 명심(銘心)이야."

스님은 하루 3~4시간은 일을 하신다. 지게를 지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밭을 일구고 농약을 치는 일까지도 모두 손수 하신다. 1950년 보현사 주지를 맡은 이후로 줄곧 이렇게 생활하다보니, 이제는 웬만한 일꾼도 스님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신도들은 전했다. 이날도 스님은 오전에 감나무에서 감을 따는 일을 직접 하셨다고 한다. 이토록 일에 매달려 오신 까닭은 무엇일까.

"자연은 거짓이 없지. 자연과 대화하면 그 위대함과 솔직함에 고개가 숙여져. 참선을 하고 경전공부를 해야만 불법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수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틀린 거야. 무엇을 하든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수행이요,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일일 뿐이지.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멀리서 구하려고 하니 무엇을 얻겠는가."

스님의 일상은 늘 이렇게 노동으로 채워진다. 새벽 3시 아침예불을 시작으로 참선과 독경, 그리고 신도들을 만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밭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일과 중 하나는 신문을 읽는 것이다. 스님은 시대흐름과 불교계의 흐름을 알아야만 신도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다. 그래서 불교계 신문과 일간신문을 꼼꼼히 챙기신다.

스님은 어려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셨다. 그런 스님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우연이

말·행동 다르면 부처님 파는일 좋은 말도 실천않으면 소용없어

었다. 그러나 스님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바로 위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출가를 했어요. 토굴에서 수행을 했는데, 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지. 그런데 형이 집에 갖다 놓은 불교서적을 우연히 접하면서 어느 순간엔가 부처님 철학을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서야 형이 왜 스님이 됐는지 이해가 됐고, 나도 저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 하지만 만약 형의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나는 출가를 했을 게야. 언제가 됐든 불법을 만났을 테고, 그 법을 피하기는 어려웠겠지."

스님과 대화도중 상좌스님이 차를 들여왔다.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차 맛이 어떠신가."

"예, 아주 좋습니다."

"차가 무슨 맛이 있나 잘못 마신 게지"

무심코 한 인사말이었는데, 오히려 꾸지람을 들었다. '차를 잘못 마셨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무미(無味) 차가 진짜 차지. 물이 어디 맛이 있는가. 무미는 만물의 근본이지. 무미조차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나. 진리비동 실상언(眞理非動 實相離言)이라 했어. 진리는 움직이지 않고 실상은 말이 없다는 뜻이지. 내뱉는 말이 모두 상(相)이듯, 맛도 그러한 것이야. 사람들은 늘 현상

"큰스님 보러 가시는 길이요?"

청도 역에서 택시를 타고 보현사로 가자고 했더니 운전기사가 대뜸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운전기사는 빙그레 웃으며 "참 훌륭한 분이시죠" 했다. 말

"우리 아이 핸드폰에 수능시험 때까지 기도 메세지 매일 든다."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

자녀들이 애쓰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 주기를 부처님께 애타게 기원하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한마음으로 기도성취를 이루시기 기원하는 바입니다.

사실, 공부에 너무 바쁜 수험생 자녀에게 잘되기를 바란다는 부모님들의 마음조차 표현하기 어려우시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이같은 애틋한 마음을 저희들이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수능 성취를 위한 기도문을 댁의 자녀 핸드폰에 108회(매일 하루 3차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세대인 댁의 수험생 자녀들은 무의식 속에 부처님의 가피로 든든함을 느낄 것 입니다.
지금 연락주십시요.

수능 성취를 위한 기도문 핸드폰 발송 서비스

- 행사일정 : 2002년 10월 1일 - 2002년 11월 5일(36일간)
- 행사방법 : 하루 3회 수험생의 휴대폰에 축원문 발송(총 108회)
- 축원시간 : 오전 6시 / 정오 / 오후 6시
- 축원내용 : 시험무사성취와 합격기원문
  성취 기도문은 신청 불자의 원찰 주지스님께서 주신 내용과
  경전 속에 담긴 수능 성취에 관련된 부처님 말씀
- 동참문의 : (주) 지도리 (02-725-9787)
- 접수기간 : 9월 1일 - 9월 28일
- 동 참 비 : 30,000원

※ 본 서비를 통해 조성된 동참금의 일부는
스님대상 무료 컴퓨터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불교문화정보연구원의 기금으로 전달됩니다.

일우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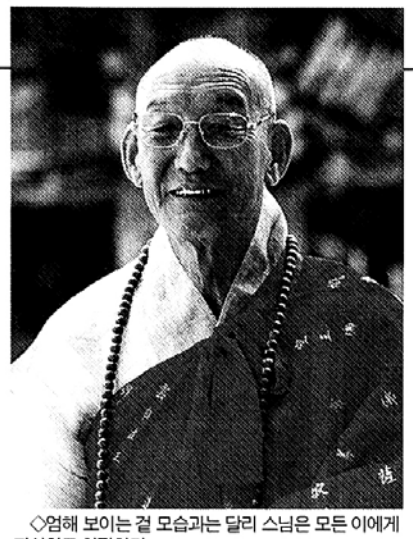
소탈 · 자상… "공부 게을리하면 불호령"

청도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일우스님이라고 한다. 지역의 대소사에 스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자리가 빛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데는 스님의 소탈한 성격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스님은 지역민이나 신도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격식을 차리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밭일을 하는 것도 이런 성격 때문이라고 신도들은 말한다.

하지만 상좌들에게는 더없이 엄하다. 10년째 스님을 모셔왔다는 혜웅스님은 "공부를 좀 소홀히 한다 싶으면 여지없이 불호령이 떨어진다"며 "중이 공부 말고 무슨 할 일이 있느냐고 입버릇처럼 말씀 하신다"고 전했다. 상좌 혜둔스님도 "스님밑에서 공부하지 않고는 견뎌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우스님은 1927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43년 적천사에서 동명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44년 동화사 강원을 수료했다. 이후 보현사 주지, 태고종 중앙종의회 의원, 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을 거쳐 1998년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했다.



◇엄해 보이는 겉 모습과는 달리 스님은 모든 이에게 자상하고 친절하다.

마음에 은 가치

스님

(신로회의 의장)

투에서 순박함이 느껴졌다. 경북의 최남단에 놓인 청도, 말 그대로 시골 냄새가 곳곳에서 풍겼다. 탐욕과 이기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이런 곳에 사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르게 해야

은 움직이나

고

은 있으나

않아

에 집착할 뿐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아. 불교 신도들 가운데 스님을 보기 위해 절에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올바른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그런데 스님이라는 상에 기댈 뿐 자신을 탐구하고는 하지 않아요. 스님은 그저 실상에 불과할 뿐리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자신을 으려 하지 않고 누구에게서 찾는다는 말인가. 실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 얘기를 들어도 소용 없는 것과 같은 이치 "

스님은 요즘 적지 않은 민을 하고 계셨다. 초대 로회의 의장을 맡은 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은 요즘 만나는 스님들에게 '육화경(六和敬)'에 힘쓰자고 당부한다. '육화경'이란 '깨달음을 구하여 깨끗한 행을 닦는 가 서로 사이좋게 공경하며 지내는 여섯 가지 방 을 말하는 것이다.

"육화경에는 신업동(身業同) 구업동(口業同) 의업동(意業同) 동계(同戒) 동시(同施) 동견(同見)이 있습니다. 신업동, 구업동, 의업동은 신구의(身口意)의 행위에 있어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중생들이 함께 그 법을 공경하여 행하게 하는 것이며, 동계 · 동시 · 동견은 자신이 닦은 계행을 통해 얻은 덕을 베푸는 것을 말해요. 스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청정수행하면서 서로 화합하면 되는 것이지."

스님은 애종심이 남다르기로 소문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종단의 원로이기 때문에 갖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작 스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후세의 비판이다. 한국현대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이기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진 선배 스님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기록돼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스님은 10년 전 '한국불교태고원'이라는 이름의 재단법인을 만들고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보현사를 재단법인에 귀속시켰다. 투명한 사찰운영을 할 때 신도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승가화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에서다.

"부처님 법은 몸과 마음에 배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럴듯한 말만 앞세우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부처를 파는 일이야. 초발심을 항상 유지하면서 신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스님들은 그렇지 못해. 혼탁한 세상을 밝혀주어야 할 승가가 오히려 세속의 손가락질을 받는데서야 어찌 감히 승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끝에 스님은 욕심 없는 승가상을 구현하기 위해 '승로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소의 지론을 꺼내놓으셨다. 승려의 노후복지문제가 해결되면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셨다. 승가가 세속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의 대부분이 재물욕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니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한 달에 서너 번은 외부의 요청으로 초청법문을 한다. 법문 때마다 스님은 대중에게 혼신을 다해 공부하라고 강조하신다.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경전공부와 참선을 병행하라는 가르침도 빼놓지 않으신다. 한쪽에 치우쳐서는 스스로를 밝히기 힘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로 베풀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참선이라는 것은 마음의 본성을 밝히는 것이고, 경전공부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일이지. 하지만 참선만 하면 마음은 움직이나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경전만 읽으면 입은 있으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지. '선불심(禪不心) 교불언(敎不言)'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없는 마음 없고 마음 없는 말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과 교도 그와 같은 이치야. 선과 교가 각자 제가 우위라고 싸워봐야 소용없지. 선은 교를, 교는 선을 아우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스님과 대화를 나눈 지 2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 반쯤 되었을 때였다. 한 신도가 기자에게 점심공양을 하고 나서 더 말씀을 나누라고 권했다. 오전 12시반경 보현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점심공양을 권하는 신도의 말이 있었지만 모두가 공양을 끝낸 시각에 다시 공양상을 차리게 한다는 것이 미안한 마음에 취재를 마치고 하겠다고 얼버무린 차였다. 스님께서도 신도의 말을 들고는 공양을 하고 나서 얘기하자고 하시기에 대중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식탁에 놓인 수저가 15개가량 됐다. 신도들과 상좌스님들은 물론 일우스님께서도 그때까지 점심공양을 하시기 전이었던 것이다.

미안한 마음에 "저희는 모두 공양을 하신 줄 알았는데…"라며 말끝을 흐리자, 스님께서는 "같이 먹어야 맛있지" 하며 웃으신다. 상좌스님은 "큰스님께서 손님이 오시거든 같이 공양을 하자고 하셔서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씨. 스님과 신도들은 그렇게 따뜻했다.

無味 모르며 어찌 진리 찾겠나

스님들 노후위한 '승로원' 필요

청도역 앞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이따금씩 다니는 승용차가 차지하기에 4차선 도로는 너무 넓어 보였다. 가로수는 한가로이 하품을 하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땅은 사람을 닮는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그 땅을 닮아간다. 일찍이 산과 물이 푸르고 맑으며 인심 또한 순후하여 삼청(三淸)의 고장으로 불리어져 왔던 청도. 청도는 스님을 닮았고, 스님은 청도를 닮았다. 이곳 사람들은 그런 청도를, 그런 스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모두가 스스럼없이 청도를 사청(四淸)의 고장이라고 말한다.

글=한명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휘광스님

조계종에서는 출가연령을 기존의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10년을 낮추기로 하였다. 이유인즉 "세속에서 오래 살다가 오게 되면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갖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데 있다. 부처님 당시를 생각해 보거나 계율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나이로 출가의 조건을 삼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종단이 처한 고령출가자 문제의 현실적 어려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점에 나는 휘광스님을 생각하게 된다. 스님은 내가 고교를 졸업하기 전 출가를 놓고 수없이 망설이고 할 때 너무도 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터주셨던 분이다. 고교시절 불교의 인연을 만나 절에 다니게 되었다. 영등포 집에서 우이동 도선사까지 2시간 걸렸던 거리를 고3이 될 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성으로 다녔다. 매주 법회에서 스님의 법문과 철마다 하던 철야정진, 수련회 등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다.

휘광스님은 그렇게 절에 다닐 때 우리 학생회



를 지도해주던 법사셨다. 둥글고 약간 살이 붐은 얼굴에 안경을 끼고 항상 바빠 보였던 스님은 마치 대학 강단의 교수처럼 학생들에게 법문을 하곤 하셨다. 절에 다닌 인연이 깊어지면서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스님들이 점차 가까워져 갔고, 열린 문틈으로 흘낏 스쳐보기도 어려웠던 스님의 방에 들어가 처음으로 차를 얻어마신 것도 휘광스님의 방에서였다고 기억된다. 당시 도선사에는 독성각과 바위틈 사이에 낸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휘광스님 방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책상하나 놓고 한 몸 누이기도 빠듯한 그 공간에 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발 디딜 공간도 없이 책이 쌓이고 포개져 있었다. 설법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감탄하게 하고 빨려 들어가게 한 그 법문이 다 이 책들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실감되는 순간이었다. "스님,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물음에 "방이 좁아서 가져오지 않은 책이 더 많아, 박스에 싸서 다른 곳에 맡겨두었는데 나중에 여건이 되면 옮겨야겠어." "그런데, 이 책들 다 보셨어요?" "그럼 다 봤지, 최근에 산 몇 권만 빼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도 나의 눈길은 책 무더기들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모두 손때가 묻어 여러번 잡았던 흔적이 분명하였다. 차를 마시면서 스스로의 무식과 그동안의 교만함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또래의 다른 법우들 보다 조금 많이 안다고 아는체 하였던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었다. "스님 책 몇 권만 빌려주세요." "왜?" "공부 좀 하게요." "음~ 네가 볼만한 책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몇 권만 빌려주세요." 떼를 쓰다시피 해서 책을 한 권 골라 받았다. 〈아함경〉에 관한 책이었다. 몇 권 더 빌려달라는 요구에 우선 그 책을 보고나서 다시 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다. 순간 초파일 행사가 끝나고 중국집에서 짬뽕을 사주시던 편안한 모습과 차를 주시던 여유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정색을 하시고는 "네가 책을 읽겠다는 생각은 기특하지만, 네 수준에 맞지도 않는 여러 권의 책을 가져가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니 시키는 대로 해라"며 자칫 걷님을 수 있는 공부의 길을 잡아주셨다.

스님의 그 건강해 보이는 몸이 밤잠을 잊고 공부하시느라 언제는 법회를 마치고 코피를 쏟기도 하셨다. 시간이 지난 뒤 알게 되었지만 스님은 당시 동국대에 재학중이셨고 당신의 공부가 바쁨에도 법회에 오는 학생들에게 늘 최선을 다하여 소홀함이 없었던 것이다. 언제나 자신 있고 시원스

막힘없는 논리 · 자세 당당

출가 망설일때 길 열어줘

런 목소리에 막힘없는 논리와 당당한 자세는 참 닮고싶은 모습이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또는 '사회에 나가서 무엇이 되어 뭘 해야 할까?' 하는 고민으로 시간을 엮어가는 청소년기의 되고 싶은 한 '표상'으로 충분한 모습이었다.

주변에 출가한 이들 중에 청소년법회나 대학생 법회 출신들이 몇 있다. 속가에서 법회와 스님의 인연을 맺어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자라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 비율이 줄어들어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출가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청소년, 대학생 등의 젊은 층에게 출가생활의 당당함과 멋을 전달할 포교스님이 부족한 때문이다.

지금은 적지 않은 불자들이 혹 하나뿐인 자녀가 출가하겠다면 허락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이 든 사람의 출가가 문제가 있어서 제한을 한다면 따로 젊은 사람의 출가를 유도할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출가의 뜻을 일어나게 하고 그 뜻이 잘 익어지도록 지켜주던 휘광스님 같은 스님이 필요한 때다.

이번호부터 12월까지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주경스님은 86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수덕사에서 설정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89년 범어사에서 비구계, 93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수덕사 포교 · 교무 국장,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을 지내고 현재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과 서산 부석사 주지로 있다.

이세상 햇빛을 못본채 어둠속으로 스러져간 아기 넋들을 위한

제7회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연합법회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나려는 한 생명체가 빛도 보지 못한 채 어둠속으로 사라져 가면서 받는 살상의 충격은 아기영가에게는 큰 영적장애가 되며, 모친에게는 큰 악업이 되므로 반드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참 평안을 위해서 천도재를 지내주어야 합니다.

천도기도기간

기 도 일	양 월 일(음 력)	요 일	기도정전 준비물
입 제 일	양 9월 29일(음 8월 23일)	일 요 일	1. 장수멸죄경사경 2. 지장님 사불 3. 나무아미타불 사경 4. 광명진언(지의) 5. 신행노트 6. 극락세계유람기
1재	양 10월 1일(음 8월 25일)	화 요 일	
2재	양 10월 8일(음 9월 3일)	화 요 일	
3재	양 19월 15일(음 9월 10일)	화 요 일	
천 도 재	양 10월 19일(음 9월 14일)	토 요 일	
관욕준비물	비누, 수건, 아기영가옷(처음하시는 분) · 광명진언 지의		
비 고	1. 타태한 아기는 한명도 빠짐없이 천도해주어야 합니다. 2. 입재날(양력 9월 29일) 자세한 천도방법을 일러드리오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타태아기를 위한 천도기도는 최소한 3회(3년)를 합니다.		

천도재에 참석하는 방법

▶ 입 재 일 시 : 2002년 양 9월 29일(음 8월 23일) 오전 10시
▶ 회 향 일 시 : 2002년 양 10월 19일(음 9월 14일)
▶ 입 재 장 소 : 자원봉사자 기도도량 **사천왕사** (☎02-939-3900)

접수 및 문의처

■ **불교자원봉사연합회**(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2-3번지 성보빌딩 301호)
■ 자원봉사자 기도도량 **사천왕사**(서울시 노원구 상계 6동 737 일신프라자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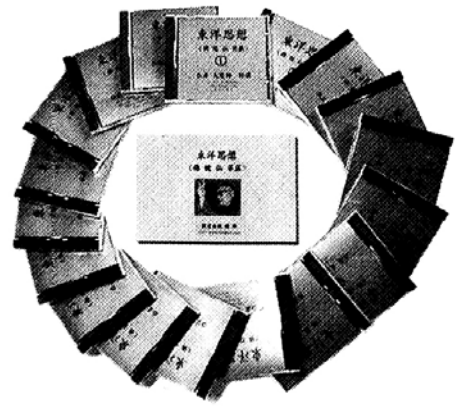
불교자원봉사연합회

☎ 02)723-6258, 939-3900 FAX : 723-6257, 930-0108

탄허대종사

동양사상특강CD안내

탄허 대종사의 깊고 넓고 높은 강의를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탄허대종사께서 1977년~1982년에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18장의 CD에 담아 보급 합니다.



◈ **가 격** : 18장 1세트 126,000원(교재 1권 포함)
◈ **제작 · 보급**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4-4
건대빌딩 본관 202호 **교림출판사**
◈ **Tel 02)733-3334 / H · P 018)733-3334**
02)733-3359
http: www.tanheo.com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 층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헌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 031)585-3323~5



◇이명미 씨는 우바이무용단을 창단, 현대 불교무용의 영역을 개척해 왔다.



◇제8회 전국무용제에서 문광부 장관을 받은 '카르마'의 한 장면.

"전통 소리, 의상, 몸짓, 조명이 어우러진 가운데 한국의 혼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선수단을 포함한 4천여 명의 인원이 동참하는 아시안게임 폐막식 공연 '세계로 가는 기차' 마지막 무대 안무를 맡은 이명미(우바이무용단 안무가. 43)씨는 학교와 경기장을 오가며 막바지 연습에 한창이었다.

1996년, 한나래문화재단의 이사장 심산스님과 불교무용단 우바이무용단을 창단하고 '불교무용'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온 이명미씨의 이번 안무는 불교계의 자랑이자 자존심이다.

원융무애 정신을 세계인에 …

무용가 이명미 씨 아시안게임 폐막식 안무

4천여명 참여 '세계로 가는 기차' 공연

소리 · 몸짓 어우러진 혼의 무대 펼칠터

특히 이번 공연은 제8회 전국무용제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차지한 '카르마'와 연극 '느낌, 극락 같은'의 안무에서 보여준 이씨의 독창성과 실험성이 또 한번 여지없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로 가는 기차'의 작품 구상과 소재 또한 독창적이다. 패기 있고 힘차게 미래로 전진하는 기차를 표현하기 위해 이씨는 탈춤사위, 선무도의 발디딤새 동작, 추임새 소리 등을 가미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낸 거대한 기차는, 휘감아 원을 그리며 만나고 헤어지는 동작을 반복하며 아시아인의 마음을 여는 대화의 장을 펼쳐 놓는다. 무용수 3천여 명 외에 선수단, 경기 운영 관계자 등 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해 그야말로 아시아인이 함께 만드는 인간 기차가 탄생될 예정이다. 운회와 시공을 넘어 원융무애의 정신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아시아. 이것이 이씨가 이번 공연을 통해 세계인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이다.

이씨는 "기대가 높아 무척 부담스러운 작업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전체 무대의 조화를 최우선에 두고 그 속에 불교 사상을 녹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전통 춤의 한 맥으로 숨쉬고 있는 불가의 춤들을 재조명,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부산=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창작 찬불가 공모대회

공연실황 기념음반 제작

조계종 총무원은 새로운 찬불가의 제작 보급과 불교음악인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했던 제3회 창작찬불가 공모대회 공연 실황기념음반을 제작했다.

대회 당시 대전교도소 무기수로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 '나 유타'로 대상을 받은 최봉종씨 외 수상곡 9곡과 제2회 찬불가공모전 대상곡 '나모'(박상훈 작사 작곡), 좋은벗 풍경소리의 찬불가 '오늘은 좋은날' '길 떠나자' 등이 수록돼 있다.

비매품 법보시 용으로 2000 장을 제작 관련 단체와 사찰 합창단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가을 지면 개편에 따라 그 동안 연재해오던 〈문학 속의 불교〉도 이번 호를 끝으로 인연을 접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작년 1월 17일에 연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글을 써온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글을 쓰는 동안 가장 어려운 일은 뭘 써야 할지, 소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처음 연재를 맡았을 때 뚜렷한 계획이 서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을 구석은 글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마치 알(화두)을 품고 기다리면 때가 되어 병아리로 깨어나듯이, 소재가 발견되면 스스로 익어 글이 되도록 기다렸다. 때로 그 속도가 더디어 조바심이 나는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원고가 늦은 적은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질긴 것은 생각의 끈인 것 같다(面前一絲 長時無聞).

나는 재주도 없고 가끔 세파에 쫓겨 알 품는 시간이 모자라기도 했지만, 되도록 살아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글 속에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세 요소)를 넣으려고 애썼다. '천'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기선 '불교적인 진리 혹은 메시지'이고, '지'는 튼튼한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학 작품'이며, '인'은 그 둘을 소화시켜 조화롭게 표현하는 '필자의 체험'이다. 만사가 그런 것처럼, 이 셋이 잘 어울릴 때 좋은 글도 나온다고 믿는다. 문제는 그 셋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인연의 계기인데, 글의 소재가 자연스레 떠오르는 때는 대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순간이었다. 일단 글감이 정해지면, 마치 라디오를 틀고 튜닝만 하면 음악이 흘러나오듯이, 펜을 통해 글이 흘러나왔다.

틱낫한의 '첫 사랑 …'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통해 그 상처 꽃으로 승화

이번 주에 내가 읽은 책은 틱낫한 스님의 〈첫 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이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구루(善知識)'로 존경받는 이 스님은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을 서양인들에게 설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45년 전 스물네 살의 눈 푸른 납자 시절 그는 베트남의 원각사에서 스무 살의 비구니 스님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내 사랑은 폭풍 같았고 그 사랑은 내 폭풍에 사로잡혀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젊었고 그래서 우리는 바람에 날렸습니다." 헤어지기 전날 밤 스님은 타오르는 열정에 사로잡히지만, 간절한 보리심이 그들을 지켜주었다. 그 뒤 그들은 잠시 재회의 기쁨을 나누지만, 베트남 전쟁의 소용돌이와 주변의 시기로 비구니 스님은 끝내 승단을 떠나고 두 사람은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한다.

가슴 아픈 사랑이었지만, 그 체험은 일행(釋一行, 틱낫한) 스님이 불교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남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금강경〉의 밝은 눈으로 보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사람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진 존재인 까닭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음을 깨닫는다. 〈화엄경〉의 장엄한 눈으로 보면, 一한 송이 꽃을 통해 태양과 온 우주를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자신과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서로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법화경〉의 자비심 가득한 눈으로 본다면, 첫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사랑은 영원함을 깨닫는다. 사랑의 몽둥이는 누구나 후려치지만, 틱낫한 스님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그 상처를 승화시켜 꽃으로 피우는 방법을 일러준다.(마지막회) ■문학평론가

색 입기 전 불화 감상하세요

24~10월 12일 동국대서 '조선불화 초본展



◇병진스님 소장 불화초본.

화려한 고려불화에 비해 조선불화는 소박한 듯 우아하고, 은은한 멋이 일품으로 평가 받는다. 그 조선불화에 색을 입히기 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병진스님 소장 '조선 불화 초본 전시회'가 24일~10월 12일 서울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불화 초본(初本)들은 마곡사의 화풍을 잇고 있는 병진스님의 은사인 정연스님이 생전에 모아 놓은 것으로, 아미타구품도, 감로탱화, 산신도, 독성도, 칠성도 등 50여점이 선보인다.

40여년간 불화 그리기에 전념해 온 병진스님은 1971년 제2회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했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서 불교전문 화실 금어원을 운영하고 있다. (02)2260-3462

문화재 복원작업 예술경지로

문화재 기능인 107명 덕수궁서 작품展

고건축 · 목공예 · 불화 · 조각 등의 분야에서 우리 문화의 전통을 오늘에 이어오고 있는 문화재기능인 107명이 문화재 보수 복원 작업의 경험을 창작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10월 2일~20일 덕수궁 내 유물전시관에서 열리는 '제6회 문화재기능인 작품전'에서 이들의 작품 155점이 선보인다.

문화재기능인협회 신응수 회장은 "이번 전시는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문화재기능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후배 기능인들과 함께 비교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채 作 '모란당초 사군자 문 머릿장'.

특히 이번 전시부터 출품작 가운데 우수작을 뽑아 문화재청장 상과 문화재기능인협회장 상을 개막일인 2일 발표할 예정이다. (02)3672-8805

승복 조끼 손누비 강좌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누비장 김해자씨가 승복조끼 손누비 공개강좌를 연다.

10월 2일~5일 4회에 걸쳐 이뤄지는 이번 공개강좌는 2,3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4일은 비구니스님, 5일은 비구스님을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한다.

승복조끼의 겉감은 숯물을 염색한 명주로, 안감은 목초액을 염색한 명주로 사용한다. 접수는 31일까지 때 강좌당 선착순 30명이다. (054)775-2631

문화 소식

출판만화사업 공청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26일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 3층에서 '출판만화산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출판만화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만화가 이현세씨, 세종대 한창완 교수,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 등이 참여한다. (02)3704-9650

法華三部經(법화삼부경)金泥(금니)8폭 조각 병풍

法華三部經(법화삼부경)金泥(금니)8폭 조각 병풍 특징

- ⊙ 법화삼부경(무량의경 3품, 묘법연화경 28품,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 1품)8만 4천여자를8폭 금속황동판 위에 또렷이 읽을수 있도록양각으로 새겨서, 그위에 순금으로 도금하여 조성한 웅장하고 장엄한 훌륭(성품)입니다.
- ⊙ 법화경의 공덕을 아시는 스님과 불자님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 본 병풍은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수 있도록 오랜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되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하였으며, 본 병풍의 소장자는 그 이름을 금속판에 새기어 순금으로 도금한후 병풍뒷면에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 ⊙ 본 병풍은 한품을 조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와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불량율이 높아, 일년에 10품정도밖에 조성치 못하고 있습니다.
- ⊙ 필요하신 분에게는 본 병풍의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규격>높이:152cm, 길이:366cm 무게:70kg


법 당


요 사 채


거실, 안방


제사, 차례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031)334-9490, 334-9491

야간:031)706-3060

경기도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돈황석굴 237호 벽화에 나타나는 한국인상. 오른쪽 위에서 두번째가 신라식 조우관을 쓴 신라사신으로 추정된다.

아시아에서 '신라'의 위상은?

신라-청-일-서역 관계 다각 규명
돈황벽화 신라인 · 불교문화 교류시사
동아시아 해상활동서 압도적인 위치에

한반도의 동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였지만, 동아시아뿐 아니라 서역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힌 신라.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가 8~9세기 아시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조명한 공동연구업적이 단행본으로 묶여 나왔다.

〈신라인의 실크로드〉(신형석 외, 백산자료원)는 2000년 10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 행사의 하나로 한국사학회(회창 최근영)와 백산학회(회장 신형식)가 개최한 '8~9세기 아시아에 있어서 신라의 위상'이라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들을 모은 것이다. 책은 신라와 당, 신라와 일본 관계 및 신라와 서역 관계를 다각도로 접근해, 8~9세기 경주가 돈황과 서안, 일본 경도를 축으로 하는 세계 문화교류의 중심지였음을 밝히고 있다.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돈황에 남아 있는 신라인의 족적을 추적한다. 신라인 인도 순례승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돈황 지역 벽화 속 신라인의 모습과 화엄경변상도를 통해 당시 신라인들의 모습을 살피고 있다. 또한 돈황 불교문양과 신라 불교문양의 유사성을 밝힘으로써 신라와 돈황의 직·간접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 일본 규슈대 교수는 문헌 기록을 통해 7~8세기 일본을 왕래한 신라인들의 활동을, 왕샤오푸(王小甫)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8~9세기 신라와 당의 관계를 조명한다.

이기동 교수(동국대)는 일본 승려 엔닌(圓仁)의 여행기 '입당구법순예행기'를 통해 9세기 중엽 중국을 무대로 전개된 신라와 중국, 일본 삼국 국민의 접촉과 문화교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당시 신라상인들이 동아시아 해상활동에서 단연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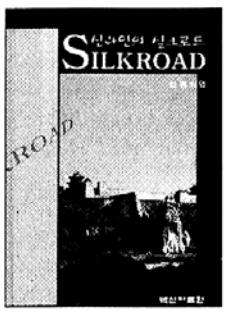
이 밖에도 임영애 교수(중앙대)는 통일신라 불교조각에서 나타나는 '서역적'인 요소를 되짚어 보고 있고, 윤명철 교수(동국대)는 신라인들의 해양교류와 재당신라인들의 활동항로, 중국 강남대외교역의 중심지역인 명주 지역의 불교문화유적 등을 다루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에 의한 신라왕경의 복원과 디지털 복원학'에서는 디지털 복원 전문가 박진호(숙명여대 강사) 씨가 황룡사9층목탑과 석굴암, 아프락시압 벽화를 비롯해 탈레반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석불 등 사라지거나 파괴된 문화유적을 가상현실로 복원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책 뒷편에는 세미나 기간동안 진행된 발표 논문에 대한 종합 토론을 실었다. 값 1만 3천원.

신라인의 실크로드

신형석 외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부처님 생애

강건기 지음



불교대학 강의 교재 시리즈 첫번째

전북불교대학 교수진들이 강의교재 편찬에 발 벗고 나섰다. 강건기 학장(전북대 철학과, 사진)을 비롯한 10여 명의 교수진은 2004년까지 불교대학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교재로 만나 볼 수 있도록 '불교대학 강의' 시리즈를 펴낼 예정이다.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부처님 생애〉(강건기 지음, 부처님 세상)는 불교학과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부처님의 생애'란 강의 내용을 책으로 묶어낸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사적 발자취를 탄생에서부터 출가, 수행, 성도, 교화, 열반의 순서로 따라가며 마치 성지 순례하듯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엮었다. 또한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연결해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

전북불교대학은 앞으로 〈불교개설〉, 〈불교와 생활〉, 〈대승불교사상〉, 〈반야심경강독〉 등 모두 16권의 교재를 펴낼 예정이다.

선가구감

휴정 지음 / 용담 옮김



우리에게 서산대사로 더 많이 알려진 청허당 휴정 스님이 지은 〈선가구감〉(효림)을 만해 한용운 스님의 수제자인 용담 스님이 쉬운 우리말로 풀이했다.

〈선가구감〉은 휴정 스님이 제자들에게 설한 선 수행 이야기를 묶은 책으로, 선의 유래를 비롯해 선과 교의 이해, 공안 참구의 바른길, 선의 수도론 등을 자세히 설명해 놓아 초심자들이 읽기 쉽다. 용담 스님은 일제치하 당시 '불교혁신총동맹'을 결성해 불교혁신운동을 전개했으며, 선학원 부이사장과 해동역경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값 5천원.

어느곳에서나 볼 수 있는 '주머니속 경전'

금강경

우룡 옮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줄서서 순서를 기다릴 때 부담 없이 꺼내 읽을 수 있는 불서는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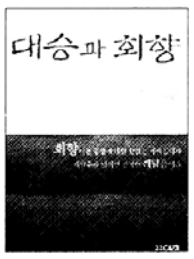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갈 만큼 작은 책이지만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득 담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 시리즈가 나왔다. 월간 법공양을 발간하는 불교신행연구원이 기획해 펴내는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은 '불자들이 꼭 읽어야 할 봄경들을 우리말로 간행보급' 하기 위한 것으로 쉽고 정확한 번역과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1권 〈금강경〉(효림)은 울산 학성선원 조실 우룡 스님이 우리말로 옮긴 책으로, 우룡 스님이 쓴 독경방법과 한 번 독경할 때 마다 직접 횟수를 적어 넣을 수 있는 '내가 확인하는 독경 횟수' 란도 마련되어 있다. 값 1천원.

대승불교 성립 조건 · 역사적 상황 서술

대승과 회향

가지야마 유이치 지음
김재천 옮김



세계적인 불교학자 가지야마 유이치 교수가 대승불교 성립의 조건과 역사적 상황을 폭넓은 시각으로 서술한 〈대승과 회향〉(김재천 옮김, 도서출판 여래)이 나왔다.

가지야마 교수가 1983년 쓴 〈깨달음과 회향-대승불교의 성립〉을 번역한 이 책은 '공(空)'의 올바른 인식과 나의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는 회향이 갖는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깨달음에서 멈추고 자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중생들에게 돌리는 데에 대승정신의 요체가 있다는 것이다.

불경과 복음서 비교연구의 역사와 대승불교의 출현과정, 회향사상의 생성과 전개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값 7천원.

원효의 새벽이 온다

정목 지음



염불수행이론 체계적으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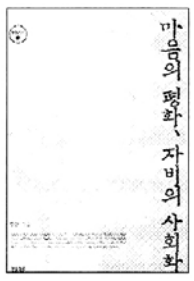
정토신앙이란 아미타불이 큰 자비의 마음으로 세운 48가지 서원에 의지하고, 아미타불을 염송함으로써 내세에 서방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정토신앙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원효 스님에 의해 크게 성했으나,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보다는 '가장 대중적이고 타력적인 신앙 형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원효 스님은 〈무량수경〉의 중심 사상을 집약하고 이를 해석한 주석서인 〈무량수경종요〉에서 정토에 왕생하는 원인으로 발심이 바른 원인(正因)이고 염불은 왕생을 돕는 원인(助因)이라고 했다.

염불수행에 전념하며 염불수행의 이론과 실천체계 정립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 정목 스님이 펴낸 〈원효의 새벽이 온다〉(경서원)는 〈무량수경종요〉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지은이는 서문에서 "고뇌와 죄장으로 불안해하는 생명에게 안심과 희망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정토신앙"이라며 "이 책을 통해 염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지성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값 1만원.

마음의 평화, 자비의 사회화

법륜 지음



"너무 급하게 살아가는게 아닐까"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 평화와 국제이해부문상'을 수상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마음의 평화, 자비의 사회화〉(정토출판)를 펴냈다.

〈마음의 평화, 자비의 사회화〉는 그동안 펴낸 〈실천적 불교사상〉,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사상〉, 〈불교와 환경〉 등의 책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스님의 사상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책이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이 책에서 스님은 인류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생태위기문제를 중심으로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사람됨을 추구해야 하는가,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아름다운 평화', '과학과 종교의 한계를 넘어서', '미래 문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등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값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관심	법 상	무 한
3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4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라이라마	김 영 사
5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6	미오지간	성 운	불 광
7	틱낫한의 평화로움	틱 낫 한	열 림 원
8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9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10	깨침과 깨달음	박 성 배	예문선원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 개점 8주년!

SALE

※ 행사기간 : 2002년 8월 24일 ~ 9월 30일까지
※ 한정수량이므로 조기에 품절 될 수도 있습니다
※ 도서할인판매 20~40%

	도 서 명	저 자	번 역 자	출판사	정 가	할인가
1	부처님이렇게오셔서이렇게사시다~	정태혁		여시아문	9,000	7,200
2	무문관혹은너는누구냐	한명조		여시아문	6,000	4,800
3	참선요지	대성스님		여시아문	5,500	4,400
4	부처님께재를털면	스티븐미첼	최윤정	여시아문	9,000	7,200
5	밤편개시	허운스님	대성스님	여시아문	6,000	4,800
6	선방일기	지허스님		여시아문	5,000	4,000
7	제가붙자를위한계율강좌	혜능스님		여시아문	6,500	5,200
8	허공의팔꿈질	이종찬		여시아문	5,000	4,000
9	보르헤스의불교강의	보르헤스외	김홍근	여시아문	5,500	4,400
10	불성이란무엇인가	다카시키	전치수	여시아문	4,500	3,600
11	법수로배우는불교	이재열		여시아문	4,500	3,600
12	생활속의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6,000	4,800
13	깨달음으로가는올바른순서	초펜		여시아문	4,000	3,200
14	삶은고가아니다	혜원스님		여시아문	6,000	4,800
15	그까지살쫌있으면어때	학림		여시아문	5,000	4,000
16	중생이라는이름의부처에게	원하스님외		여시아문	7,000	5,600
17	배낭에담아온인도	김호성		여시아문	9,000	7,000
18	라다크에서찾은부처	앤드류하비	연호택	여시아문	12,000	9,600
19	어린이찬불창작곡악보모음집	좋은벗풍경소리		여시아문	9,000	7,200
20	선의사상과역사	야나기다세이잔	추만호,안영길	민족사	6,000	4,200
21	관음경이야기	동봉스님		민족사	5,500	3,850
22	불교의지식100	편집부		민족사	5,000	3,500
23	붓다와그가르침	B.R암베르카르	박희준	민족사	7,000	3,500
24	불교와키워드의재미있는퀴즈여행	히로사치야	하유상	민족사	4,500	3,150
25	대승기신론사상연구1	박태원		민족사	8,500	5,950
26	인도의이원과불교	정승석		민족사	8,000	5,600
27	삼국사기전거론	이강래		민족사	15,000	9,000
28	한국승전문학의연구	김승호		민족사	8,500	5,950
29	신라불교여래장사상연구	이평래		민족사	15,000	9,000
30	불전해설사전	정승석편		민족사	17,000	10,200
31	신라불교사상사연구	김영미		민족사	14,000	9,800
32	한국근대불교의현실인식	김광식		민족사	15,000	9,000
33	진정국사와호산록	허흥식		민족사	15,000	9,000
34	인도철학2	인도철학회		민족사	5,500	3,850
35	인도철학5	인도철학회		민족사	8,000	5,600
36	인도철학6	인도철학회		민족사	8,000	5,600
37	인도철학7	인도철학회		민족사	9,000	6,300
38	인도철학8	인도철학회		민족사	8,000	5,600
39	인도철학9	인도철학회		민족사	8,500	5,950
40	한국불교사	가마타시게오	심현숙	민족사	6,000	4,200
41	한국종교사	제이스헌퍼리그레이슨	강돈구	민족사	8,000	5,600
42	보살의마음중생의마음	일타큰스님		민족사	5,500	3,850
43	바람의길	석지현		민족사	5,500	3,850
44	티베트어의기초와실천	허일범		민족사	4,500	3,150
45	그대들도나처럼이깃로오라	법산스님		민족사	7,500	5,250
46	산스끄리뜨어기초와실천	스가누마	이지수	민족사	7,500	5,250
47	정법조의불교강좌	정법조		민족사	6,800	4,900
48	한국과의만남	타무라엔초	김희경	민족사	5,000	3,500
49	본대로느낀데로인도기행	정승석		민족사	8,500	5,950
50	티베트불교사	야마구치즈이호외	이호근	민족사	5,500	3,850
51	중국문학과선	진충길	일지	민족사	6,000	4,200
52	중국불교학강의	여징	각소	민족사	8,500	5,950
53	중국불교사(상)	K.S케네스첸	박해당	민족사	5,500	3,850
54	중국불교사(하)	K.S케네스첸	박해당	민족사	6,000	4,200
55	중국불교의사상	다마키코시로외	정순일	민족사	5,500	3,850
56	민중불교철학	여익구		민족사	4,500	3,150
57	밀교의역사와문화	요리모미모토히로	김무생	민족사	5,500	3,850
58	불교의서구적모색	유다유타카	이미령	민족사	4,000	2,800
59	논어와선	한도다이가	최효선	민족사	5,500	3,850
60	딴뜨라불교입문	S.B다스굽따	정승석	민족사	5,000	3,500
61	초기,부파불교의역사	후지타로타스외	권오민	민족사	6,000	4,200
62	붓다,마르크스그리고하나님	트레버팅	안옥선	민족사	5,000	3,500
63	불교사상과서양철학	에드워드콘즈외	김종욱	민족사	6,500	4,550
64	불교철학개론	까리타엔	유영희	민족사	5,500	3,850
65	민중불교의탐구	법성외6		민족사	4,500	3,150
66	일본불교사	이시다미즈마로	이영자	민족사	6,500	4,550
67	초기대승불교의종교생활	하라가와아키라	심법제	민족사	6,500	4,550
68	인식과초월	핫토리마사아키	이만	민족사	5,500	3,850
69	금강경전서	무비		민족사	25,000	15,000
70	우리말법요집	김호성		민족사	8,500	5,950
71	인도의선종국의선	아베초이치외	최현각	민족사	6,000	4,200
72	중국불교사상사	키무라키요타카	장휘옥	민족사	6,000	4,200
73	천태법화의사상	다무라시로외	이영자	민족사	5,500	3,850
74	인도불교철학	카지야마유이치	권오민	민족사	5,000	3,500
75	인도불교	나라야스아키	정호영	민족사	6,500	4,550
76	선과정토	후지요시자카이	한보광	민족사	5,000	3,850
77	소승불교와대승불교	히로사치야	강기희	민족사	6,000	4,200
78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불교신문사		민족사	9,500	6,650
79	섭법그이론과실제	정순일		민족사	7,500	5,250
80	한국불교고대명저의세계	김영태		민족사	14,000	9,800
81	달마	야나기다세이잔	김성환	민족사	5,500	3,850
82	유식의구조	다케무라마키오	정승석	민족사	5,500	3,850
83	제똥은제가누워야지	지묵외		민족사	4,500	3,150
84	보현행원품강의	무비		민족사	6,500	4,550
85	정요	조계종편찬위원회		민족사	13,000	9,100
86	서장	조계종편찬위원회		민족사	18,000	10,800
87	선요	조계종편찬위원회		민족사	9,000	6,300
88	도서	조계종편찬위원회		민족사	13,000	9,100
89	걸림도내려놓고마음도내려놓고	지원스님		불광	3,500	2,450
90	그대그대자신으로	정운		불광	4,500	3,150
91	또다른이름되어	정운		불광	3,500	2,450
92	달을보는섬	정운		불광	3,500	2,450
93	하산그다음이야기	권경숙		불광	5,000	3,500
94	내아름이꽃이되어	김재영		불광	3,500	2,450
95	3박6일명상체험기	김남선		불광	8,500	5,950
96	그냥강수업는길	이도원		불광	7,500	5,250
97	친구여우리붓다가되자	김호철		불광	6,500	4,550
98	근본불교의이해	홍사성		불교시대사	5,500	3,850
99	법화행자초상	곽자원		불교시대사	6,500	4,550
100	한국문화와불교	목정배		불교시대사	6,500	4,550
101	불교설화사책	송지홍		불교시대사	4,700	3,290
102	세계의종교	유다유타카	지승철	불교시대사	4,700	3,290
103	슬플때마다우리집에오는초인	김정휴		불교시대사	4,800	3,360
104	중국불교사1	카마타시게오	장휘옥	장승	12,000	8,400
105	중국불교사2	카마타시게오	장휘옥	장승	13,000	9,100
106	회엄경이야기	카마타시게오	장휘옥	장승	6,500	4,.550
107	해탈꽃	고종화		장승	2,500	1,750
108	죽는법을모르는사람은법을어찌할라	조오현		장승	4,500	3,150
109	대승기신론이야기	카마타시게오	장휘옥	장승	4,300	3,010
110	네팔밀부터살피라	정념		장승	6,000	4,200
111	선문선답	조오현		장승	5,000	3,500
112	불교학계론강의상-입문편	장휘옥		장승	4,500	3,150
113	한역	최동환		지혜의나무	17,000	10,200
114	천수경	천명원		지혜의나무	8,000	5,600
115	첫마음을잊지말아야	법성스님		지혜의나무	8,000	5,600
116	자유로운여성이되라	오쇼라즈니쉬	손민규	지혜의나무	9,800	6,860
117	지금여기에살아라	오쇼라즈니쉬	손민규	지혜의나무	9,800	6,860
118	언제나가슴적시는그말씀대로살겠네	법성		지혜의나무	8,000	5,600
119	물속의물고기가목마르다	까비르	박지명	지혜의나무	6,500	4,550
120	삼일신고	최동환		지혜의나무	20,000	12,000
121	혼돈과파천황	최동환		지혜의나무	15,000	9,000
122	천부경	최동환		지혜의나무	18,000	10,000
123	사막을건너는사람은벌을사랑해야한다	이재운		한강수	4,000	2,800
124	홍문화박사의건강장수법	홍문화		한강수	5,000	3,500
125	홍문화박사와함께건강을이야기합시다	홍문화		한강수	5,000	3,500

http://www.yosiamun.com Tel : 02-737-0695 / Fax : 02-737-0696

"識은 業속에 포함된 종자"

안성두 박사, 초기 유식학파의 연기론 설명

산스크리트본 '유가사지론' 근거로 제시



브처님이 왕사성 근처의 우루벨라 마을 네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것은 바로 연기법이었다. 그러나 불교사상사 속에서 연기는 다양하게 해석돼 왔다. 업이 어떻게 시간적 과정 속에서 후대에 과(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교철학의 고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파가 나름의 연기설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열린 불교학연구회 학술 발표회에서 안성두 박사(충북대 강사 · 사진)는 12지 연기설의 입장에서 특히 제3지인 식지(識支)의 해석을 중심으로 〈유가사지론〉에 나타난 초기 유식학파의 연기설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연기의 해석에서 식의 개념 정의는 업의 과보의 문제 즉 업이 어떻게 미래에 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날 '유가사지론의 연기설'을 발표한 안 박사는 "식을 단순히 '업의 형성력의 결과'로만 보는 부파불교시대 유부의 연기 해석과는 달리 유식학파는 어떤 방식이든 업의 훈습력과 관련되어 업 속에 포함된 종자로 식을 해석한다"며 "식을 업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식의 원인적 측면을 강하게 제시한 유식학파의 이러한 연기설은 이미 초기 논서인 〈유가사지론〉에서 처음 언급됐으며 〈아비달마집론〉, 세친의 〈연기경석〉, 〈성업론〉 등의 후대 논서에 계승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유가사지론〉에 나타난 연기설이 유부의 3세양중(三世兩重)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식학파의 2세1중(二世一重)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견해와, 유식학파의 연기설이 가장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아비달마집론〉과 유사한 설명을 〈유가사지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해 왔다.

안 박사는 종자설을 근거로 한 2세1중적 인과구조로 12지 연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유가사지론〉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산스크리트본 번역을 통해 밝혔다.

안 박사에 따르면, 12지 연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평면적 흐름 속에서 2중의 인과관계(3세양중)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유부의 입장에서 식은 과거세의 결과로서의 현재세에 속하는 상속식이다.

반면 현재와 미래사이의 인과관계(2세일중)로 연기를 파악하는 〈유가사지론〉은 잠재적인 힘으로서의 종자설에 근거해 12지를 해석한다. 이때 식은 6식신(六識身)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식을 상속식의 원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안 박사는 "〈유가사지론〉이 식을 6식신으로 정의한 이유는 아마 원인으로서의 식에 대한 강조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 해석은 이후 세친의 식에 대한 해석에서 보듯 유식학파의 논서에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말했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삼국유사 正本 역주에 의의"

역주본 발간 참여 김상현 동국대 교수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 나라 고대사 연구의 필수 자료인 〈삼국유사〉 역주본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왔다. 전체 5권 가운데 〈삼국유사〉 제1권 왕력편과 제2권 기이편의 앞부분에 대한 주석서가 두 권으로 먼저 나왔고, 흥법편과 탑상편을 번역하고 주석을 단 3권과 의해편 등 나머지를 묶은 4권, 연구논문과 색인을 담은 5권은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자구 하나하나에 정확한 해석 노력
14세기 고간본 모아 영인작업 필요

역주 작업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김상현 교수(동국대 · 사진)는 "국문학(황패강 단국대 명예교수), 고고학(강인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 불교사(김상현 교수), 고대사(김두진 국민대 교수), 미술사(장충식 동국대 박물관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하며 자구 하나 하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시도했다"며 "각주에 국내 학계의 최근 연구 성과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가 싹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5권 완질이 전하는 판본이 조선 중종 7년(1512) 간행된 목판본인 정덕본이라 이를 저본으로 했지만 다른 판본도 꼼꼼하게 비교했다"며 "정덕본과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일부분씩 따로 따로 전하는 14세기 고간본(古刊本)들을 한 질로 묶어 영인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국유사〉 역주본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지 않나?

"역주본은 거의 없었다. 육당 최남선본(本), 두계 이병로본, 이재호본, 북한의 리상호본 등 국내 외에 20여 종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 번역에 중점을 두었거나 주석을 병행한 경우도 그 내용이 간략하다. 일본의 미시나 아키히데(三品彰英)가 1975년 간행한 역주본이 있으나 국내 학계의 연구 성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장감이 떨어진다. 이번 역주본은 〈삼국유사〉 연구의 기본 텍스트가 되는 정본(正本)을 간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삼국유사〉 현존 판본들이 대거 국보나 보물로 지정 예고됐는데….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술적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보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14세기 간행된 고간본들은 창고에 쳐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 학술적 이용가치가 떨어진다. 마이크로필름화해 연구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완전한 한 질이 아니라 따로 따로 소장하고 있는 고간본들을 한데 묶어 영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김 교수는 특히 "〈삼국유사〉는 고대 문화의 총합으로 역사뿐 아니라 종교, 신화, 민속, 미술 등을 원형에 가깝게 전해주는 필수 자료"라며 "지금까지는 내용 연구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서지학적, 사학사적 연구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바미안석불 3차원 디지털 복원

박진호 씨, 파괴된 서쪽벽 55m 석불 사진공개



◇디지털로 복원된 바미안 서쪽 대불(3~4세기, 높이 55m)과 얼굴 위쪽 벽화(사진 오른쪽).

2001년 3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완전 파괴했던 바미안 석불이 한국내 학자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3차원 디지털로 복원됐다.

탈레반 정권이 이슬람 근본주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파괴한 바미안 석불은 바미안 계곡 서쪽 절벽에 있던 높이 55m 짜리 서대불(3~4세기 조성)과 36m 높이의 동대불(5세기 조성). 디지털 복원 전문가인 박진호(31 · 숙명여대 강사)씨는 이 중 55m 높이의 서대불을 최근 3차원 디지털로 복원해 사진을 공개했다.



"원형복원때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3-4세기경 조성된 바미안 서쪽 대불은 8세기 이 지역을 침입한 이슬람교도에 의해 얼굴의 일부가 부서졌고, 13세기에는 징기즈칸 군대에 의해 왼쪽 팔다리가 일부 잘려나간 상태. 박 씨는 파괴 전 작성된 석불의 실측도면과 남아있는 사진 자료, 3-4세기 조성 당시의 바미안 석불과 같은 양식인 후기 간다라 석불 등을 비교 · 검토한 끝에 파괴 직전 모습이 아니라 3-4세기 처음 조성됐을 때의 모습으로 복원해 냈다. 석불 얼굴부분 위쪽의 벽화는 파괴되기 전 일본 교토대학에서 찍어 놓은 사진을 근거로 복원했다.

"8세기 때 이슬람교도에 의해 일부가 부서진 얼굴의 원형 복원이 가장 힘들었다"는 박 씨는 "유네스코와 아프가니스탄이 추진하는 바미안 석불 복원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올해 안에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보화 사회 가족가치관은?

현대불교사회문화원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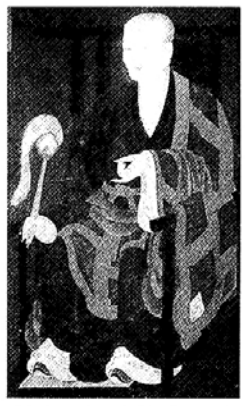
불교에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의무 · 복종 아닌 '보은'으로 인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는 가족 관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남편에게 있던 가사결정권은 부인에게로 혹은 공동 결정권으로 바뀌고 있고,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사회에 필요한 가족 가치관은 무엇이며, 불교는 거기에 얼마만큼 유효한 답을 줄 수 있을까?

현대불교사회문화원은 26일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5차 포럼을 연다. 이날 '정보사회에서의 가족관계 변화와 불교적 가족가치관'을 발표할 박수호(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씨는 미리 제출한 발표문에서 "집착하지 않고 끊임없는 개방과 창조를 향해 열려진 불교적 가치관은 분권화되고 수평적이며 탈중심화한 정보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 높은 적합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부모에 대해 자녀가 지켜야 할 덕목과, 자녀들의 교육과 지도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규정한 '싱갈라에 대한 교훈'이나 〈선생자경〉, 〈잡아함경〉 〈육방예경〉의 구절을 예로 들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불교의 윤리는 가장인 아버지에 대한 의무나 복종을 강조하는 유교와 달리 보은의 정신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유교에서는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보아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상호 호혜적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씨는 "불교적 가족 가치관은 '효'로 대표되는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대체하여 '보은'을 축으로 하는 정보사회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가족가치관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감국사 진영(송광사 소장).

원감국사 茶禪사상 재조명

29일 송광사 학술회의, 민영규 교수 등 참여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현봉)는 29일 오전 9시 '원감국사 충지(沖止)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는다.

송광사 16국사 가운데 제6조인 원감국사 충지(1226~1292)는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 · 조선 대외 교류' 특별전에서 최초로 공개된 '원대 티베트문 법지(法旨)'로 더 잘 알려진 인물. 종래 충렬왕의 명을 받고 원나라에 갔던 원감국사가 쿠빌라이 칸에게서 받은 '신분보장용 통행증'으로 알려졌던 이 티베트어 문서는 지난해 국제학술대회에서 원나라 불교계의 최고 권위자인 제사(帝師)가 송광사의 재산권 보호를 허락하는 명령문서(법지)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시문에도 능해 〈동문선〉에 작품이 전하기도 한다.

지난 해 다송자 보정선사의 조명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민영규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 진성규 중앙대 교수, 최인선 순천대 교수, 박완식 전주대 교수가 참여해 원감국사의 다선(茶禪) 사상을 조명할 예정이다. (061)755-0108

TTS 티티에스무역

오키나와 해양심층탈염음료
「신카이」한국상륙

한국 · 일본 매스컴들이 주목하는
바로 그 해양심층탈염음료가 「신카이」 브랜드로
한국시장에 첫선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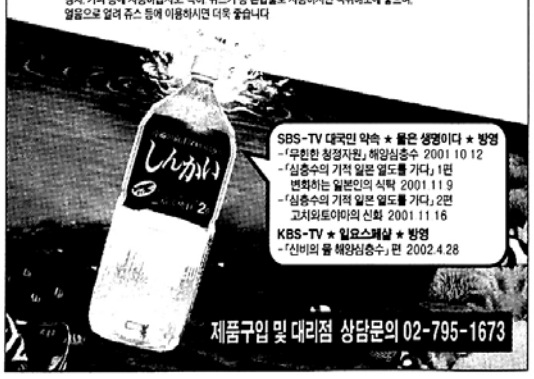
미네랄음료 「신카이」는 해양심층탈염음료 중
가장 뛰어난 건강음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카이(해양심층탈염음료)"는 태양이 미치지않는 수심 800M 깊이 북극에서 곧바로 내려오는 오키나와 바다에서 사막 속의 오아시스라고 불리우는 산호초의 퇴적지층을 통과하고, 전혀 오염도 되지않아 맑고 깨끗하며, 살아있는 수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현재 생산되고 있는 해양심층탈염음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건강 음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건강음료 피부미용에…
1일 200cc의 컵으로 2~3잔을 꾸준히 매일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1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피부미용 및 약 복용시에도 좋습니다.

건강요리에…
밥을 지을 때 물량의 15%정도 신카이를 사용하시고, 된장국에도 신카이로만 또는 절반을 사용하십시오. 조리시 물로서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하면 좋습니다

각종 식음료 혼합물로…
냉차, 커피 등에 사용하십시오. 특히, 위스키 등 혼합물로 사용하시면 숙취해소에 좋으며, 열음으로 얼려 쥬스 등에 이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SBS-TV 대국민 약속 ★ 물은 생명이다 ★ 방영
-「무한한 청정자원」 해양심층수 2001 10 12
-「심층수의 가치 일본 열도를 가다」 1편 변화하는 일본인의 식탁 2001 11 9
-「심층수의 가치 일본 열도를 가다」 2편 고치회토이야의 신화 2001 11 16
KBS-TV ★ 일요스페셜 ★ 방영
-「신비의 물 해양심층수」 편 2002.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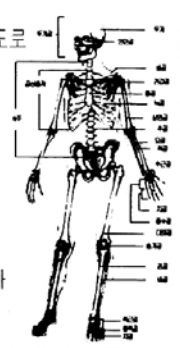
제품구입 및 대리점 상담문의 02-795-1673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기도처 자광원

자연속에 벗을지라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도처 자광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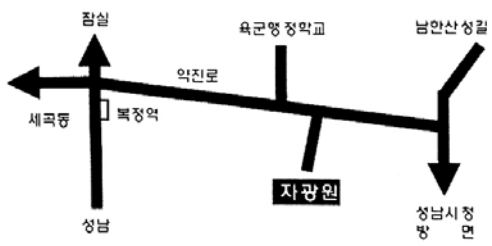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타 실버타운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토폰 설치)
→ 오락실, 체련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법당, 식당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우리들 사는 것이 바로 불법이며 참선

여러분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조차도 모르며 애타는 고통과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즐거워도 하지만 바람결같이 잠시 잠깐 돌아가고 고통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혀 가면서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걸어가는지 또 어떻게 걸어가야만이 올바른 건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육조스님께서 오조 홍인선사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불성이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불성이 스스로서 끄달리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체의 생활에 걸리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불성이 스스로서 일체 만법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요건 알아듣기 쉬우라고 조금 보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체 만법을 스스로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이겁니다. 그것을 종합한 것이 이 세상 이치를 종합한 거, 즉 말하자면 삼천대천세계 우주 천하가 다 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직결돼 있느냐하면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천지의 근본은 마음의 근본이니라.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치의 진리는 인간의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마음공부를 하는 데는 대승 소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하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듯이 그냥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한국에서만 사람이란 글자를 쓴다고 합니다. 육조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그 마음, 청정한 마음이며, 그대로 행선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물 마시는 데 무슨 이론이 거기 들어갑니까? 거기 무슨 이의가 붙습니까? 비행기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의 몸과 가정과 사회 · 국가 · 세계적으로, 아니 우주적으로 손아귀에 넣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원통력을 길러서 원심력으로서….

즉 말하자면 부모라는 가설이 되어 있고 자식이라는 가설이 된 겁니다. 전기 스위치 올리니까는 거기까지 다 볼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만법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따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이유가 어디 붙겠습니까?

예전에 뉴욕에서 환자 분이 부축을 받고 왔습니다. 십 년이나 앓고 있어서 힘들다고 합디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아프면서도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래도 꼭지가 안 떨어져서 서울까지 나왔답니다. 와서 날더러 '이 병이 10년이 가도 안 낫습니다.' 하길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내놓는다면 병을 고쳐주리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로 가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말입니다. 거기서 탁 트여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생각으로 인해서 자기를 구덩이다 넣을 수도 있고 한생각으로 인해서 구덩이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도 있는 마음의 도리,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꿈을 꾸고도 '잘못 꿨으니까 오늘 조심해야지, 이것 참 나쁜 꿈인데.' 하고 걱정 근심을 하면 꼭 나쁘게 돌아갑니다.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합니다. 우리 살림살이는 시공이 없이 돌아갑니다. 머물러져 있지를 않아요. 안되는 것도 한찰나요, 되는 것도 한찰나라. 그러니 다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금방 좋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믿으란 말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 자성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겁니까?

그리고 착을 떼라는 건, 여기 제주의 여러분은 부적도 써다 붙이고 잘된다 못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기복으로 많이 다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여버려라 하는 것은, 찰나의 생활이니까 잘못된다 잘된다를 떠나서 모든 걸 주인공,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가정도 있고, 우주도 있고, 부처도 있고 그렇지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아요? 나부터 알아야지! 모두 각자 나부터 알아야 남을 주기도 하고 보살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원심력이 생겨요.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두루 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 물질적으로 수억 검을 거쳐 나오면서 인간이 되기까지 진화되면서 살아온 그 습, 인간이 됐으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을 떼려면 '용광로와 같다, 내 주인공은 일체 우주와 천지가, 태양, 모든 혹성과 별성들이 모두 다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으니 직결이 돼 있는 내 주인공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사회도 내가 마음먹는 대로 직결되게끔 돼 있으니까 나부터 알게 되면 차차 실험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나를 진실으로 믿게 되고, '아하! 나뿐이 아니로구나! 일체제불과 일체 조사들이 다 직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색경에 비치는 그 그림자가 나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묻어 줄 사람도 없으니까 갖다가 묻고서는 엉엉 울고 앉았는데, 금방 묻는다 하더라도 손으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 가장구를 꺾어서 놓고 포대기로 둘둘 말고선 거기다가 솔 이파리로 덮어놨습니다. 땅이 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아이가 또 춥다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벗어서 더 덮어주면서 어머니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가시다가 그걸 봤습니다. "왜 부인께서는 이렇게 우십니까?"하니까, 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이든 육신의 행이든 똑같단 얘기죠. 행이 없으면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 죽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왜 우느냐고 하니깐 "먹을 게 없어서 남편은 일하러 갔는데 이렇게 9대 독자가 죽었습니다."하고 울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 앉아서 "보살님! 이 촛불이 꺼질 때까지 계십시오. 이 촛불이 꺼지면 나는 오지 못합니다."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냥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어딜 갔느냐 하면 환상천을 들르고 무명천을 들러서 불사천에 갔는데 그 애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불사천을 거쳐서 생사천에 가야 이리로 천도가 다시 되든지 뭘로 되든지 하는데 아! 불사천에 이름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이 스님이 거기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사천왕을 찾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들어와 있지 않으니 무명천에 가보라고, 무명천에 가면, 즉 말하자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와 있으니까 거기 가보라고 하길래 거길 가서 관리인한테 그 어린애 영혼을 받아 가지고, 참 그만큼 직결돼 있는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죠. 그래서 혼백을 다시 가지고선 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깐 초가 요만큼 남아서 달랑달랑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혼백을 찾아 가지고 와서 다시 넣으니까 그 어린애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 다시 안겨주고 그 스님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환상천 불사천 무명천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실존한다는 거를, 생전에 불이 뜨겁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불사천에 불이 활활 타는 걸 보면 뜨거워서 지나가지 못하고,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의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 건너가는구나, 거길 넘어서지 못하는구나."하면서 하하 웃었답니다.

마음은 체가 없다고 수차에 말했습니다. 체가 없는 마음은 실존하지 않는 그림자에 놀래서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잠재의식의 판단이 왼쪽에 있고, 바른쪽에는 지금 현상세계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골수에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게, 즉 말하자면 한데 합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까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아야만 됩니다.

악도 놓고 선도 놔라. 동서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구하려고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이 천궁으로 변하고 지옥 중생이 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중생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옥을 천궁행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니라. 실천을 하는 실천궁행이 아니라면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그러시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아리송하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계율이 350계가 있고 280계가 있지만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 오계 십계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 계율을 지키기 이전에 나 하나만 죽는다면 계율이 다 떨어지죠. 나 하나만 죽는다면…. 그래서, 이거 잘 들으십시오. "모든 착을 놔라, 하는 거. 모든 것은 주인공에 맡겨놔라 하는 겁니다. 첫째, 맡겨놓으니 습이 떨어질 것이요, 습이 떨어지니 나를 발견을 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니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을 것이요, 하나 버릴 게 없으니 둘이 아닐 것이요, 둘이 아니니 둘이 아니게 나툴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그것도 이름해서 대도니라."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 놓는다. 참으로 놓는 데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한테, 이것은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이 아니다.' 하고 다 가셔도 할 수 없는 거고…. 나는 그렇습니다. 이날까지 그렇게 살아 왔으니까, 갈 테면 가고 올 테면 오고 자유니까. 이게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야지 대도를 이루지, 만약에 스스로가 아니고 누가 하래서 한다면 이건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망상에 끄달립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못났든지 잘났든지 석존이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석존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면 내 맘부터 알아야 석존의 마음을 꿰뚫어 보죠. 내 집의 전화통부터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부터 알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 일임해서 믿고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존께서도, 어느 신도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석존을 한 번 뵙기를 원을 했죠. 근데 몸은 일으킬 수가 없고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한번 들려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몸을 일으키려고 좀 부축해 달라고 하니까, "몸이 네가 아니니라. 몸은 구름 한 쪽과 같고 꽃 이파리 한 쪽과 같고 가을에 가랑잎 하나 떨어지는 거와 같고 바람결 같으니라. 인생은 물 흘러가는 듯 하다. 그러니 네 몸을 일으킬 생각은 말고 네 마음이, 그렇게 지극하게 나를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바로 참다운 네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 뜻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니 네 마음이 정히 그렇다면 내 마음을 보라. 내 육체를 볼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보라. 네 마음을 그렇게 지극하게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볼 수 있느니라."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일평생에 부모형제 · 자식의 착을 놓지 못하더니 결국에 네 집도 착을 놓지 못했구나. 오늘부터 네 집의 착을 놓아라."하시면서 "일평생을 이 몸을 집을 삼아서,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걸 입혔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운 걸 입혔고, 아끼고 씻기고 맛난 걸 먹이고 신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먹이고 했건만 내가 지금 간다 하더라도 네 몸뚱이는 너를 따라갈 수 없느니라."하셨듯이 그 모든 것에서 착을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을 떼어야 한다고 재산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공이 이끌어주실 거다 하고 탁 맡겨놓으면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를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따뜻하게 해준다면, 바깥에서 추우면 따뜻한 데로 고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나중에는 효자가 되고, 정말이지 인간의 도리를 알아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의 자식이 될 겁니다.

☞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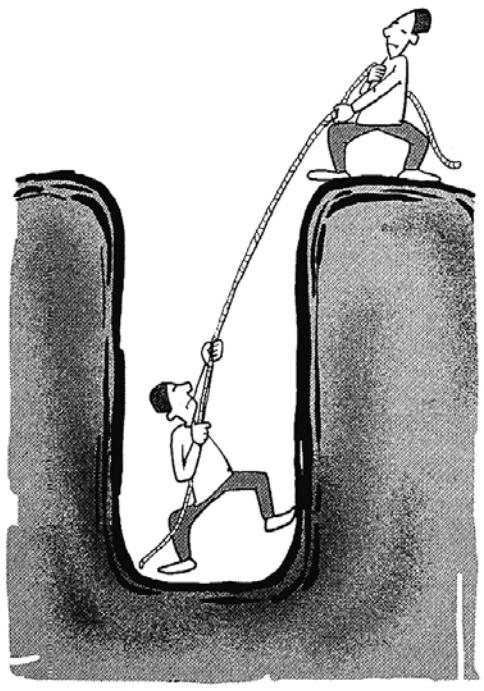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순간순간 화해서 돌아가니 고정됨이 없는 찰나생활

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별적인 대(對)가 없는 것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립니다. 한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걸 일러 드리겠습니다.

'공(空)이 색(色)이요, 색이 공이니라' 한 것은, 고정됨이 없이 찰나 생활을 하는 것을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화(化)해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화해서 찰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정되게 보고, 고정되게 듣고, 고정되게 가고 오고, 고정되게 먹고, 고정되게 만나면서 머물러져 있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리요, 길이요 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승 소승이 없습니다. 왜? 간편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밥상을 차리는데 접시도 있고 종지도 있고 사발도 있고 대접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올 때는 큰 접시에 음식을 다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승 소승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지는 못 쓰고 대접만 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지만 가지고 어떻게 상을 차리며 큰그릇만 가지고 어떻게 상을 차리며, 접시만 가지고 어떻게 상을 차립니까?

일체 만법을 일심(一心)으로서 들이고 낼 때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몽땅 걸리지 않게 버려서 몽땅 갖추어 가지고 있게 만드는 실천궁행하는 법입니다. 실천이 아니라면 부처님께서 정법을 가르치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론으로만 팔만대장경을 달달달 외우고 위로 꾀고 옆으로 꿴다 하더라도, 아주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그릇 마시는 것 보다 못합니다. 이거를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는 이차로 생각할 바고, 진짜 배고프고 목마를 때 냉장고 문을 확 열고 물 한 그릇 쭉 마시고 난 뒤에야 죽고 사는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찰나의 행이요, 중용이요, 우리들 사는 것이 바로 불법이요 참선이며, 그대로 행선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물 마시는 데 무슨 이론이 거기 들어갑니까? 거기 무슨 이의가 붙습니까? 비행기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의 몸과 가정과 사회 · 국가 · 세계적으로, 아니 우주적으로 손아귀에 넣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원통력을 길러서 원심력으로서….

즉 말하자면 부모라는 가설이 되어 있고 자식이라는 가설이 된 겁니다. 전기 스위치 올리니까는 거기까지 다 볼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만법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따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이유가 어디 붙겠습니까?

예전에 뉴욕에서 환자 분이 부축을 받고 왔습니다. 십 년이나 앓고 있어서 힘들다고 합디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아프면서도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래도 꼭지가 안 떨어져서 서울까지 나왔답니다. 와서 날더러 '이 병이 10년이 가도 안 낫습니다.' 하길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내놓는다면 병을 고쳐주리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로 가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말입니다. 거기서 탁 트여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생각으로 인해서 자기를 구덩이다 넣을 수도 있고 한생각으로 인해서 구덩이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도 있는 마음의 도리,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꿈을 꾸고도 '잘못 꿨으니까 오늘 조심해야지, 이것 참 나쁜 꿈인데.' 하고 걱정 근심을 하면 꼭 나쁘게 돌아갑니다.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합니다. 우리 살림살이는 시공이 없이 돌아갑니다. 머물러져 있지를 않아요. 안되는 것도 한찰나요, 되는 것도 한찰나라. 그러니 다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금방 좋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믿으란 말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 자성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겁니까?

그리고 착을 떼라는 건, 여기 제주의 여러분은 부적도 써다 붙이고 잘된다 못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기복으로 많이 다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여버려라 하는 것은, 찰나의 생활이니까 잘못된다 잘된다를 떠나서 모든 걸 주인공,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가정도 있고, 우주도 있고, 부처도 있고 그렇지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아요? 나부터 알아야지! 모두 각자 나부터 알아야 남을 주기도 하고 보살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원심력이 생겨요.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두루 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 물질적으로 수억 검을 거쳐 나오면서 인간이 되기까지 진화되면서 살아온 그 습, 인간이 됐으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을 떼려면 '용광로와 같다, 내 주인공은 일체 우주와 천지가, 태양, 모든 혹성과 별성들이 모두 다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으니 직결이 돼 있는 내 주인공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사회도 내가 마음먹는 대로 직결되게끔 돼 있으니까 나부터 알게 되면 차차 실험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나를 진실으로 믿게 되고, '아하! 나뿐이 아니로구나! 일체제불과 일체 조사들이 다 직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색경에 비치는 그 그림자가 나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묻어 줄 사람도 없으니까 갖다가 묻고서는 엉엉 울고 앉았는데, 금방 묻는다 하더라도 손으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 가장구를 꺾어서 놓고 포대기로 둘둘 말고선 거기다가 솔 이파리로 덮어놨습니다. 땅이 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아이가 또 춥다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벗어서 더 덮어주면서 어머니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가시다가 그걸 봤습니다. "왜 부인께서는 이렇게 우십니까?"하니까, 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이든 육신의 행이든 똑같단 얘기죠. 행이 없으면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 죽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왜 우느냐고 하니깐 "먹을 게 없어서 남편은 일하러 갔는데 이렇게 9대 독자가 죽었습니다."하고 울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 앉아서 "보살님! 이 촛불이 꺼질 때까지 계십시오. 이 촛불이 꺼지면 나는 오지 못합니다."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냥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어딜 갔느냐 하면 환상천을 들르고 무명천을 들러서 불사천에 갔는데 그 애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불사천을 거쳐서 생사천에 가야 이리로 천도가 다시 되든지 뭘로 되든지 하는데 아! 불사천에 이름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이 스님이 거기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사천왕을 찾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들어와 있지 않으니 무명천에 가보라고, 무명천에 가면, 즉 말하자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와 있으니까 거기 가보라고 하길래 거길 가서 관리인한테 그 어린애 영혼을 받아 가지고, 참 그만큼 직결돼 있는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죠. 그래서 혼백을 다시 가지고선 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깐 초가 요만큼 남아서 달랑달랑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혼백을 찾아 가지고 와서 다시 넣으니까 그 어린애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 다시 안겨주고 그 스님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환상천 불사천 무명천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실존한다는 거를, 생전에 불이 뜨겁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불사천에 불이 활활 타는 걸 보면 뜨거워서 지나가지 못하고,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의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 건너가는구나, 거길 넘어서지 못하는구나."하면서 하하 웃었답니다.

마음은 체가 없다고 수차에 말했습니다. 체가 없는 마음은 실존하지 않는 그림자에 놀래서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잠재의식의 판단이 왼쪽에 있고, 바른쪽에는 지금 현상세계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골수에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게, 즉 말하자면 한데 합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까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아야만 됩니다.

악도 놓고 선도 놔라. 동서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구하려고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이 천궁으로 변하고 지옥 중생이 다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중생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옥을 천궁행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니라. 실천을 하는 실천궁행이 아니라면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그러시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아리송하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계율이 350계가 있고 280계가 있지만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 오계 십계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 계율을 지키기 이전에 나 하나만 죽는다면 계율이 다 떨어지죠. 나 하나만 죽는다면…. 그래서, 이거 잘 들으십시오. "모든 착을 놔라, 하는 거. 모든 것은 주인공에 맡겨놔라 하는 겁니다. 첫째, 맡겨놓으니 습이 떨어질 것이요, 습이 떨어지니 나를 발견을 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니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을 것이요, 하나 버릴 게 없으니 둘이 아닐 것이요, 둘이 아니니 둘이 아니게 나툴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그것도 이름해서 대도니라."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 놓는다. 참으로 놓는 데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한테, 이것은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이 아니다.' 하고 다 가셔도 할 수 없는 거고…. 나는 그렇습니다. 이날까지 그렇게 살아 왔으니까, 갈 테면 가고 올 테면 오고 자유니까. 이게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야지 대도를 이루지, 만약에 스스로가 아니고 누가 하래서 한다면 이건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망상에 끄달립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못났든지 잘났든지 석존이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석존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면 내 맘부터 알아야 석존의 마음을 꿰뚫어 보죠. 내 집의 전화통부터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부터 알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 일임해서 믿고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존께서도, 어느 신도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석존을 한 번 뵙기를 원을 했죠. 근데 몸은 일으킬 수가 없고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한번 들려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몸을 일으키려고 좀 부축해 달라고 하니까, "몸이 네가 아니니라. 몸은 구름 한 쪽과 같고 꽃 이파리 한 쪽과 같고 가을에 가랑잎 하나 떨어지는 거와 같고 바람결 같으니라. 인생은 물 흘러가는 듯 하다. 그러니 네 몸을 일으킬 생각은 말고 네 마음이, 그렇게 지극하게 나를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바로 참다운 네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 뜻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니 네 마음이 정히 그렇다면 내 마음을 보라. 내 육체를 볼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보라. 네 마음을 그렇게 지극하게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볼 수 있느니라."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일평생에 부모형제 · 자식의 착을 놓지 못하더니 결국에 네 집도 착을 놓지 못했구나. 오늘부터 네 집의 착을 놓아라."하시면서 "일평생을 이 몸을 집을 삼아서,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걸 입혔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운 걸 입혔고, 아끼고 씻기고 맛난 걸 먹이고 신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먹이고 했건만 내가 지금 간다 하더라도 네 몸뚱이는 너를 따라갈 수 없느니라."하셨듯이 그 모든 것에서 착을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을 떼어야 한다고 재산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공이 이끌어주실 거다 하고 탁 맡겨놓으면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를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따뜻하게 해준다면, 바깥에서 추우면 따뜻한 데로 고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나중에는 효자가 되고, 정말이지 인간의 도리를 알아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의 자식이 될 겁니다.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건져낼 수도 있는 한생각

까요?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겁니다.

그 참, 대법(大法)을 가지고 계신 불보살님들 역대 조사들을 생각하면서 남의 나무에 과실이 잘 열리고 만 가지 맛이 나고 무르익었어도, 내 나무에 열린 거는 우습고 내 나무에 열린 거는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잘 가꾸어서 무르익게 만들어서 만 가지 맛이 나게 한다면 남도 주고 나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나무에 잘 열렸다고 해서 그거를 먹으려고만 애를 쓰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런 얘기가 있죠. 예전에 어떤 큰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기 제자더러 하는 소립니다. "저 마을에 내려가니까 말이야, 줄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익혀서 냄새나는 거를 탁 묶어놓고 말이야, 그 묶어 놓은 거기에 개를 눈을 가려놓고 코에다 대주니까 장난들을 하는데 냄새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 눈을 가렸으니 그 개는 눈 가려진 것부터 끌려야 그걸 먹을 텐데, 자기 눈 가린 거는 모르고 그걸 틔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냄새 나는 것만 먹으려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서 온통 애를 쓰니 얼마나 우습던지, 내가 올 때도 웃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스운데 너는 우습지 않느냐?"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가 가만히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큰스님께서는 지금 저더러 들어보라고 그러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우스워서 죽겠다."하니까 "내 눈부터 틔우고 내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행하는 것을 지금 알라는 뜻인데, 만약에 그걸 모르면 내 눈을 뜨지 못하는 격이다 하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하니까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라." 하거든요. "누구든지 저부터 알아야 제 눈이 떠지고 제 귀가 떠지고 모든 것을 실천궁행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니라. 실천을 하는 실천궁행이 아니라면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그러시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아리송하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계율이 350계가 있고 280계가 있지만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 오계 십계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 계율을 지키기 이전에 나 하나만 죽는다면 계율이 다 떨어지죠. 나 하나만 죽는다면…. 그래서, 이거 잘 들으십시오. "모든 착을 놔라, 하는 거. 모든 것은 주인공에 맡겨놔라 하는 겁니다. 첫째, 맡겨놓으니 습이 떨어질 것이요, 습이 떨어지니 나를 발견을 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니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을 것이요, 하나 버릴 게 없으니 둘이 아닐 것이요, 둘이 아니니 둘이 아니게 나툴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그것도 이름해서 대도니라."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 놓는다. 참으로 놓는 데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한테, 이것은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이 아니다.' 하고 다 가셔도 할 수 없는 거고…. 나는 그렇습니다. 이날까지 그렇게 살아 왔으니까, 갈 테면 가고 올 테면 오고 자유니까. 이게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야지 대도를 이루지, 만약에 스스로가 아니고 누가 하래서 한다면 이건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망상에 끄달립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못났든지 잘났든지 석존이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석존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면 내 맘부터 알아야 석존의 마음을 꿰뚫어 보죠. 내 집의 전화통부터 놔야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부터 알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 일임해서 믿고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존께서도, 어느 신도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석존을 한 번 뵙기를 원을 했죠. 근데 몸은 일으킬 수가 없고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한번 들려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몸을 일으키려고 좀 부축해 달라고 하니까, "몸이 네가 아니니라. 몸은 구름 한 쪽과 같고 꽃 이파리 한 쪽과 같고 가을에 가랑잎 하나 떨어지는 거와 같고 바람결 같으니라. 인생은 물 흘러가는 듯 하다. 그러니 네 몸을 일으킬 생각은 말고 네 마음이, 그렇게 지극하게 나를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바로 참다운 네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 뜻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니 네 마음이 정히 그렇다면 내 마음을 보라. 내 육체를 볼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보라. 네 마음을 그렇게 지극하게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볼 수 있느니라."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일평생에 부모형제 · 자식의 착을 놓지 못하더니 결국에 네 집도 착을 놓지 못했구나. 오늘부터 네 집의 착을 놓아라."하시면서 "일평생을 이 몸을 집을 삼아서,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걸 입혔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운 걸 입혔고, 아끼고 씻기고 맛난 걸 먹이고 신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먹이고 했건만 내가 지

맡겨놓으니 습이 떨어질 것이요 습이 떨어지니 나를 발견하게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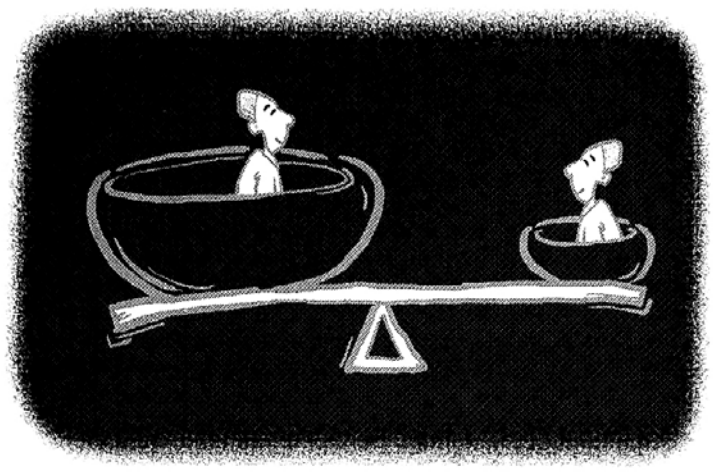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17면에서 계속

그러니 우리가 모든 착을 놓고 사랑을 한다면 밉다 곱다도 생각 말고 그저 만나면 좋은 말 해주고 "애! 굶지나 않고 다녔니? 나가서 며칠 밤이 됐으니 어디 가서 잘 먹었는지 굶지나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아무리 미운 생각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탁 내던져버리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 자각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도 어머니가 야단을 치시지 않고 부드럽게 말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언젠가는 눈물이 줄줄 흐를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착해지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역시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행을 한다면 금방 고쳐집니다. 밀더라도 거기다 팽개치세요.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맡겨놓고 관한다면 여기 제주의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어디에 내놔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인간으로서 자유성을 가지고 자유자재하면서 자식들에게 새 빛을 줄 수 있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위로는 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묵은 빚을 갚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자식들을 기를 때 부모는 100% 다 줄 수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용서할 수 있는데 자식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리가 그러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 그거를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마시고 '의례 그러려니, 나도 자식노릇을 했을 때 그랬더라.' 하고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량과 지혜를 갖는다면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억울함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착을 떼고 사는 사람은 분할 것이 없지만 착을 가지고 '내가 너를 어떡해서 길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너 장가들고 이렇게 나를 버렸느냐.' 하면서 전과 같이 않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요, 얼구절구 기른 자식을 자꾸 속상하게 만들어 주고 오래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길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하십시오. 진짜로 사랑한다면 놔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다섯을 낳아놓고 고만 부인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같이 한푼한푼 벌어서 좀 먹고 살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철물점을 하는데 아주 부자 부럽지 않게 되었는데 남편이 나이 어린 이쁜 마누라를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인이 울고불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면 놔줄 수 있지 않느냐. 남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 그냥 가난에 찌들리고 어려서 장가들었으니 당신하고 뭐 이 애정이 있겠느냐. 한번 가서 살아본다는데,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누이동생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면 놔줘라. 그러고 들어오면 따뜻하게, "여보, 요새 잘 자시고 다니시오. 어쨌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나도 좋겠지요." 하면서 그저 보약이래도 있으면, 없으면 할 수 없고 있으면 다려서 병에 담아서 그 집으로 심부름을 시켜서 보내고, 또 그것도 싫다면 고만 두고, 싫다는 거 일부러 하지 말고 만나는 게 싫다 하면 만나지도 말고 편안하게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인은 내 말을 듣고 잊어버리고 살 양으로 그저 장사라도 하려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작은 부인이 거덜나게 만들었어요. 쓴 사이도 없이 거덜이 났거든요. 작은 마누라가 그냥 죄 긁어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니까 그 남편이 미안해서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없고 안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바깥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부인이 그랬습니다. "여보, 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선에 혼자 있을 동안만이라도 애들의 아버지가 돼 주고, 나는 그저 당신 뒷바라지한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편안하게 만날 사람 만나고 하시오. 애들한테는 당신이 하늘이고 기둥이고 주춧돌인데 만약에 당신이 쓰러진다면 큰일나지 않소. 나는 어쨌든 간에." 그러곤 눈물을 흘리니까 "참, 당신은 사람도 아니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소."하면서 "그래, 질투도 안 나오?"이러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질투를 낸다면 당신이 얼마나 괴롭겠소."하니까 그때서부터 마음을 잡아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그 마누라를 세련되게 만들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나중에 얻은 여자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거 보고 난 왔습니다마는 지금 십이층이라나 십삼층이라나 빌딩을 가지고 잘 삽니다.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은 억울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러주던 스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안되더라는 거죠, 얼마 가지도 않아서 안되더라 이거야. 그거는 인내가 필요한 건데 말이죠.

> 석존의 마음 꿰뚫어 보려면
> 자신의 마음부터 알아야

그리고 여러분이 시주를 하시더라도 함이 없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주하는 것도 주인공에 아주 지극 정성으로 다 놓을 수 있는 분이라면 시주를 해도 함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 가지고 오려면 돈을 주는데 돈 준 것만 생각을 하고 물건 가져오는 거는 생각 안 합니다. 돈 준 거를 뇌리에 꼭 새겨둡니다. 돈을 주고서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가져갈 생각도 안하고 그냥 돈만 주고선 있으니 그 사람 오면 돈 줘야겠다 하고 있으니 물건이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돼도 안 되더라. 그러니 돈 내놔라.' 이럴 수 있는, 백에 하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백, 아니 수천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자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스물 몇 살서부터 이러니까요. 그랬는데 참 그때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가 자유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 그린 그 백원, 그걸 세 개 씩 갖다 놓고도 그냥 갔거든요. 써놓고 가고,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냥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그냥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네들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지만 삼분의 일은 그렇게 가지 않고 방황하는 거 같습니다. 왜, 삼분의 이는 그렇게 가는데 삼분의 일은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 누가 밥도 못 먹을 지경이라면 도와서, 학비를 못 낸다 하면 도와서 해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조금 더, 정말 절이 자리가 잡히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죠. 앞의 것 해결치 못하고 뒤의 것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이 학비를 못 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먼 데 것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앞에서부터 해나가야지. 그러기 때문에 시주가 많이 들어와도 없는 신도님들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고 감이 없이 그 뼈저리고 눈물어린 마음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가련한 자기 의식 자체에 과거로부터 자기를 끌고 다니고 있는 그 마음을 믿고, 자기 과거에 살던 의식을 현재의식이 믿고 주인공이라 칭한 것이니까, 주인공이라 칭한 것은 고정됨이 없이 찰나이고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니 거기에 직결돼 있으니까 모든 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놓고 사신다면, 우리가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안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좋게 됐다는 생각이 들면 '감사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이죠. '당신밖에는 즐겁게 해줄 수 없어!' 하구선 놓고, 안 될 때에는 '당신밖에 병을 낫게 할 수 없어!' 그러고 '당신밖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어!' 하고 거기 놓을 때 바로 그게 돌아갑니다. 체가 없는 거니까. 광명과 같고 전력과 같고 자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력과 전력과 광력이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력이 한데 합쳐지고 부합이 되니까 통신력도 생기고 거기에서 광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밝음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바로 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다니는 겁니다. 흙은 흙대로 자력으로 끌어 잡아당기고, 자력으로 끌어 잡아당기기 때문에 여기 붙는 겁니다. 이런 도리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들어가면 천체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또는 의학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전체 종합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놓은 것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서 없이 여러분 앞에 얘길 했지만 여러분은 자기와 자기 마음을 변치 말고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끌고 나온 자기 주인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런다면 정말이지 주인공 죽이는 법이 없이 끌고 갈 겁니다. 주인공이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놓고 우리 도반으로서 열심히 해봅시다. 꼭!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9년 9월 24일 제주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대) (02)737-6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청아출판사
www.chungabook.co.kr 전화 337-3485(대) FAX 336-2381

외로운 가을, 당신의 마음에 달라이 라마의 행복이 밀려옵니다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 | 강주헌 옮김 | 신국판 변형 | 값8,500원

"사랑하는 마음과 연민의 정을 키웁시다!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충고가 무척이나 간단한 것이지만 이 충고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존재, 심지어 우리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두려워하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에게도 행복해지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만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걱정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를 걱정해주듯이 우리 적을 걱정해주십시오. 이때서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조금의 가식도 없는 순수한 연민으로 삶의 인륜, 상황, 역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짤막한 조언들을 담았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호탕한 웃음까지 터트리면서 달라이 라마의 진심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비로 살아 있는 부처, 달라이 라마가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풍성한 가을 … 자녀들과 함께 볼만한

이색전시회 3곳



◇노벨상 역대 수상자들(위)과 '인체의 신비'(오른쪽) 전시 모습.

가을을 맞아 자녀와 함께 볼만한 문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열린다.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회 세 곳을 소개한다.

호암재단(이사장 이현재)과 스웨덴 노벨재단 공동주최로 11월 3일까지 서울 태평로 로댕갤러리에서 열리는 '노벨상 100주년 기념전'은 2001년 노벨상 제정 1백돌을 기려 열렸던 기념전의 세계 순회전이다. 지난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작해 노르웨이, 일본에 이어 해외에서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창조성의 문화(Cultures of Creativity)-개인과 환경'을 주제로 한 이 전시에서는 유언장, 유품 등으로 이뤄진 노벨의 생애, 7백명 수상자들의 브로마이드 퍼레이드, 수상자들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관, 폴란드 출신의 여성 과학자로 두 번이나 노벨상을 받은 마리 퀴리 등 여성 수상자 코너, 아시아의 평화상 수상자들을 모은 평화관 등을 볼 수 있다. 2000년 노벨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수의(囚衣)와 옥중서신 등도 전시된다. 02)2259-7781 (www.nobel100.com)

노벨상 1백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로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경희궁 안 옛 서울시립미술관 600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노벨 문학상 101년과 영화전'도 있다.

헤르만 헤세 박물관이 주최하는 이 기획전은 1901년 프랑스의 쉴리 프뤼돔부터 2001년 영국의 네이폴까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수상자 98명의 서적과 미술품, 유품, 친필문, 사진 등 관련 자료와 영화 및 기록 필름으로 제작된 작품 1천여 점을 선보인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꼽히는 소설가 고은, 박경리, 황석영 씨 등 국내 작가들의 영역(英譯) 작품도 전시된다. 02)737-4001

"이 전시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증해 주신 분들을 위해 경건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관람 바랍니다"라는 팻말로 전시가 시작되는 '인체의 신비, 한국 순회전'도 놓칠 수 없다.

지난 4월 개관 이후 약 90여 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이 전시회에서는 일반인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몸'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노벨상 1백년 기념전'

노벨상 역사 · 수상자 육성 한자리에…

'인체의 신비'

실제 인체 표본을 예술품처럼 처리

실제 인체 표본을 예술품처럼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독일의 해부학자 군터 폰 하겐스(Gunther Von Hagens) 박사가 만든 200여 점의 인체 표본이 전시되어 있다. 프라스티네이션이라는 특수 고형 기술을 이용해 원형을 보존한 사람의 사체와 5개월 된 태아가 들어 있는 배를 열어 보이는 임신부, 뇌와 전신이 연결된 신경계통이 보이는 남성의 전신, 담배를 피워 시커멓게 변한 허파와 정상 허파 등 '충격적인' 장면도 펼쳐진다. 이 전시는 국립서울과학관에서 내년 3월 2일까지 계속된다. 02)741-3951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28일 이대서 '여성축제…옴'



'여성의 몸과 마음을 열고 세상과 마주보는 축제, 여성문화의 울림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축제 옴(The Sound Of Womb)'이 온다'

여성문화예술기획 창립 10주년과 한국여성민우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 '옴'이 28일 오후 6시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다.

공연의 제목인 'The Sound Of Womb''은 '자궁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라는 뜻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에서 나오는 평화와 희망의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의 사회는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 현경 교수가 맡았고 무용가 홍신자 씨의 또한 미국 최초의 여성잡지 〈미즈Mis〉를 창간한 '미국여성운동의 살아있는 전설'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특별 출현한다.

자녀와 함께 참가하는 관객을 위해 공

홍신자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 펼쳐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출연

소리 퍼포먼스와 가수 한영애 씨의 공연, 타악기 연주 그룹 공명과 캐나다 인디언 뮤지션 인디언팀의 공연 등이 펼쳐진다.

연 중 일일 놀이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희망석 5만원, 평등석 3만원. 02)737-5763

고혈압 · 당뇨 등에 탁월한 '연옥단주'

염주는 수주(數珠)라고도 하며 예배할 때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는 법구의 하나로 불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불교 용품 중 하나다.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연옥단주'는 단단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연마하면 순한 광택이 나는 연옥으로 만들어진 염주다.

옥은 예로부터 고혈압과 당뇨, 혈액순환, 관절염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값 7천원.



여성단신

나눔의 집 수강생 모집

매주 수 · 목 조계사서 교육

나눔의 집(원장 능광 스님)은 오는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위안부의 실태와 대화기법, 자원봉사활동 역할 등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4만원. 031)768-0064

가정 법률상담소 '결혼강좌'

내달 7일부터 4주간 열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미혼남녀를 위한 결혼강좌를 연다.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에 걸쳐 열리는 이번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곽배희 소장과 가정문제상담가 우애령 씨가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결혼과 자아' 등을 강의한다. 02)580-5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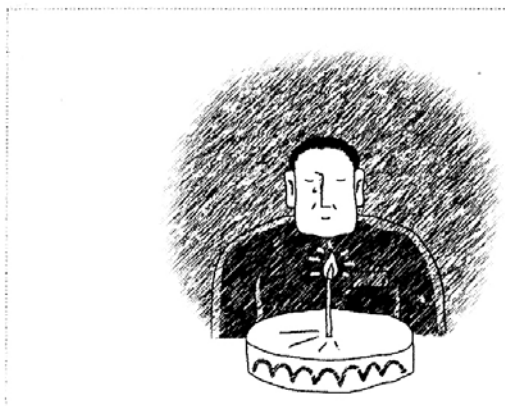
인천, 여성회관 건립된다

편의시설 완비 2005년 완공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어학실과 도서관 등을 갖춘 여성회관이 건립된다. 서구는 오는 2005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1천㎡ 규모의 여성회관을 건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성회관에는 어학실, 취미교실, 도서관, 강당, 수영장,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주부 신행담

내 삶에 주어진 인연 下 김필연 (불교여성개발원 복지위원장)



2000년 포교원의 계획에 따라 불교여성개발원이 창립되면서 복지분과 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의 80%정도인 여성들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곳이다. 복지분과 위원장이 된 나는 평소 교회 활동을 해 본 경험으로 청소년 교회 활동을 하기로 했다. 김천교소도에 매달 첫째 토요일에 교회활동을 하러 간다. 우리는 무연고자들 10명을 대상으로 간식도 마련하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처음에는 말도 안하고 거리감을 두던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편안한 모습에 놀랐다. 그들을 항상 그 안에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단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약에 불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겠느냐고 나에게 물어본다.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길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싶다.

나는 여성의 전화 상담을 10여 년 동안 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불행한 여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다보면 왜 사

스무살, 첫 생일 케이크에 감동

부처님 뜻 알림에 전화 한통 소중

아이들도 이제는 우리를 기다려 정해진 날짜에 가지 않으면 너무 기다려 미안할 정도다. 이제까지 버려진 마음을 헤아려준 사람이 없었던 그들은 우리들로 인해 지난 죄를 뉘우치며 새 삶에 힘이 된다고 한다. 어느 수용자의 생일날 케이크를 가지고 가서 생일 축하를 해주었더니 20년만에 생일 케이크를 처음 받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어두운 곳에 조금의 빛이라도 되어 준다고 생각하니 피곤한 것도 잊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더 밝은 곳으로 인도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게 된다.

얼마 전에는 어느 법사님의 부탁으로 서울구치소에 최고수(사형수) 교화를 부탁받았다. 처음에는 최고수라고 하여 너무 부담스럽고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여 많이 망설였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뜻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불행의 도가니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부처님 공부를 하면 욕심 버리는 법을 배우는데 그 법만 알면 삶이 다 편안할 것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걸려 오는 전화 한 통 한 통을 소중하게 받는다.

전에 채워지지 않던 마음들이 이제야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나를 위하는 삶보다,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면 채워진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봉사는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부처님의 뜻대로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어둡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리라고 다시 한 번 부처님 전에 기도해 본다. (끝)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6-4422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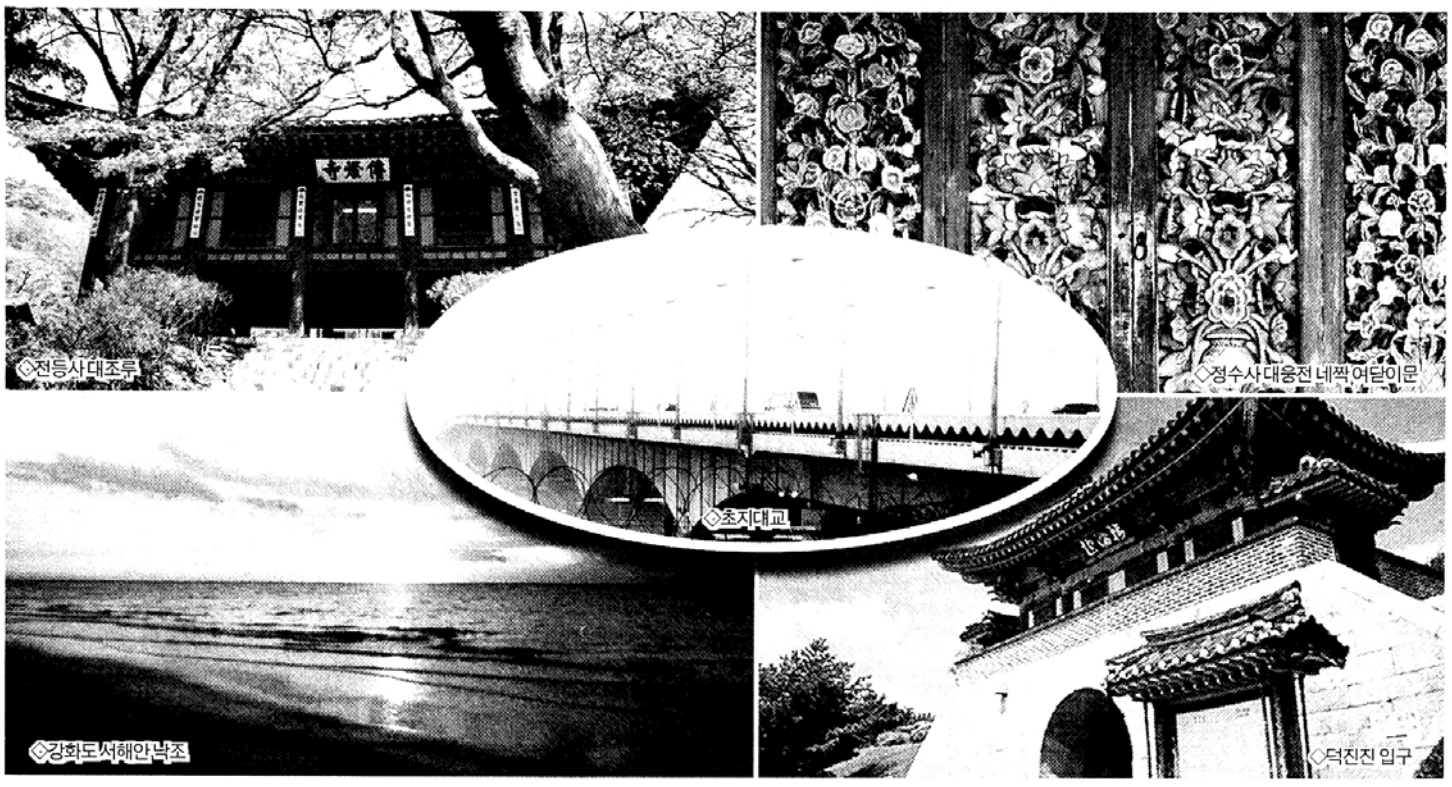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敬仰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問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역사 · 낭만이 함께하는 '강화'

초지대교 개통 … 더 가까워진 여행명소로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섬인 강화도. 섬 전체는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역사유적들이 그득한 거대한 역사 박물관이다.

이 볼거리 많은 섬이 지난달 29일 초지대교의 개통으로 한발짝 더 가까운 여행명소로 다가왔다.

초지대교로 명명된 제2강화대교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강화도 동남쪽 길상면 초지리를 연결하는 길이 1200m, 왕복 4차선의 다리. 이에 따라 강화대교로만 몰리던 차량 소통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초지대교를 오가며 둘러볼 만한 곳들을 소개한다.

전등사

화려한 옛 건축 · 약사여래 미소 간직

이 절은 본래 고구려 소수림왕 11년 아도화상이 창건, '진종사' 라고 이름지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정화공주가 송나라에서 가져온 대장경 중 경덕전등록을 이 절에 보관케 하면서 '전등사' 로 다시 바뀌었다. 전등사 당우는 보면 볼수록 그 깊은 맛이 우러난다. 우선 보물 178호인 대웅전은 비록 빛바랜 단청 때문에 지나치기 쉽지만 배흘림기둥과 봇머리의 조각이 화려하다.

보물 179호인 약사전의 약사여래상은 인자한 웃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축원한다. 이밖에 정화궁주가 시주했다는 옥등과 중국에서 주조해온 범종, 청동수조 등 볼거리들이 많다. 숨겨진 즐거움이 또 있다. 삼랑산성을 돌아볼 수 있는 길을 찾아 내면 1시간 가량 호젓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언덕에 오르면 서해가 시원스레 펼쳐지고 강화해협 쪽의 국방유적지 초지진과 광성보가 한 눈에 들어온다. (032)937-0125

정수사

산사정취에 이방인 마음 사로잡고…

신라때 창건한 절 '정수사' 에는 17세기 건물 대웅보전 중앙 출입문인 네짝여닫이문(보물 제 161호)의 모란꽃 창살이 매우 아름답다. 통나무를 손으로 파내 만든 문살은 고건축양식에서도 특이한 장식으로 꼽힌다. 신라 선덕여왕 8년(639) 회정선사가 창건해 정수사(精修寺)라 했던 것을 조선 세종 5년(1423) 함허대사가 중창하면서 법당 서쪽의 맑은 물을 발견하고 한자를 고쳐 정수사(淨水寺)로 고쳤다.

특별히 주목할 문화재는 없지만 언제나 소슬한 적막만이 감도는 산사의 정취가 마음을 움직이고, 바위의 작은 틈을 조그만 동자상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모습도 한 없이 정이 간다. 입구에서 대웅전까지 펼쳐진 1㎞의 숲길이 울창하다.(032)937-3611

대곶면

포도도 맛보고 삼림욕도 즐기고…

덕포진 가는 길목의 대곶면에는 출하를 앞둔 포도밭이 탐스런 포도송이를 매달고 있다. 대곶면은 유명한 포도산지다.

덕포진교육박물관

아련한 학생시절 추억 되살려줘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동선(61) · 이인숙(55 · 시각장애인)씨 부부가 운영하는 개인 박물관이다. 각급 학교 배지 · 교과서 · 교복 · 문구류 등 7000여점의 옛 학교생활 용품들이 전시돼, 아련한 60년대 학생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준다. 3학년2반 팻말의 교실에는 조그만 책걸상들과 풍금, 조개탄 난로가 놓여 있고, 난로 위엔 알루미늄 도시락들이 층층이 쌓여 있다. 또 50여년된 풍금, 배불뚝이석탄난로, 찌그러진 양은주전자에 빛바랜 50년대 교과서와 성적표 등이 전시돼 있고, 한쪽편에는 수업시간을 알려주던 종도 걸려 있다.

방문객들이 원하면 김 · 이 부부가 교사로 나서, 풍금을 치며 음악수업(이씨)을 해주거나, 30년전 생활문화 수업(김씨)을 진행한다. 3학년 2반은 이씨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담임반이었다. 입장료 어른 1500원, 어린이 1000원. (031)989-8580

손돌목과 대명포구

역사 체험하며 꽃게축제 참가

손돌은 조선시대의 한 왕(인조로 추정)이 난을 피해 강화도로 피신할 때 배를 몰았던 뱃사공이다. 위험한 여울쪽으로 노를 젓자 왕이 의심해 손돌을 처형했으나, 건넌 뒤에야 손돌의 말이 옳았음을 알고 후회했다고 한다. 썰물이 빠지며 급물살을 이루는 이곳을 손돌목이라 부른다. 부근 대명포구는 꽃게 집산지다. 11월말까지 꽃게축제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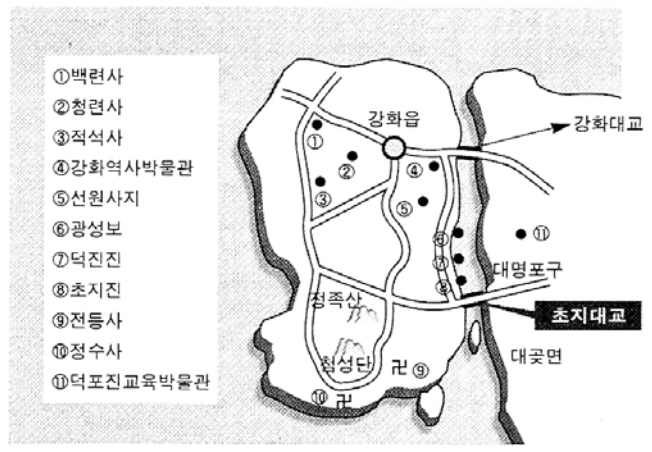
강화역사박물관

시대별 강화 한눈에 볼 수 있어…

강화역사박물관에 들르면 강화도의 역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2층 건물에 선사시대부터 고려 · 조선 · 대한제국시대 역사가 시대별로 정리돼 있다. 부근에 강화 53돈대중 하나인 갑곶돈대가 있다. 돈대란 군사요충지로 이용된 높직한 평지를 말한다. (032)933-3692.

찾아 가는 길

초지대교 쉽게 찾아 가는 길=서울 올림픽대로를 이용, 김포시 누산리 방면으로 가다 양곡우회도로에서 우회전한 뒤 352번 지방도를 지나면 초지대교 입구에 도착한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IC를 빠져나와 김포시청 방면으로 간뒤 양곡사거리에서 대명리 입구로 들어서면 초지대교와 이어지는 접속도로를 탈 수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 검단을 지나 김포 양곡방면으로 가다 양곡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초지대교로 이어지는 접속도로를 만난다.



레저 담당=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新 동의보감 (9)



김 승 수

한의학 박사 · 송암한의원 원장

알러지 천식

환절기 찬기운에 폐기능 약화 원인

기력 충분히 보충 · 환경적응 치료를

찬바람이 나면서 기침, 특히 알러지 천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숨이 참을 느끼고, 갑작스러운 기침, 호흡곤란, 천명, 객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기도하고 가래를 가랑거리는 증상을 보인다. 그리고 천식은 특징적으로 발작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천식이 있었느냐는 듯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환절기에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천식 치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는 점이다.

알러지 천식과 관련 있는 한의학적 증후는 효천(哮喘), 담천(痰喘) 등으로 해석하며, 한의학에서 기침의 기전을 "몸이 차고 음식을 차갑게 하면 폐기운을 상한다(形寒飮冷則 傷肺)"라고 설명한다. 즉 겨울철이나 환절기 그리고 밤에 기침이 심해지는 까닭은 찬 기운 때문에 폐기능이 약해져서 라는 것이다. 그리고 천식 치료의 관건은 폐기능의 정상화에 달려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한의학적인 천식치료는 천명이나 호흡곤란, 기침이 나타나는 발작기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완해기 치료를 중시하는 것이다. 완해기에 모자라는 폐(肺)기운을 보강해서 결과적으로 기도의 과민성을 억제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나 하나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병의 근본을 다스릴 수 없으며, 증상을 치료함과 동시에 호흡기계를 비롯한 전신의 기력(正氣)을 충실하게 하여 찬 기운이나 자극적인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인 것이다. "정기가 충실하면 병이 침범할 수 없다(正氣存內 邪不可干)" 황제내경의 글귀인데 알러지 질환의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02)530-8200, www.songamclinic.co.kr

---

밤! 밤! 밤! 밤따러 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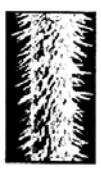
△충남 천안 유성농원(041-553-3120)에서는 10월 10일까지 밤줍기 행사를 한다. 시설 관리비로 성인 5000원, 어린이 3500원을 내면 군밤 식식 등을 할 수 있다. 20만평이 넘는 야산에 밤나무 2만여 그루를 갖추었다.

☞가는길: 경부선 목천 나들목 네거리에서 병천 쪽 우회전 후 2㎞ 직진 연춘교 앞에서 좌회전 개울 따라서 11㎞ 직진.

△경춘관광(02-777-6681)은 28 · 29일 경기도 양평군 화양1리 남한강변에 위치한 밤나무 농원으로 떠난다. 교통비와 밤값(4㎏)을 포함해 어른 2만5000원, 어린이 1만9000원.

△여행스케치(02-701-2507)는 10월 13일까지 매주 토 · 일요일 경기도 가평 푸름유원지로 밤줍기를 떠난다. 어른 3만5000원, 어린이 2만5000원. 1인당 4㎏을 가져갈 수 있다. 큰 밤, 예쁜 밤, 작은 밤을 주운 사람들에게 경품을 주는 행사도 한다.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아미타불을 친견, 직접 극락을 다녀오다!
중국 관정 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화제의 신간

극락은 있다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 신국판 | 정가 8,000원
실화 체험기

관정 큰스님은 현재 중국 복건성 선유현 적수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미국·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본문 중에서-
극락세계 체험의 내력 / 도솔천에서 스승 허운화상과 상봉
미륵보살의 설법 / 아미타불을 친견 / 하품 · 중품 · 상품연화
아미타불의 부촉 / 인간세계로 돌아오다 ……
좋은 佛書 좋은 佛子를 만드는 - 붓다의마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9 갤러리상 405호 ☎02)722-0292~3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이상 노보살님
02)917-3363(정릉)

사무도 함께 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487-8500
02)475-8600

기도 정진할 스님을 모십니다
011)269-7208
041)542-459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사찰 사무원 구합니다
▷ 충남 서해 바닷가 사찰
041)673-3222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아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엄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후원회 모집안내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은 2002년 8월 5일(2개월 과정)부터 개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 포교 활동과 지역사회복지 · 보건을 위한 전문간병인 양성교육기관으로, 본 이념에 뜻을 같이 하고자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제 2기 수강생을 수시 접수 합
후원회 법보시 입금계좌번호
▸대구은행 006-05-003306-1 ▸조흥은행 802-04-483739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531 ●전화 : 053-255-7573, 7583
대한불교조계종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장** 합장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사찰건립에 도움을 주실 분 전화주십시오
● 좋지을 땅(안동시 임야) 3000평 있습니다.
● 절건립에 동참하실 스님 또는 보시, 불사, 시주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 절건립을 도와주실(목수,미장공)기타 처사, 보살(공양주)께서도 전화주십시오
천불사 승려일동 드림
054)856-4804

道 역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목 : 사주, 육효, 관상, 작명, 궁합
◆교 재 : 千江月 (본인 저)
◆장 소 : 보림선원(경기도 일산 신도시)
◆문의처 : 031)919-0306
011)9701-0603
천년을 이어온 정통역학입니다.
● 금강경, 반야심경(佛)
● 노자, 장자(道)
● 논어, 채근담(儒)
강좌도 개설합니다
道學강좌 교재는 「붉은 회로에 눈 한송이」입니다 (본인 저)

천도의식 · 불공 안택 등
임시로 스님이 필요한 곳은 연락바랍니다
055)336-5691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찰안내
● 위치 : 남양주시
● 대지 : 65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90평
● 양도 : 10억
● 역사깊은 전통사찰임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7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 : 10억
● 산세좋고 계곡좋음 차량진입 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방학동 761 강북 중심상가(신동아A.P.T) 단지 옆 아파트 밀집지역
● 건평 : 4층건물에 3층 35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80만원
● 시설 : 심존불, 신중, 지장, 탱화모심 특 A급, 스님해외발령
02)955-6411
011)289-0476

포교원 안내
● 인천 부평구청 전철역5분거리 4층 건물 중 (3층) 34평
● 법당, 주방, 주지실, 화장실 별도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탱화 영단, 앰프시설 불기 일체
● 전 세 20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 1200만원(답사후절충가능)
032)521-171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 대지 : 300평, 법당 8평, 요사채 40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55)744-2167
011)541-8420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고찰
● 구교지임대 : 약 7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한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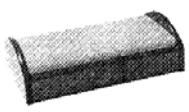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 산내면
● 대지 : 39,000평
● 법당 : 15평(창건 50년)
● 요사채 : 20평
● 가액 : 1억 2천
※경주 건천인터체인지에서 30분거리
※버스도로에서 3km산속에 위치
● 위치 : 사천 곤양
● 대지 : 약 7,500평
● 법당 : 24평 ● 삼성각 : 8평
● 요사채 : 40평 ● 주지실 : 17평
● 가액 : 3억 5천
※ 곤양 IC에서 10Km(교통편리)
※ 종교용지 878평, 완벽한 풍수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부지 : 500평(완전평지)
● 대웅전 : 25평(삼포 목조 단청)
● 요사채 : 25평(방 6개)
● 기타 : 산신각 용왕각 노천 석불
● 가액 : 1억 9천만원
055)673-6996
011)833-0374

포교원안내
● 위치 부천시 원미구청 옆 5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주방, 주지실, 상담실, 화장실별도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 보증금 :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32)652-9384
011)729-6011

사찰(급)안내
● 위치 :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환히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준농림지) 중
● 법당 : 27평, 요사채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 12평, 삼성각 : 16평(목조)
● 가액 3억 7천만원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입대형차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6)207-5600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전통한옥사찰 최고요지
● 대지 : 78평, 건평 60평, 중 대웅전 23평 석자 삼신불 후불옥금탱화 100평, 칠성 목급탱화 60평, 신중목금탱화 60평
● 홍송 삼단 법단 특급시설일체
● 큰방 2개 별채 방2개
● 즉시법회 창건을 원하시는 스님 비구니 스님 보살님께서는 연락바람 답사 후 결정
011)650-8481
063)285-6464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개발 벤처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국내 최초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황토 베개 개발
※ 전국 대리점 모집
(주) 지정황토산업 032) 427-6644~5

사찰 안내
- 포교당 -
• 위치 : 진주지역
• 법 당 : 15평
• 요 사 : 38평
• 부 지 : 466평
• 가 액 : 2억 5천
• 위치 : 부산
• 법 당 : 23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166평
• 가 액 : 3억7천
• 위치 : 인천지역
• 법 당 및 요사 : 120평
• 임대료 : 6000/150
• 시설비 : 1억 2천 사용 (시설비 절충가능)
즉시 법회 가능, 시설특급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남원시 소재
● 대지 : 120평(실사용 200평 이상)
● 법당 : 약 30평, 요사채 (스님전용방 3칸, 욕실 1칸, 신도방 3칸) 공양실 1동(공양주 방 1칸)
아담한 사찰 (비구 비구니스님 적합함)
● 주차장 완비 ● 가액 : 7천5백만원
016)850-8778

포교당 안내
● 우 치 : 경남 김해시 내동 3층 건물 중 3층 '신축' (법당자리)
● 건평 : 60평
● 보증금 : 4000만원
월세 : 40만원
전세가능 가액 : 7000만원
현장 방문 후 가액 조절
017)845-709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최고 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산신, 용왕, 지장 소불108불, 영가단, 후불홍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 3개, 주방, 샤워실, 주차장완비
● 가액 : 전세 3천만원, 월 47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 2000만원
017)556-5691

포교당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7호선 남성역 1번출구에서 약 500 m)
● 평수 : 약 35평
● 특징 : 아미타 주불, 신중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2)598-1326

四柱(易)風水 강좌
가장 빠른 핵심강의, 초급, 중급반 병행청강가능
전문 풍수사 역학사 양성 자격증, 회원증 발부
◆ 매주 오전 10시30분 ~ 12시, 오후 7시 ~ 8시30분 ◆
역학의 비결, 양택의 비결, 명당의 비결 유명서점판매 中
http://www.ps21c.com
사단법인 한국자연지리협회
☎ (02) 922-1553, 929-1188
지하철 1호선 제기역 1번 출구 바로 앞 금성빌딩 2층

권대창불교건축 권대창목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 781-4989
H P 016)768-4324
011) 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중합개발 이중봉 합장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상미
● 대지 : 종문소유, 200여평사용가능
● 건물 2동, 방4개, 보일러 기타시설 완비
● 부처님 한분 모시고 있음
● 해발 600고지, 계곡 띠고 경관이 수려
● 가액 1500만원
011)541-9457
054)822-7497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아래 명당 자리 도로에서 200m안 골
● 부지 : 175평(하천 부지 임야 220평 사용)
● 가액 : 3500만원
● 특징 : 진입로 有, 터정리 완료 시내에서 10분거리 암자나 신당 터 최적지
033)553-6860
011)368-7653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도마동 2층 복채 40평
● 방 2개, 화장실 2개, 부엌 1개 법당, 상담실, 공양간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 15만원
● 시설물 : 석가모니일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불기 목기 연등 기타 살림도구 일체
● 권리금 400만원, 가격절충
016)294-5264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목조 새건축)단청완료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6호선 신당역)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부근
● 건물 : 최신건물로 대지 100평 건물 30평 텃밭 500평 임법당 법당 방 2개 욕실 2 주방 1 난방심야전기
● 가액 : 1억 2천(절충가능)
011)429-6059
032)876-224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 법당 : 40평, 3존불(3.5자) 후불 탱화,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화, 다다미 마루, 방2칸, 부엌 1칸
● 가액 : 5천만원(상담절충가능)
011-735-9178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토굴안내
● 위치 : 안동시 시청에서 5분거리
● 평수 : 20평, 방3개, 주방, 거실, 욕실(기와집)
● 특징 : 삼면이 산으로 되어있음 수행처 및 절집 가능
● 주차 : 바로 집앞 120평
● 텃밭 : 150평(일년도지 5만원)
● 가액 : 전세 6백(시설비 약간)
054)855-0109

사찰안내
● 위치 : 남원시 소재
● 대지 : 120평(실사용 200평 이상)
● 법당 : 약 30평, 요사채 (스님전용방 3칸, 욕실 1칸, 신도방 3칸) 공양실 1동(공양주 방 1칸)
아담한 사찰 (비구 비구니스님 적합함)
● 주차장 완비 ● 가액 : 7천5백만원
016)850-8778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 (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소재
● 부지 : 80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30평(신축)
● 가액 : 4억 4천만원
● 특징 : 천년고찰터에 신축으로 조성된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소재
● 부지 : 약 5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3억원
● 특징 : 신라시대등불(보물급)이 있는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읍 위치 서산사
● 법당 : 30평
● 요사채 : 25평(2동)
● 대지, 임야 : 5000평
● 가액 : 1억9천(가액조정가능)
● 만약 증축시 70평 가능함
011)9457-6954

사찰 안내
● 대지 : 192평
● 요사채 : 70평, 법당 :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 단청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세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임진강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160평
● 법당 : 목조 20평 단청필
● 요사채 : 20평 1동, 10평 1동
● 가액 : 7천만원(전세 가함)
● 주지스님 급한사정으로 구입가양도
055)973-2269

암자토굴별장
● 위치 : 대구 포항간 산업도로 영천 IC에서 신령 안동방면 900m (영천시내 인접)
● 산수수려, 주차공간 넓어 투자가치 최고임
● 건물 : 철골 조적 12층 (2층 원룸)양옥 65평
● 가액 : 1억 7천 가격절충
054)337-3996
011)529-3996

사찰 양도 안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남 활법사 · 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 1명이라도 교육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은동회복법(저항은동법) 9. 내장부활은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안마(추나)자격 취득 : 12월 10일 출발 7박 8일간. (현재 접수 중)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4)855-6461, 02)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 wooh57kr@yahoo.co.kr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대로변 3층 건물 중 2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특 A급 답사 후 결정
011)9150-8633

사찰 안내
● 위치 : 용인시 안성 중간
● 법당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2천
011)9961-024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인근
● 부지 : 2000평
● 대지 : 420평
● 법당 : 가건물 20평
● 요사 : 45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전세 : 5000만원
016)868-5517

사찰안내
● 위치 : 계룡신도시 아파트 3만세대 밀집지역
● 대지 : 150평
●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토굴안내
● 위치 : 통도사 언양 중간 신불산
● 임야 : 500평에 대지 180평
● 사후 사찰로도 가능
● 고지 550m, 적송 울창
● 계곡 접, 컨테이너집 한채
● 가액 : 6500만원
011)9508-8477

포교당 안내
●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법당15평 스님방 5평 주방시설완비
● 수원역5분거리 수원도청입구 대로변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9)319-5954
02)388-1597

"11월6일 제2요사채 마야부인당 상량식

국민·국가적 지원 절실"



8년동안 부처님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에 한국 사찰 대성석가사를 짓고 있는 주지 각현 법신 스님이 일시 귀국했다.

스님은 "룸비니에 중국 일본은 물론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사찰은 이미 국비로 지어져 국위를 선양하고 관광객과 참배객을 받고 있다"며 "한국 절 건립불사에 일반 국민과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룸비니개발위원회로부터 국제사원구역내의 부지 1만평을 장기임대한 대성석가사는 98년 783평의 제1요사채 무우수당을 완공했으며, 그동안 룸비니 성지를 찾은 한국인 1만여명과 외국인 5만여 참배객들에게 숙식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룸비니 한국사찰 '대성석가사' 건립 법신스님

◆대성석가사 건립현황은.

"현재 제1요사채가 완공됐고, 11월 6일 상량식을 갖는 1100평의 제2요사채 마야부인당이 25%, 1935평 규모의 대성석가사 대웅보전이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 법당 앞에는 석가탑과 다보탑모형의 석탑을 건립한다. 현재 전체적으로 50% 가량 지어졌다."

◆여러 어려움이 많을텐데.

"세계적 규모로 건립한다는 은사 도문스님의 뜻에 따라 대성석가사는 룸비니성지를 찾는 불자들의 수행도량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8년동안 워낙 많은 예산이 투여되다보니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회와 대성석가사 명선회 신도들의 후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한국국민 1인 1등 켜기운동을 벌여 1만등을 켰다. 대성석가사 불사는 1천6백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이다. 불교중흥과 종교중흥 인류중흥을 위한 성지가꾸기에 불자들의 관심을 바란다."

성도지 부다가야에도 한국절 계획

◆한국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일 5000~1만여명의 현지인과 외국인 수백명이 참배하기 위해 찾아온다. 이들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안내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동방의 나라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다른 계획은.

"성도지 부다가야 국제사원지역내에 한국절을 건립할 계획이다. 5년 전부터 부지배당 신청을 해왔는데 올해 안에 성사될 것 같다. 오랫동안 힌두교와 싸워 보드가야 대탑을 찾은 담마팔로스님이 '마하보디소사이티' 라는 단체를 창립하고 대탑복원과 녹야원앞 10만평에 성역화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현지단체와 스님이 성역화 불사 하는 곳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동참문의 (051) 746-6092~3.

김원우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조계종 울산광역신도회 종단등록기념 법회 열어

10월 6일 통도사신도회 창립식에 이어, 9일 조계종 울산광역신도회 종단등록기념 대법회가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는 16일 통도사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김재경 기자

개산 기념행사 여는 사찰

사찰	때	연락처
합천 해인사	10월 1일	(055)931-1001
양산 통도사	10월 6~30일	(055)382-7182
대구 동화사	10월 27일	(053)985-4404
김제 금산사	10월 25일	(063)548-4441
영천 은해사	10월 13~14일	(054)335-3318
서울 조계사	10월 25~31일	(02)732-2183
봉화 청량사	9월 28일	(054)672-1446
공주 갑사	11월 3일	(041)857-8981
서울 봉원사	12월 14일	(02)392-3007

산문열린 날은 지역축제일

개산대재 새 문화포교형태로 자리

본격적인 단풍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산문을 열어 처음으로 절을 세운 날을 기념하는 개산대재가 잇달아 열려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개산대재를 여는 사찰들은 개산조의 사상을 이어받아 사찰의 법통을 바로세우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포교를 지향하고 있어 새로운 문화포교 형태로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

개산 1200주년을 맞는 합천 해인사는 10월 1일 대대적인 기념 법요식에 앞서 9월 28일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 초청 임제록 강설, 29일 해인사의 역사 및 사상 조명 세미나, 30일 헌공다례와 다도강좌 등을 열어 시민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9월 24일부터 아시안 게임 성공기원 만다라 그리기 행사를 진행하는 양산 통도사는 개산 1357년 기념 행사를 10월 6~30일 연다. 6일 영축예술제, 13일 자장율사 가사친견, 14일 합창제, 23일 불화그리기 등을 연다.

조계사는 창건 92주년을 맞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초중고 불자들을 위해 사생대회 및 백일장을, 신도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와 운동회를 연다. 대외적으로는 10월 25일 창건기념법회와 '조계사 포럼'을 열어 성역화를 계기로 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대구 동화사는 10월 27일 백고좌법회 회향을 겸한 개산기념 법회를, 김제 금산사는 10월 25일 개산 1404주년 기념 보살계 수계법회를 연다. 개산 1339주년을 맞는 봉화 청량사는 28일 '천년의 울림, 천년의 소리'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연다.

영천 은해사도 10월 13~14일 1193주년 개산기념 보살계 및 만등불사를, 공주 갑사는 11월 3일 개산기념 영규재를, 서울 봉원사는 12월 14일 개산기념법회를 갖는다.

이처럼 개산대재는 기존의 법요식 위주의 행사에서 점차 문화, 예술적인 지역축제로 정착되고 있어 종단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해인사-기념법요식·헌공다례·세미나

통도사-영축예술제·자장율사 가사 친견

조계사-음악회·사생대회·포럼 개최

미륵사지에 역사·문화촌 조성

익산시, 2007년까지 270억 들여 10개 시설

백제고찰 익산 미륵사지 앞에 미륵신앙, 불교예술등 문화적 전통을 배울 수 있는 역사.문화촌이 조성된다.

익산시는 17일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국가사적 150호) 주변의 경관훼손을 막고 백제말 고도(古都)인 익산의 있도록 2007년까지 270억원의 예산을 투입, 72만여㎡ 규모의 역사.문화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대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해 수립한 미륵사지 주변지역 정비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역사.문화촌은 역사문화, 미륵신앙, 교육 및 공연, 동서화합, 민속, 세계종교, 전통음식, 전통공예, 숙박, 공공편익시설 등의 10개 공간으로 나뉘어 건립된다. 김원우기자

회당문화축제 30일개막

사물협연등 사흘간 진행

진각종은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울릉도 주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제2회 회당문화축제를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 울릉도 도동항 소공원에서 개최한다. 축제는 사물협연, 풍물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16일 불우이웃에게 한가위 성금을 전달하고 있는 삼광사주지 도원스님.

한가위 불우이웃돕기

삼광사, 성금전달법회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16일 법화당 5층 회의실에서 한가위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법회를 가졌다.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마련한 이날 법회에서 부산시 추천 소년소녀 가장, 무연고 노인, 모자가정 등 불우이웃 90세대에게 총 900만원을 전달하고 다과회를 가졌다. 천미희 기자

네팔 룸비니 '대성 마야부인당' 상량식

네팔·인도 성지순례도 함께 합니다

불타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주지 각현법신은 일시 귀국하여 국내의 사부대중에게 인사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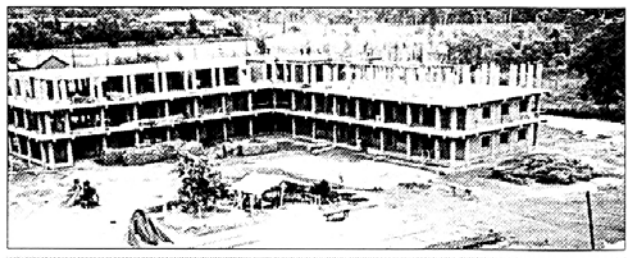
불타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제2요사 대성 마야부인당 상량식인 금년 임오년 음력 10월 2일 양력 11월 6일을 앞두고 그 준비차 일시 귀국을 하여 그동안 대성석가사 제1요사 대성 무우수당 건립과 대웅보전 건립과 제2요사 대성 마야 부인당 건립에 직접 간접 음으로 양으로 협조하시고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께 지극한 감사를 이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옵니다.

불탄절인 매년 음력 4월 15일 一人一 燈 一萬燈 관등불사에 해년마다 수희 동참해 주신 7중 불자에게도 간절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일광여행사 정동명 사장님께서는 돈독한 신심과 확고 부동한 원력으로 네팔 인도 성지 순례하는 순례객을 배놓지 않고 불타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에 인도하여 이 성역화 건립불사에 크게 이바지해 주신데 대하여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성 마야부인당 상량 법회에 참례하기 위해 서울 일광여행사(사장 정명동)에서 11월 3일(일요일)부터 15일(금요일)까지 한국 인천 영종도 국제 황공을 출발해서 인도의 수도 델리와 럭나우와 부처님이 오래 주석하신 사위국 기원정사를 순례하고 불타탄생성지 룸비니에 이르러 11월 6일 대성 마야부인당 제2요사 상량법회를 마친 다음 부처님의 입멸 성지 쿠시나가르 제 2결집성지 바이살리 제 3결집성지 파트나나란다 대학터와 라지기르 왕사성 불교 최초 사원인 죽림정사지 영취산 일대를 순례하고 부처님의 성도 성지 보드가야 보리수원에 정중한 예불을 드리고 부처님의 최초 설립 성지 바라나시 일대를 순례 델리를 관광하고 싱가폴을 경유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귀국하는 12박 13일의 일정에서 220만원 소요경비로 네팔 인도 성지 순례 겸 룸비니 제2요사 대성 마야부인당 상량식 법회의 성불 인연을 짓는데 동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일시 귀국 인사로 대신하옵나이다.

네팔룸비원 대성성가사 주지 각현법신 합장



◇인도 룸비니 대성석가사 전경◇

행 사 안 내

일 정 2002년 11월 3일 ~ 11월 15일 (12박 13일)
※ **11월 6일 대성마야부인당 상량식**

동참금 220만원

연락처
- P.O.37 Siddhartha Nagan Rupandehi Lumbini Nepal
  Dae Sung suk gasa
  Tel : (001)977-71-80123 Fax : (001)977-71-80125
  주지 각현법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 2동 1485의 5번지 불타탄생성지 룸비니 포교원 주지 각현법신
  Tel : (051)746-6092~3 Fax : (051)731-2422
  H·P : 016-208-2168

접수처 네팔 인도 성지 순례 겸 불타탄생성지 룸비니 대성석가사 제2요사 대성 마야부인당 상량 법회로 인도하는 여행사

여행사
- 서울 일광여행사 사장 정 동 명
  Tel : (02)736-6272 Fax : (02)735-3928
- 일광여행사 부산지사
  Tel : (051)558-9956~7 Fax : (051)558-9958

짓다만 대구불교회관 흉물전락

마하야나 재정난, 철골만 세운채 8년째 공사못해

"동화사·사원주지련 합심 공사재개를"

대구지역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구불교회관 건립 공사가 철골 구조물만 세운 채(30% 정도의 공정) 8년째 방치, 흉물로 전락해 지역불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동구 신창4동에 건립중인 대구불교회관은 지난 83년 불교회관건립 추진위원회(회장 백욱기)가 구성된 이래 추진주체가 여러 차례 바뀌어 오다, 88년 대구사원주지연합회에서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을 설립, 기금마련 및 토지매입에 적극 나서 93년 6월 대구불교회관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대구불교회관 건립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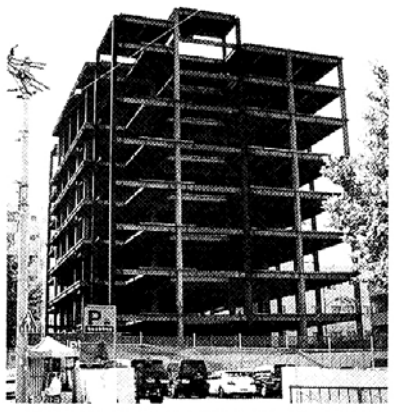
그러나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 재정난에 빠지면서 93년 12월 공사가 중단, 벌겋게 녹슨 철골 구조물만을 남겨둔 채 불교회관 건립문제가 8년여의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새 보금자리를 얻어 지역포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꿈에 부풀어 있던 대구지역 신행단체들은 불교회관 건립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대구불교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동화사와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매년 신년하례 및 교계 중요발표회에서는 연례행사처럼 불교회관 건립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아직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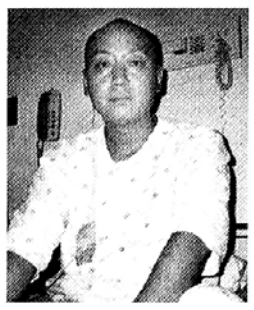
이들 두 교계단체가 서로 협력하면 쉽게 성사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구불교계 한 관계자는 "팔공산 갓바위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어려워진 불교회관 건립문제가 동화사의 지원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조계종 공찰인 동화사가 조계종단 소속도 아니며 목적 또한 통불교회관 건립을 표방하는 마하야나불교문화원 측에 공금을 지원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대구불교회관은 단순히 회관을 하나 세우는 의미보다 대구불교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에 더욱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라도 지역 불교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19년을 끌어온 대구불교회관 건립문제가 하루빨리 일단락되기를 지역불자들은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박원구 기자



◇공사가 중단된채 8년째 방치되고 있는 대구불교회관.



도와주세요

IMF후 거듭된 사업실패에 급성백혈병 1년…수술 막막

급성백혈병으로 1년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해 오던 한 불자 가장 이광용씨(42 사진)가 이식수술 비는커녕 생활비 마련도 곤란한 처지에 놓여 애를 태우고 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이광용씨의 불행은 IMF이후 거듭된 사업 실패에서부터 시작됐다. 수천만원을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보증금 5백만원 월세방에서 살던 이씨는 주방장일을 하던 식당에서 사택까지 제공받으면서 그나마 어려운 살림을 꾸려왔다.

하지만 올 2월 뜻하지 않은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지금은 하루 생활마저도 어렵게 됐다. 다행히 자신의 골수를 이식하는 자가동종 이식수술의 길이 열렸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에 3천여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감당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도움주실 분은 (02)734-8050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철우 기자

경부고속철 강행 사전공사?

약속어기고 굴삭기등 동원 문화재 시굴조사

부산·경남 노선인 14-1 공구 양산시 동면 법기리와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일대에서 문화재 시굴 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경부고속철 공사 강행을 위한 사전 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통과반대 시민종교대책위는 14일 현장답사를 마친 후 성명서를 통해 "건교부 정책수송실장 방문시 협의체 구성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굴삭기 등을 동원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대책위는 16일부터 시굴조사 전면 중단, 건교부 장관 공단 책임자 사퇴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지율스님은 "민관협의체 구성 논의단계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고속철 노선 공사 강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고속철과 건교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부고속철공단 관계자는 "시굴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공단의 의뢰를 받아 경남문화재연구원과 동아대 박물관팀이 '가마터'로 추정되는 그 일대를 조사하는 문화재 시굴조사일 뿐 노선공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노선조사위 구성 추석지내고 논의

불교계와 정부, 건설업체가 노선 조사위원 수를 놓고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10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던 북한산 관통도로 대안노선 노선조사위원회 발족이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노선조사위원회 구성 실무를 맡고 있는 불교계와 정부,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16일 만남을 갖고 추석 이후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인원 문제를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또한 관계자들은 양측이 좀더 비중 있는 책임자가 서로 만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새롭게 논의키로 했다.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최근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문제가 적극 검토되는 것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강유신 기자

중학교 교사가 종교편향교육

특정종교색채 책·음악 등 가르쳐

공교육 기관인 중학교 교사가 종교 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조계종 종교편향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목포 유달중학교 교사 이모씨가 일방적으로 종교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해 학부모에게 항의받은 사실을 접수받고 진상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으로 접수된 바에 따르면 음악교사인 이모씨는 △특정 종교음악을 부르게 하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책의 독후감을 쓰게 하는 등의 종교 편향적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종교편향위원회는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김태복장군 결백 서명운동 펴기로

포교사단 봉일·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임희웅, 이하 종편위)는 "김태복 장군 재판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등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후속 조치로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포교사단 종편위는 9월 2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리는 서울경기포교사단 하반기 연수 때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김태복 장군 후원회 등 불교단체들의 협조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비슬산 대견사지 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추진

달성군은 사업비 1천200만원을 들여 16일부터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3주에 걸쳐 대견사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벌인다. 이번 시굴 조사에서는 대견사지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군은 문화재 시굴 조사 후 내년에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대견사지의 복원 사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현재 대견사지 일대에는 연화좌대, 3층석탑(원래는 9층석탑), 축대, 주춧돌 등이 남아있어 사찰의 규모를 짐작케 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수학능력시험(11월 6일)을 앞둔 수험생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수험생의 핸드폰에 부처님 말씀과 격려의 문구를 하루 3번씩 전송해 주는 것. 수능시험 36일전인 10월 1일부터 하루 3번씩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시험전날까지 모두 108번이 된다. 이 108번 동안 수험생에게 위안과 힘이 되는 부처님말씀을 전하는데 드는 동참비는 3만원이다.

불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지도리가 개발한 솔루션으로 오전 6시와 정오 오후 6시에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이 행사는 9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문의 (02)725-9787

이한길 기자

수험생 핸드폰에 하루3번 부처님 말씀·격려문구 전송

대구햇빛시니어클럽 개관

노인자활후견기관 복지부 지정 받아

대구불교사회복지회의 대구햇빛시니어클럽(관장 지도스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자활 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1일 개관했다.

대구지역 5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햇빛시니어클럽은 기존의 작업장과 함께 10월 1일 경로당을 빌려 제2작업장을 개소, 노인들의 손맛을 활용한 햇빛촌 떡집사업, 국 죽 밑반찬 등의 생산품을 일일장터를 통해 판매하는 등 소득창출형 자활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햇빛시니어클럽 신창호 간사는 "자활사업 뿐만 아니라 동화 구연, 문화해설사, 사물놀이 교양강좌 강사 양성 등의 문화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박원구 기자



◇수원포교당이 최근 수탁한 서호노인복지회관 전경.

서호노인복지관 수탁 수원포교당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이 최근 수원시로부터 서호노인복지회관을 수탁했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서호노인복지회관은 연건평 960평의 신축 건물로 물리치료실, 주간노인보호실, 대강당,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관내 4,000여명의 노인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수원포교당은 상담, 의료지원, 취미여가 활동 지원, 자활증진 사업, 독거노인 재가복지 사업 등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예절 및 충효교실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은 "수원 불교계가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효행의 도시 수원에 걸맞는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중국소림사 한국분원 내년 선원사내 개원

중국 소림사 한국분원이 강화 선원사내에 개설된다.

강화 선원사는 10일 중국 숭산 소림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2003년 3월부터 선원사내에 소림사 분원을 개설키로 합의했다.

소림사 한국 분원에는 중국 소림사 스님들이 상주하게 되며 무술 수련장도 함께 개설된다. 강화 선원사와 중국 소림사는 초중고교 정규체육시간에 소림무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숭산 소림 무술 홍보를 통한 다각적인 포교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식 기자

당신의 전생을 보여드립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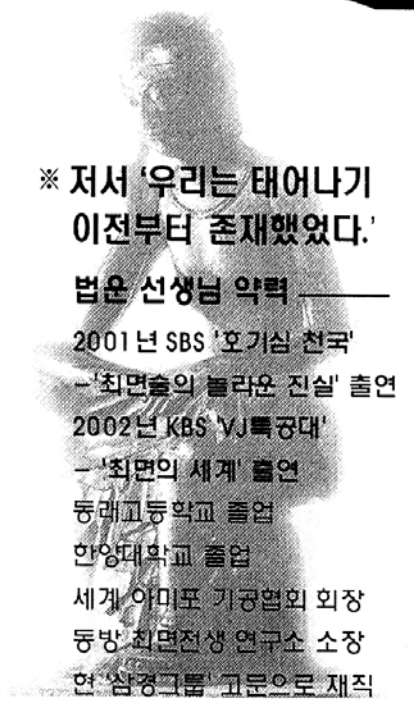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최면전생 특강 내용

(1) 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天道)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歌)나 빙의령(憑依靈)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2) 전생퇴행 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3) 원격 제령 최면
제 3자가 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몽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최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4) 최면 파동요법
사람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歌)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일주일 과정)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법윤 선생님 약력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2002년 KBS 'VJ특공대' -'최면의 세계' 출연
동래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세계 아미포 기공협회 회장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동방최면전생연구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봉정사의 아름다운 숲길.

"가을에는 내가 그를 사랑한 것도 아닌데, 그가 미치도록 그리울 때가 있다…"

어느 시인이 노래했듯 문득 그리움으로 다가온 가을 천등산 봉정사. 중앙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봉정사 가는 길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송이 산출 많은 솔숲 울울창창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6) 천등산 봉정사

글 ·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초가을에 잠깐 스쳐지나가는 활은 장마를 견들장마라고 했다. 맑은 가을비로 단장한 천등산 봉정사는 그대로가 한템기 구절초다. 지난 6~7일 안동 봉정사로 생태기행을 나갔다.

주차장에 내리면 반백년은 됐음 직한 솔밭 가운데로 절로 가는 길이 나 있다. 일주문을 지나면 왼편 개울 건너에 잘 생긴 바위와 앙징맞은 정자가 서로 벗하며 숨어있다.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 바위는 퇴계 선생이 봉정사를 드나들며 '명옥대'라 불렀다 한다. 모든 사물은 저마다 이름을 갖고 이 지상에 존재한다. 다만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뿐이다. 바위 하나에도 이름을 불러준 옛 사람들의 풍류가 그립다. 명옥대를 지나면 봉정사와 지조암으로 가는 길이 갈라진다. 이번 기행은 지조암-정상-개목사-영산암-봉정사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택했다.

길섶과 산자락 풀밭엔 가을을 마중 나온 마타리, 기름나물, 고마리, 여뀌, 물봉선, 며느리밥풀꽃, 잔대, 참풀, 닭의장풀, 새콩, 싸리꽃, 사위질빵 등이 차지하고 있다. 개울을 따라 올라가면서 참나무류와 산뽕나무, 느티나무, 때죽나무,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왕버들, 자귀나무 등이 어우러져 있다. 산뽕나무는 해발 1천미터 안팎의 산골마을 부근이나 산기슭에 자생하는 우리 나무다. 누에를 기르는 일반 뽕나무에 비해 잎이 작다. 이곳에서 관찰되는 산뽕나무는 잎이 다섯 갈래로 크게 갈라지는 가새뽕나무들이다. 참나무류들이 있는 곳에서는 사슴벌레들 비롯 몇 종류의 딱정벌레들이 나타나지만, 나무의 물이 내려가는 가을날이라 자취를 감추고는 보이지 않는다. 길섶과 풀밭에 가수가 많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작고 희소하다고 생명이 아니겠는가.

지조암(知照菴)은 원래 폐찰 흥국사의 열반당이었으나 지금은 봉정사 산내암자로 귀속되면서 지조암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었다. 얼마 전에 몇 평 짜리 연못을 절문앞에 조성해 놓았다. 외래종인 부레옥잠 대신 우리 고유의 수생식물들을 심어놓으면 운치도 있고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정화지(淨化池) 역할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조암을 지나면 반가운 흙길이다. 포장길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흙길은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 모든 생명들은 본래 비포장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갈라진 발가락부터가 그렇다.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주변 숲은 소나무의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활엽수들이 구조조정되고 있다.

얼마 전에 새로 복원한 내원암 주변은 소나무와 활엽수들이 반분하는 혼효림이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면 곧바로 단순림으로 불러도 좋을 솔숲이 울울창창하게 나타난다. 천등산의 솔숲은 안동지역에서 가장 송이버섯 생산량이 많다는 송이밭이다. 천등산의 송이버섯은 봉정사의 점 살림을 윤택하게 해주는 소중한 재원(財源)이면서 천등산의 생태지표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송이버섯은 소나무 뿌리 끝 부분인 세근에 붙어사는 담자균류에 속하는 외생균이다. 이름 그대로 소나무(적송)에서만 자생한다. 처음에는 낙엽 속에서 남근(男根) 모양으로 자라다가 지표에 나오면서 갓을 피운다. 갓은 대개 15cm 안팎이며, 밤갈색을 띤다.

송이가 많이 나는 솔숲일수록 건강한 것은 송이버섯이 소나무로부터 탄수화물을 얻어내는 동시에 땅속의 무기질(인, 질소) 등을 흡수하여 소나무에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이버섯은 주위의 생태환경이 조금만 상처받아도 수십년을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그 영물스러움만으로도 천등산의 지표종이 될 만하지 않은가.

송이 채취는 건들장마가 끝나기 바쁘게 시작된다. 이 무렵이면 송이채취권을 딴 업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산을 지킨다. 업자들이 양질의 송이를 얻기 위해 이른 봄부터 소나무 아래 진달래와 철쭉 등 관목들을 제거하여 숲을 팍팍하게 만들었다. 그 바람에 꽃이며, 곤충, 새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천등산은 6백m도 안 되는 얕은 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발 아래로 낙동강 기슭의 야산들과 논밭들이 일망무제로 펼쳐져 있다. 뱀눈그늘나비 몇 마리가 건들장마에 찢은 날개를 팔리러 산꼭대기로 날아들었다. 나비라고 해서 모두 꿀을 빠는 것은 아니다. 뱀눈나비도 꿀보다 나무의 진을 좋아한다. 정상 부근에서 이 나비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소나무 단순림이 끝나고 혼효림이 시작된다는 신호이다. 그러나, 이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뱀눈그늘나비도 천등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내년 여름에나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정상 아래쪽에 전설의 천등굴이 있다. 의상대사의 10대 제자중 한 사람인 능인대사가 이곳에서 옥황상제가 내린 등불을 켜고 수도했다고 한다. 천등산이라는 지명도 거기서 연유한다. 그러나, 지금은 안동지역의 무당들이 빈번하게 드나들면서 환경이 피폐해지고 산불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정상에서 개목사로 내려가는 길은 참나무류를 중심으로 한 활엽수들이 화엄의 수해(樹海)를 이루고 있다. 천등산은 전형적인 육산인 까닭에 식생들이 모두 풋풋하고 건강하다. 그러나, 햇볕이 들지 않을 정도로 숲을 20여분 벗어나면 개목사(開目寺)를 만난다. 개목사라는 인상적인 이름은 조선조 명재상이었던 고봉 맹사성이 안동부사로 있을 때 백성들이 눈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비보(裨補)하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한때는 전탑까지 우뚝했던 99칸 대찰이었으나, 지금은 가을볕에 단청이 바랜 퇴사(退寺)에 불과하다. 돌담장엔 붉은강남콩 덩굴이 올라와 요염스러운 진홍빛 꽃을 피우고 있다.

개목사 텃밭은 예전에 시커먼 장막을 치고 인삼을 심었으나, 지금은 도라지꽃이 만발이다.

봄이면 개목사 주변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다. 능인대사가 그걸보고는 '꽃의 언덕'이란 뜻으로 '화언(花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절 아래 화원(花原) 마을이 바로 그 전설의 흔적이다. 개목사에서 영산암 가는 오솔길은 인적이 드물어 호젓하다. 숲은 여전히 소나무가 섞인 혼효림의 연속이다. 길섶과 양지 바른 풀밭에선 가을 풀벌레들이 오케스트라를 연출하고 있다. 흔히 향수의 소리라고 하면, 봄날의 뻐꾸기 소리, 여름날의 매미 소리, 가을날의 귀뚜라미를 떠올린다. 풀벌레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시도 때도 없이 운다. 하지만, '풀벌레 울음소리'라고 했을 때 십중팔구는 가을을 연상한다. 거기에는 자연과학의 법칙이 숨어있다.

여름은 기온이 높아 소리가 위로 상승하지만, 입교차가 심한 가을은 공기 이동이 지면 위로 흐르기 때문에 풀벌레소리들이 더욱 맑고 뚜렷이 들린다.

영산암은 봉정사의 산내암자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을 비롯 몇 편의 불교영화의 무대로 나온 적이 있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으나, 보수공사가 시작되면서 발걸음이 뚝 끊겼다. 영산암은 영주-안동-예천을 잇는 경북 북부지방의 전형적인 ㅁ자형 양반가옥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ㅁ자 공간에 막돌 석축을 놓아 입체적으로 이분화한 것은 산비탈의 경사를 활용한 생태건축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절제의 미학'으로 설명되는 우리 절집의 사철조영이다. 마당 한켠에 만지송(萬枝松)이 잘 자라 있다. 무수히 많은 가지가 부챗살처럼 펼쳐지는 만지송은 소나무의 한 변종으로, 반송(forma multicaulis)과 같이 유전적 형질의 소산이다. 그러나, 지표에서부터 가지가 갈라지는 일반 반송과는 달리 지상에서 1m 이상 자란 줄기에서 가지가 갈라지는 것이 만지송의 특징이다.

수백년된 두 그루의 갈참나무가 지킴이로 서 있는 돌계단을 내려서면 바로 봉정사 큰 절이다. 1972년 극락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량문에 따르면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대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천등산을 한 마리 봉황으로 보았을 때, 봉정사는 봉황의 몸통이요, 아까 지나온 지조암은 오른쪽 날개요, 개목사는 왼쪽 날개에 비견된다. 절묘한 포석(布石)이다. 이것은 옛 스님들의 자연을 읽어내는 능력이 수승함을 보여준다.

봉정사의 동선은 가파른 돌계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앞면 5칸의 헌걸찬 만세루가 느티나무 기둥 위에 올라앉아 있다. 만세루 우람한 기둥들이 흰개미의 공격을 받아 내홍을 앓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바늘구멍만한 흰개미 구멍들이 기둥마다 무수히 뚫려 있고, 이미 몇 개의 기둥은 흙담처럼 허물어져 가고 있다.

자연생태계 속의 흰개미는 숲속의 썩은 나무들을 말끔히 분해해주는 청소부지만, 공들여 지은 건축물들까지 무차별로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해충이다. 땅속에서 태어나 성충이 되면서 곧바로 목재들을 공격해 일생을 나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흰개미의 공격을 받은 기둥은 내부가 텅 비게 되어 지붕의 하중을 지탱할 수 없어 휘어지거나 내려앉게 된다. 흰개미의 수명은 1년 남짓하지만, 수십만 마리로 이루어진 집단의 수명은 평균 30년을 간다고 한다. 현재로는 연막방제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지만, 방제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아 더욱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옛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기둥 아래에 숯과 소금을 넣어서 방제했다고 하나, 요즘은 그 지혜도 잘 쓰지 않는다.

봉정사에도 오랜 은행나무가 두 그루 있다. 고금당 뒤쪽 기슭에 있는 두 그루 은행나무는 수관이 그리 장대하지는 않으나, 연륜은 매우 깊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뚜렷한 부부수(夫婦樹)이다. 이 부부수가 독신의 수행자들이 사는 절집에 들어오게 된 것은 신라 스님들이 중국 유학에서 돌아오면서 약목(藥木)으로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절집에서 보는 대부분의 은행나무들이 암나무라는 사실이다. 조선시대에 관아에 은행알을 공출하기 위해 암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이다.



◇'천등산 봉정사', 이호신作(88×137cm), 1999년 作.

길섶 · 산자락에 형형색색 풀 · 나무 서식
영산암, 산비탈 활용 '생태건축' 좋은예
15센티 민달팽이…대기 · 토양오염 민감
흰개미 창궐 사찰기둥 갉아 골칫거리로



◇민달팽이는 대기와 토양오염에 매우 민감한 생물이다.



◇흰개미 피해가 심한 만세루 기둥.



◇천등산의 생태지표종 송이버섯.



" 스님 · 불자님 "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종국대의료원 산하 5개 망 안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아하몰"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66%할인
- 유명백화점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불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가문 입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